

碩 士 學 位 論 文

1930 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문제인식 연구

-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소설을 중심으로 -

1994年 12月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國語國文學科

現代文學專攻

朴 仁 淑

碩士學位論文

193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문제인식 연구

-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소설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李 正 淑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 함.

1994年 12月 日

漢城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現代文學專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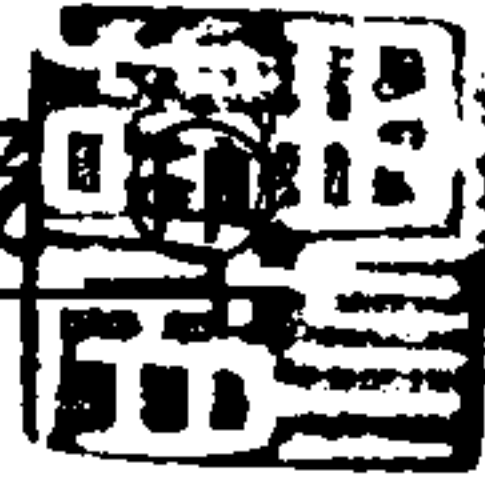
朴 仁 淑

朴仁淑의 文學 碩士學位請求論文을 認准 함.

1995年 2月 日

審查委員長 朴 好 泳 教授 

委 員 李 正 淑 教授 

委 員 王 必 烈 教授 

漢城大學校大學院

국 문 요 약

1930년대는 남성중심의 문학사에서 비로소 여성문학의 위치를 확립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이다. 본 논문은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로 손꼽히는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의 작품세계를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페미니즘 비평은 세계적인 현상인 여성해방운동의 흐름을 문학의 영역에 끌어들이므로 기존의 남성중심적 작품해석과 평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이며 이는 성차에 대한 연속성을 분석하여 그것을 수정하고 극복해보자는 데 그 의미를 갖는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식은 천주교의 전래, 동학운동에서 태동되어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사립학교가 세워졌고, 여성단체의 활동이나 여성잡지의 출현 그리고 서구 여성해방이론의 유입 등으로 고조되어 갔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 위협으로 여성운동은 구국운동으로 전개되어 갔고 서양에서 일어난 여성인권운동이나 성의 해방과 같이 여성자신을 위한 것은 못되었다. 1920년대에 여성해방을 주제로 하여 등장한 여성소설은 1930년대에 와서 여성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여 여성문제를 다양하게 그려내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세 작가는 식민지라는 민족적 수난기의 현실과 관련되는 여성의 문제를 그려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2장에서는 작품과 연관되는 점들이라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실을 제시해 보았다. 시대상황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살펴보고 세 작가의 생애와 당시 문단에서의 평가를 간략하게 추적해 보았으며 여성의식의 형성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작품에 들어가 네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궁핍문제와 여성문제를 동시에 포괄함으로 이중구조를 보이는 작품들 중에서 극한 궁핍에 고통받는 농촌여성의 생활상과 노동여성문제, 조혼과 성의 상품화 문제 등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여성작가들이 식민지의 궁핍화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함께 궁핍한 여성의 현실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민지의 궁핍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성의 문제를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둘째로는 남성우위의 사회내에서 여성이 당하는 수난과 여성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여성 스스로 현실을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가부장제 사회내에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예측과 교육부재에서 오는 여성피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째는 여성의 자아발견의지로 여성해방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사회적 편견과 인습을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지향하는 여성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세 작가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시대적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으로서의 여성관을 제시하는 경우와 자각의 경지를 넘어 확고하게 여성 자신을 선언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네째는 허위가식의 여성상에 대한 비판으로 여성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여성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세 작가가 드러내는 여성문제의 인식에 대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몇가지 주제에 모아볼 수 있었으나 세 작가 나름의 특징과 한계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해 낼 수 있었다. 박화성과 강경애에게 있어서는 민족해방이라는 보

다 절실한 문제에 의해 여성해방의 전망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요소는 박화성에게 더 강하며 한편 강경애는 박화성보다 여성문제에 더 근접해 있었다. 백신애는 민족문제가 미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누구보다 여성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식민지 현실과 여성의 현실을 포괄해야 하는 필연성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여성해방의 전망은 식민지 치하의 모순이 강조되는 작품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식민지 현실문제보다 여성의 현실문제가 강조되는 작품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 세 작가가 여성의 현실문제에 깊이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관건이 되는 여성문제의 본질에 닿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목 차

국문요약

I. 서론	1
II. 예비적 고찰	8
1. 시대상황과 여성의 현실	8
2. 작가의 현실관과 여성의식	17
III. 작품에 나타난 여성 문제 인식	29
1. 궁핍 문제와 여성 문제의 이중구조	29
1) 빈궁여성의 현실상	33
2) 노동여성의 문제	56
3) 조혼과 성의 상품화	76
2. 남성우위 사회와 여성의 위치	91
3. 여성의 자아발견 의지	105
1) 새로운 여성관의 제시	106
2) 여성해방의 선언	114
4. 여성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121
IV. 1930년대 여성문학의 특징과 한계	132
V. 결론	137

참고문헌

영문초록

193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 연구

—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소설을 중심으로 —

I. 서론

지금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작가와 작품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존재로서 소외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문학사나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한 의미를 갖지 못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까지에서 이 땅의 소설이 보여준 남녀관계를 ‘여성은 남성의 남성스러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한도 안에서 그 여성스러움이 살려지고 이와는 달리 여성의 여성스러움은 남성에 기대어 이루어진다’¹⁾라고 매우 완곡한 표현을 빌어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전통적 가부장제 속에서 남성은 가계를 전승하는 중심인물이고 여성은 그저 부수적 존재로서 예속되어 철저히 무시될 뿐 아니라 성적으로 더욱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짓밟히는 존재²⁾ 밖에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무관심과 폄하는 전통적으로 뿌리

1) 金烈圭, ‘페미니즘 문학비평론은 왜 생겼는가, 무엇을 하는가’, -서문을 겸한 해설-, 金烈圭 外 共譯,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p. 6.

2) 金亨子, 한국여성소설연구, 민음사, 1991, p. 18.

가 깊은데, 여성의 문학은 주로 한글 즉, 諺文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여성이 쓴 글을 內簡이라고 하였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즉 諺이 '상스럽다', '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內가 가지는 의미 역시 단순히 內/外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 外는 공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內는 사적으로 한정된 국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문학은 '참된 것이 못되는 사적인 그늘진 국지'³⁾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은 여성작가의 작품이 미숙할 것이라는 편견 내지 선입견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여성작가가 등장하는 1920년대와 1930년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배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문학의 관점에서 문학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성문학이 보다 구체적으로 문단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0대를 거쳐 1930년대에 와서이다. 선각자적 위치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1920년대의 작가들은 金明淳, 金一葉, 羅惠錫으로 자유연애와 신 정조관을 주장하였으며 가부장적인 남성원리에 대한 비판, 여성의 주체적 자각을 촉구⁴⁾하는 내용을 작품화 하였다. 남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던 문학에 여성이 참여하게 된 요인은 개화기 이래 활발히 전개된 여성 교육에 의해서 여성에게도 문학적인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남녀의 문화적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 및 여성 독자를 위한 잡지와 신문 지면이 마련되어 여성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⁵⁾ 이런 요인들이 바탕이 되어 여성들의

3) 金烈圭, 앞의 책, p. 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p. 431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4) 임선애,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 연구」, 효성여대 박사논문, 1992, p. 6.

5) 이재선, 앞의 책, p. 428.

문학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1920년대의 작가들은 그들의 생활태도나 작품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다가 여성문학에 대한 재조명이 새로이 이루어지면서 20년대의 작가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고 있는데⁶⁾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생애에 있어서나 문학적으로 불운하기는 했으나 1920년대 작가들의 실험적 업적의 토대위에 1930년대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며 비로소 여성문학의 위치를 확립하게 된다. 우리 소설사에 있어서 1930년대 소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현저한 특질은 여류소설이 등장하였다는 점인 것이다.⁷⁾ 이 시기에 활동한 소설가는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최정희, 김말봉, 이선희, 장덕조 등인데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작가는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이다. 이들 작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들은 당대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통속성 보다는 식민지 지배하의 궁핍의 현실문제와 여성해방의 문제를 리얼리즘에 입각해 그려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은 초기 여성문단 형성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작품성으로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면에서나 어느 남성작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현실문제나 억압의 문제를 적극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잊혀지고 무시되어 왔던

6) 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서정자, 「김명순 연구」, 월간문학, 1988.2, 「여성주의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업적들」, 한국여성소설 I, 갑인출판사, 1991, 金亭子, 한국여성소설연구, 민음사, 1991, 이정옥, 「한국여류 소설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1987, 정영자, 「한국여성문학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 박사논문, 1987에서 새로운 평가가 시도 되었다.

7) 이재선, 앞의 책, p. 428.

여성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작가와 작품이 내포하는 전체적이고 다양한 면모보다 그들에게서 찾아지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측면을 보다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식민지라는 민족적 수난기에 여성작가의 입장에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 여성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해내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남성작가가 만들어 내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작가가 창조해 내고 결정해 낸 여성인물을 만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게 될 입장은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시각이다. 그러나 예술로서의 문학이 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를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작가 개인적 체험이나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작품 분석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여성작가들에 관한 연구는 당대 1930년의 신문, 잡지를 통한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⁸⁾ 본격적인 비평은 1970년대에 와서이다. 문학사의 경우는 여성작가들에 관한 언급을 극히 적은 지면에 할애하고 있으며 언급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白鐵의 『신문학사조사』⁹⁾에는 뒷부분에 ‘女流文學의 水準’이란 항목을 만들어 작가와 작품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며, 金宇鍾의 『한국현대소설사』¹⁰⁾에서는 여성작가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金允植의 『한국문학사논고』¹¹⁾에서 여성작가의 활동을 3기로 나누면서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이재선은 『한국현대소설사』¹²⁾에서 1930년대 시기에 ‘女流作家와 女性文學의 世界’

8) 1930년대 당시에 논하고 있는 평은 각 작가를 다루는 ‘작가의 현실 관과 여성의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9) 백 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53.

10)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 1973.

11)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일지사, 1981.

12) 이재선, 앞의 책, pp. 428~444.

라는 항목을 만들어 여성작가들의 등장과 여성문학의 특성을 작가별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5』¹³⁾에서 ‘농촌소설이 제기한 사회문제’를 논하면서 강경애, 백신애, 박화성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¹⁴⁾나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¹⁵⁾에는 언급조차 없다.

1930년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와서이며 90년대에 들어서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해서 활성화 되었는데 당시 여성문학 전반을 포괄하여 넓게 다루는 논문¹⁶⁾과, 한 작가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한 논문¹⁷⁾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成樂喜는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사적으로 고찰하고

1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14)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1.

15)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6) 成樂喜, 「韓國現代 女流文學 研究」, 숙명여대 대학원, 1969.

任京善, 「1930년대 女流小說에 對한 研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76.

蔡 熾, 「1930년대 韓國女流小說에 있어서 貧窮의 問題」, 아세아여성연구 23집, 1984.

李貞玉, 「韓國女流 小說 研究」, 서강대 대학원, 1987.

元鍾仁, 「1930년대 女流小說 研究」,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1988.

徐正子, 「日帝強占期 韓國女流文學 研究」,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鄭英子, 「韓國現代 女性文學 研究」,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오상인, 「1930년대 여류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1989.

임선애,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연구」, 효성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17) 각 작가의 개별 연구 논문은 참고문헌에 자세히 분류하기로 한다.

있는데 1930년대는 발전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서정자는 일제강점기 여성작가들 각자의 작품과 의식세계를 추적하고 있으며 정영자와 이정옥은 1920년대 1930년대 여성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식민지 상황에서의 현실문제인 빈궁의 문제와 여성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작가의 개별연구에서 박화성은 그의 동반자적 작가성향과 관련된 식민지 현실문제와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강경애는 하층민에 대한 연민이나 궁핍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저항의식을 발견하게 되며, 백신애는 역시 빈궁의 양상과 남성우위의식에 의한 구여성의 피해의식 및 작가자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작가 각자의 연대별 의식의 변모 양상을 살펴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공통점들은 역시 빈궁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그외 임선애는 형식상의 특징인 구성적 측면과 수사적 측면을 따로 설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위의 연구 업적을 수용함은 물론 여성의 현실문제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더욱 주의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으로 하는 작가는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세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논문 내에서 설정한 주제에 속하는 특징을 지닌 작품이 될 것이다. 중편급 소설이나 장편소설은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작가 언급 순서는 주제의 특징이 부합되는 작품 순서로 적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작품은 다음과 같다.

- 박화성 「秋夕前夜」, 「溫泉場의 봄」, 「중긋날」, 「春宵」,
「洪水前後」, 「旱鬼」, 「비탈」, 「헐어진 靑年會館」,
「新婚旅行」
- 강경애 「地下村」, 「人間問題」, 「소금」, 「어머니와 쌀」,
「그 女子」, 「同情」, 「原稿料 二百圓」, 「麻藥」

백신에 「나의 어머니」, 「福先伊」, 「赤貧」, 「落伍」, 「糊塗」,
「어느 田園의 風景」, 「狂人手記」, 「少毒婦」, 「一女人」,
「混冥에서」

위의 작품들은 본론에서 각각 궁핍에 의해 파생되는 여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과 봉건적 가부장제 하에 수난받는 여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 여성 자아의 발견과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제시하는 작품 그리고 작가가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부정적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예비적 고찰

1. 시대상황과 여성의 현실

여성문학이 성숙되어 가던 1930년대는 이미 깊이 들어올 만큼 들어온 식민지라는 상황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중국대륙을 침략하고 1945년 일제가 백기를 들기까지 조선은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일제는 전쟁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문화정치기에 허용되었던 표면적 자유조차¹⁸⁾ 완전히 배제하고 파쇼적 독재체제를 펴나가기 시작한다. 병참기지화된 한국의 경제는 1929년부터 시작한 세계 공황의 영향과 이 공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일제의 한반도 이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일제는 농촌진흥운동과 일본 독점자본 유치에 의한 농공병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은 농촌의 피폐화와 더불어 종속경제로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에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을 펴서 정신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강요하며 언론·출판·문화단체 등을 탄압함으로써 조선인을 황민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일제의 억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궁핍과 상실감은 심화되어 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항일 민족독립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움직임도 활발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성의식의 변화와 여성이 처하게 되는 현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 구조는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여성억압이나 불

18) 일제는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책으로 전환되는 듯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무단정치에 지나지 않았다. 자유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불만이나 소재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이었다.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평등 구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 내면화되어 있었다. 그 속에서 여성이 자아를 찾고 동등한 인간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우리 나라의 여성에게도 파문이 일어났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유교체제와 천주교를 비롯한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근대화라는 사회변동을 맞으면서 우리 나라 여성의 가치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미 조선 후기 사회의 저변에서 성행하던 각종 민간 신앙이나 종교 운동도 유교적 이념에 부정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고 천주교, 동학, 중산교 등이 남녀평등 의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소위 개화파들이 개화사상을 받아들이는 중에 여성에게만 억압되어 온 악법을 폐지시키자는 여권론적인 주장¹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독립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에 여권론이 강하게 주장되며 특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개화와 근대화의 시기와 함께 여성운동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대한침략이 노골화, 강압화 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운동의 방향은 민족구국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한국여성은 국채보상운동과 여성의병활동 등의 거족적 사회운동에 참여하였고 특히 3·1운동에의 참여는 여성들을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게 했으며 여성의식과 여성운동에 발전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많은 여성단체가 결성되어 민족운동에 동참하게 되지만 일제의 탄압에 수난을 겪다가 사회주의 선포가 이 땅에도 몰아닥치자 사회주의 색채를 띤 '조선여성동우회'가 창설되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과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으로 구분되는 국면에 접어든다.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자, 농민, 여성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여성해방운동에 많은

19)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한국여성사, 풀빛, 1992, p. 22.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여성동우회는 ‘부인의 해방’이란 기치를 내걸고 각 지방에 40 여개의 지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남녀평등의 실현, 결혼의 자유, 모체의 보호, 청년·여자 인신 매매 금지, 재산권의 평등, 그 밖의 봉건적인 가족제도·습관·인습의 타파를 당면투쟁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⁰⁾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의 작품의 주제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들의 사상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아무튼 국내에서 전개되던 모든 여성운동은 여성해방운동과 항일운동의 일원화라는 목표 아래 ‘근우회’로 집약된다. 그러나 일제의 간교한 방해공작과 집회금지 등의 시련을 끊임없이 받아오다 사상이나 역량을 민중에까지 미치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만다. 그 뒤 제국주의 일본의 만주 침공으로부터 태평양전쟁에 걸친 15년 동안 본래의 여성운동은 잠잠하여 버리고 일제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기울게 되고 만다.

당시 여성의 현실은 전통적 불평등 구조와 함께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더욱 저하되어 갔으며 하층 여성의 삶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교육의 기회도 있고 직업도 갖고 있으며 위에서 거론한 여성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의식있는 소위 신여성도 있었으나, 당시 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여성과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하층민 여성이었다. 이들이야말로 당시 사회의 최저변 민중여성이자 사회를 떠받치는 기층여성으로 온갖 고난과 억압을 이기고 사회를 유지시켜준 사회의 주요 성원이었다. 그들은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가사 노동은 물론 생계를 위한 생산노동까지 책임지고 있었다. 때문에 민족적·계급적·성적 억압과 차별을 피부로 느끼고 식민지

20) 최민지, 「한국여성운동 小史」, 이효재편,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비신서, 1979, p. 243.

사회에서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모순과 부조리를 첨예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시대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농업인구가 압도적이었는데 그 중 여성도 농업이 90% 내외였다. 그외 상업이 4% 내외, 공업은 1% 내외였는데²¹⁾, 1930년대 공업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일제의 식민 농업정책으로 인해 192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농민은 심각한 식량부족과 경제적 파탄을 겪는다. 일본인 지주를 중심으로 한 대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된 반면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농, 농업노동자,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국내외로 이농하게 된다. 전 농가 호수의 겨우 3% 남짓한 지주에게 전 경작지 면적의 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다.²²⁾ 1930년대에는 미곡우선정책이 후퇴함에 따라 농가경제를 보충하기 위해 일제가 강조했던 것이 여성노동이 집중 투여되었던 양잠, 면작 및 전작물의 증산이었다. 성인 남성을 1로 할 때 성인여성이 0.8로 평가될 만큼 여성의 노동력이 많이 동원되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²³⁾ 그러나 여성이 밖의 일을 한다고 집안에서의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므로 여성의 노동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여성농민 특히 농번기의 빈궁여성의 하루 일과를 다음 글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21)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앞의 책, p. 49.

22) 강재언, 일제하 40년사, 풀빛, 1984, p. 106.

23) 농업노동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노동과정을 살펴보면 벼와 보리베기, 피뽑기, 모내기, 비료제조, 면작, 밭갈기, 시뿌리기, 김매기, 보리타작, 논외 모판준비, 논과 밭갈기, 물대기, 퇴비 만들기, 퇴비 쌓기, 벼를 지개로 나르기, 삽질 등 농사일 준비에서 거두어 나르는 과정 전체에 참여하였다.(최숙경 외 3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유형 연구Ⅲ」, 여성학논집, 이화여대 한국여성 연구소, 1993, p. 61)

여름 아침 빛이 아직 물색을 분간치 못할 만할 때에 눈을 두 손으로 비비면서 일어나서 훌크러진 머리를 툭툭 털어 쪽지고서 그 전날 저녁에 먹고 남겨두었던 만주속반(좁쌀) 한 술을 맛이 없는지 억지로 쥐어먹은 뒤에는 손바닥 호미를 들고 나선다. 더욱이 무솔단신일것 같으면 어린아해까지 등에 업고서 아침이슬이 싸잡힌 좁은 길을 걸어 농장으로 나간다. 과연 땅에 놓을세라 더울세라 할 귀여운 아해를 할 수 없이 밭머리에 누이고 샷갯을 씌워 두고는 김을 매기 시작한다. 삼복염천 더운 햇볕은 차츰차츰 그의 전신에 들이쪼인다.……발이랑을 타고 앉아 김매는 부인 그네는 다만 북받쳐 오르는 비지땀에 목욕을 하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로 분세수를 하는 것이 그날 의례사이다. 더욱이 비오는 날이면 빗물 콧물 땀물 흙물에 빠져 헤매이는 그네의 신세야말로 더할 것 없이 이렇게 장장하일을 지낸다. 날이 서산에 떨어지게 되면 흙 묻은 손을 씻을 사이도 없이 급히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짓는다. 더운 때라……뜰 안에다 초석을 펴고 앉아서 밥을 먹게 되는데 파리는 밥상에 붙어서 귀찮게 작폐를 하고 어린아해들은 앞뒤에서 시달리어 정신이 뒤숭숭 어찌할 줄 모르게 된다.……농촌부인은 저녁 먹은 뒤의 일이 오히려 분주하다. 회미한 등불 밑에 앉아서 종일토록 바람비에 시달리던 눈을 비비어가면서 바느질을 한다. 다듬이질을 하는 등 밤을 새우다시피 지낸다. 그 이튿날 일을 다시 생각하여 할 수 없이 잠을 자게 된다. 모기 빈대 벼룩은 부인의 피곤한 몸을 침노한다.……밤낮 이렇게 지내는 것이 농촌부인의 생활이다. 더구나 이렇게 고생으로 그네의 밭과 논에서 얻은 쌀이 다 그네에게 소득되지 못하는 것이 고생 중에 큰 고생이 된다.(정웅봉, 「농번기의 농가부인 생활」, 조선농민, 1929. 5, pp. 12~13)²⁴⁾

좀 긴듯한 글을 인용하였는데 그것은 위의 인용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에 시달리던 농촌여성의 생활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중한 노동에 비해 비참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탈당해야 했던

24)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앞의 책, p. 84 재인용.

현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내에서 여성의 처지는 가난으로 말미암은 문제 외에도 일제의 정책, 남존여비의 봉건적 사고 아래에서 더욱 열악하였다. 농촌여성의 결혼은 대부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결혼 후에도 여성은 절대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지극히 사소한 행위 이외에는 남편의 허가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어느 시대이건 여성의 지위가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률적인 제약을 철폐하려는 노력은 여성운동의 기본과제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 온 것이었다.²⁵⁾ 일제시기의 여성의 지위는 법적으로 매우 열악했다. 당시 가족법은 일본의 호주제와 가독상속제를 강제로 들여온 것이었는데²⁶⁾ 이는 봉건적 가부장제적인 개념이 강한 제도로 모든 집안의 권리가 호주와 장남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남성중심의 법제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상속권이 없었고 결혼한 여자는 모든 권한이 남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모든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더구나 1915년부터는 일부일처제가 법률적으로 확립되었으나 남편의 축첩 자체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았고, 유부녀가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유부남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이 유부녀만 아니면 계속해도 처는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했다. 합법적이지는 않았으나 일제 때에는 실제 자기 아내를 팔거나 매춘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바로 남편에게 과도한 권한을 허용한 데서 비롯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특히 교육받지 못하고 무지했던 농촌여성에게 더 심했는데 농촌여성은 식민지적·자

25) 이은영, 「여성운동과 법」, 이효재편, 앞의 책, p. 261.

26)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앞의 책, p. 51.

본주의적 수탈에 의해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과 남성중심의 봉건적 가족관계의 이중적 억압 속에서 허덕였다.

한편 일제의 공업정책으로 일본의 독점자본 계열의 공장들이 진출해오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공업도 다소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일본 자본이 자유롭게 진출하여 자원 및 노동을 수탈하기 위한 시책에 불과했고, 적극적인 공업발전이 취해졌던 것도 아니었다. 1930년대 들어와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공업정책이 시행되면서 노동자 계급은 급속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장 여성노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업에 종사한 여성들은 주로 방직, 식료품, 화학공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업종은 식민지 공업화의 주력산업이었으므로 여성들은 식민지시대 조선공업화의 핵심적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생산형태가 여성노동자를 필요로 하기도 했고 궁핍을 이겨내기 위해 공장의 노동자가 되었지만 여성은 또 다른 지배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식민지 시대 임금구조는 성별, 민족별,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한국인 유년 여공이었다. 1930년대의 임금실태를 보면 '일본인 성인 남성은 조선인 성인 남공의 2배, 조선인 성인 여공의 4배 그리고 조선인 유년 여공의 6배에 이른다.²⁷⁾ 같은 조선인 내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더구나 벌금제와 강제저축 등으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더 저하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임금인하와 장시간 노동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여성노동자는 계약시부터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여 최고 16~18 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야만적인 폭력까지 당해야 했다. 공장의 남성감독의 심한 욕설과 구타, 성적 모욕과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30년대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하루

27) 최숙경 외 3인, 앞의 책, p. 43.

밥값에도 못 미치는 기아임금은 여성들을 더욱 비참한 궁핍과 각종 질병 등으로 몰아갔고 그들을 부업이나 일시적인 매춘을 하도록 내몰았으며 생활난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빈곤과 소외 속에 얼어죽는 이도 있었다.²⁸⁾ 이는 여러 사회적 제반관계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초과공급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화 정책 때문이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노동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그 가운데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한층 더 비참해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일어나게 되어 20년대에 이어 30년대에는 동맹파업, 시위, 공장습격으로 확산된다. 여성노동자들은 파업투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었으며 질적으로도 고양된다. 이들은 파업 노동자 대회에서 능동적으로 발언했고, 공장습격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여성의 노동에 관련된 문제는 식민지 시대 여성운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성은 식민지 지배하의 봉건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의한 궁핍은 여성을 극심한 노동의 현실로 몰아갔는데 여성은 생계를 위한 노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는 수난을 겪게 된다. 경제적인 핍박에 의해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얼마되지 않는 돈을 받고 팔아 먹는 일을 저지르며 더구나 매음행위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공창제도에 불법이지만 사창제도까지 성행하여 여성의 지위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나를 보여주는 문제로서 페미니즘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적 여성 교육의 요구는 사회적으로나 여성 자

28)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앞의 책, p. 237.

신들에게 있어서도 점차 높아져 갔고 종교계나 민간에 의해 시작된 여성교육은 정규 여학교와 야학, 강습소 등에서 이루어져 나갔다. 그러나 정규 여성 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절대부족하여 일제 황민양성과 봉건적 가부장제에 입각한 현모양처 교육이었고, 가사노동에 관계되는 교과 과정과 일본어 및 일본 역사 등을 배웠다. 모든 교육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일제는 조선인 교육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았고, 조선인 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던 사립학교는 민족주의 사상을 가르칠 것을 두려워하여 탄압을 가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는 감소하였고 거기에다 여자경시풍조와 경제난, 특히 여성을 공부시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겨 온 봉건적 사고방식이 여성교육의 기회를 더 줄어들게 했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듯했으나 민족간, 남녀간 그리고 계층간, 도시 농촌 간의 차이가 격심해 농촌의 여아들은 거의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한편 비정규 교육으로 여자야학, 강습회가 있었는데 이는 민중교육기관으로서 여성의 문맹퇴치와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의 함양 등의 기능을 했고 중요한 여성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로 가면서 일어강습에 주력하게 되며 일제의 주도하에 기능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일제의 교육은 사립은 물론 공립과 야학마저 정책에 위배될 경우 극심한 탄압을 가하였으므로 여성으로 하여금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지도 못하였고 여성 자신의 지위향상과도 거리가 멀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일제 식민지 통치하 여성의 현실은 전통적 가부장제와 식민지의 자본주의에 의해 궁핍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법적으로나 교육의 기회로도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봉건적 가족제도 아래 여성은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의 경우는 당대 현실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의 현실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시대상황과 여성의 현실상태를 정리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2. 작가의 현실관과 여성의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작가가 살았던 시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과 제약이 많았던 식민지라는 상황이었다. 세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듯이 개인적 체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박화성은 1904년 전남목포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으며 '富裕한家庭에서 公主처럼 幸福스럽게'²⁹⁾ 자랐다. 어려서부터 소설 읽기를 좋아하여 친구 소설을 섭렵하였고 모방소설을 짓기도 하였다. 열 세 살에 상경하여 숙명여학교 본과 2년에 입학하고, 열 다섯 살에 졸업한 후 나이가 어려 동경 유학을 2년 후로 미루고 영광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여기서 박화성은 함께 교원이던 曹雲 등 숨은 문인들과 사귀며 지도도 받았으며 시인이던 曹雲의 소개로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1925년 <조선문단>에 「추석전야」를 발표하게 된다. 그러다 신학령을 쫓아 다시 숙명여학교 4년을 마치고 23세에 일본 여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일본유학시절 그는 1928년 근우회 동경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울어진 가정 형편으로 3학년에서 중퇴하고 1929년 사회운동가인 오빠의 소개로 金國鎭과 결혼하게 된다. 박화성은 오빠와 남편에게서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남편이 감옥에 복역하는 동안 박화성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³⁰⁾ 경제적인 이유로

29) 박화성, 「自敘小傳」,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2, 태학사, 1988, p. 176.

30) 박화성,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 신가정, 1935. 12.

1932년 6월 장편 소설인 「白花」를 <동아일보>에 연재하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인 1932년 5월에 「하수도 공사」를 이광수의 추천으로 <동광>에 발표함으로써 다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그뒤 남편과 견해 차이로 이혼하고 1937년 「호박」을 끝으로 절필하였다가 해방후 다시 왕성한 창작의욕을 보여주게 된다.

박화성은 일제치하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빈궁의 문제를 반영하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저항 의지를 심어주는 작품을 썼다. 그는 생물학적인 성의 한계를 무시하는 작품 세계와 인식의 폭을 보여주며 남성을 능가하는 작가로서 당시 문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박화성을 논하는 단편적인 언급³¹⁾들을 보면 그의 역량과 문단적 위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양주동은 박화성의 소설을 '선이 굵고 테마가 뚜렷하다. 더구나 사회 현실에 대한 관찰과 해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점은 여류 문단의 한 이채(異彩)다'³²⁾ 라고 했으며 김팔봉은 역량에 있어서 출중함과 함께 '그의 사상을 보건대 그는 사회적으로 내지 정치적으로 맑스주의에 가담한다'고 동반자 작가 성향을 지적하며 함께 작품의 도식성을 비판하였다.³³⁾ 또 '문장이 세련된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일이지마는 사실적인 점에서도 박

31) 김팔봉, 「구각에서의 탈출」, 신가정, 1935. 1.

김팔봉, 「조선문단의 현재적 수준」, 신동아, 1934. 2.

김기림·양주동·김림, 「女流文人片感寸評」, 신가정, 1934. 2.

이무영, 「여류작가개평」, 신가정, 1934. 2.

이 청, 「여류작품총관」, 신가정, 1935. 12.

한 효, 「평론가로서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 신동아, 1936. 3.

김문집, 「여류작가의 성적귀환론」, 사해공론, 1937. 3.

안희남, 「박화성론」, 여성, 1938. 2.

32) 양주동, 앞의 책, p. 36.

33) 김팔봉, 앞의 책, pp. 77~78.

씨는 여류문단의 지보'34)라고 평가를 받았으며, '박화성씨는 문단에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지반이 구든 분인 만큼 내용의 선택 건축과 표현 수법에 있어서 무난 성숙함을 보여준다'35)고 남성에게 지지않는 능률한 여유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문집이나 안희남과 같이 여성다운 글을 쓰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이로 보아 박화성은 여성적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36) 남성을 능가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화성이 글을 깨치면서 애기를 읽고 찾아다니면서 시작된 그의 문학적 기질은 만약 평범한 아내와 어머니로서만 살았더라도 언젠가는 타고난 글쟁이의 爆彈質이 폭발하고야 말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37) 있듯이 그는 타고난 소설가로서의 역량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의 이상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서의 큰 일꾼'38)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문학으로 민족의 문제와 여성의 현실을 그려냈던 것이다. 또한 오빠나 남편 그리고 당대에 몰아쳤던 사회주의 사상은 그의 현실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그로 하여금 모순된 현실을 사명감 있게 그려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강경애는 1907년 황해도 송화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의붓 형제와의 관계도 평탄치 않았고 나이를 먹어서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그의 어린 시절은 외롭고 두렵고 가난한 나날이었다.

일찌기 아버지를 잃은 나는 다섯 살에 의붓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으며, 의붓 아버지에게는 소생 아들, 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어

34) 이무영, 앞의 책, p. 69.

35) 이 청, 앞의 책, p.26.

36) 이재선, 앞의 책, p. 443.

37) 박화성, 「아내와 어머니와 문학」, 현대문학, 1965. 6.

38) 위의 책, p. 21.

찌나 세차고 사납든지, 거의 날마다 어린 나를 때리고 꼬집고 머리를 태를 뜯어서 나는 도저히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만 빨래나 혹은 어디 볼 일로 집에 안 계시면 언제나 쫓기어 나서 울 뒷산에 올라 망연히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곤 하였다. 삼십을 넘은 나의 눈엔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오실 그 길이 아련히 남아있다.³⁹⁾

이렇게 불운했던 어린 시절 가운데 그는 소설을 접하게 되어 「춘향전」에서 국문을 깨치고 「삼국지」, 「옥루몽」 등 시골로 내려온 것은 다 독파할 정도였고 소학교에 가서도 작문 짓는데 우수하여, 친구들에게 자신의 글을 읽어 주기도 할 정도였다. 1921년 형부의 도움으로 평양 숭의여학교에 입학하게 되지만 동맹휴학과 관련하여 퇴학을 당하여 귀향하게 되고 고향에서 양주동을 만나게 된다. 이 시기는 그의 문학 수업기로서 많은 사상을 접할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24년 상경하여 동덕여학교에 1년간 다니다 양주동과 헤어진 후 장연 언니 집에 머물면서 여성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1929년 ‘장연 근우회 지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식민지 체제 내에서의 경제적 착취로 말미암은 여성들의 억눌림과 희생, 성적 침탈이 만연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후 강경애는 1931년 군청서기로 일하던 장하일과 결혼하여 간도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남편 장하일은 투철한 사상가였으며 강경애도 남편에게 순종적이었다고 한다.⁴⁰⁾ 강경애에게 있어 간도와 남편을 통한 체험은 작품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강경애는 이미 1931년 <조선일보>에 단편 「파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지만⁴¹⁾ 그

39) 강경애, 「自敍小傳」 앞의 책, p. 12.

40) 서정자, 앞의 논문, p. 63.

41) 김윤식, ‘장편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전집 V, 삼성출판사, 1978, p. 344.

당시에는 거의 글을 못 쓰다가 혼기를 놓친 26세에 결혼한 뒤 간도에서 생활하면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병약한 몸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다가 1936년 경부터 거의 병석을 떠나지 못하던 그는 병세의 악화로 인해 1938년 「검둥이」를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을 못하다가 고향에 돌아온 이듬해인 1943년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강경애는 외롭고 가난했던 개인적 불행과 일제 식민지 착취 속에 억압당해야 했던 국가적 불행을 동시에 안고 살아야 했던 불운한 시대의 문학인이었다. ‘이름과 품문만 요란히 남아있고 실제의 작품이 거의 없거나 보잘 것 없는 이 무렵의 여류들과는 달리 강경애의 경우 작품만 덩그러니 우뚝 솟아 있을 뿐이다’⁴²⁾ 라는 김윤식 교수의 언급은 그가 간도에서 활동한 작가로서의 문단적 불행을 지적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의 작품의 뛰어남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당시 문단에서의 강경애에 대한 언급⁴³⁾을 살펴보면 박화성과 같이 프로 문학 작가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와 함께 사상적인 불명료를 지적하기도 한다. 홍구는 그의 건실한 필치가 어느 작가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아주 사상적 불명료를 말하고 있다’⁴⁴⁾고 지적하고 있으며, 양주동도 ‘현실에 대한 전면적 파악이 없으며,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작중에 구도화할 만한 힘이 아직 부족한 듯 하다’⁴⁵⁾고 하고 있다. 이무영은 강경애를 최정희나 송계월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작품을 끌어내는 태도가 ‘건실미를 주었고 정렬을 주었고 추상적이 아닌 사실주의적 필법을 주었다’⁴⁶⁾고 평하고 있

42) 위의 책, p. 344.

43) 김팔봉, 양주동, 김기림, 이무영, 이청의 글은 박화성과 동일하다.

洪 九, 「1933년 여류작가 군상」, 삼천리, 1933. 3.

張赫宙, 「강경애 여사께」, 신동아, 1938. 7.

44) 洪九, 위의 책, p. 75.

45) 양주동, 앞의 책, p. 36.

46) 이무영, 앞의 책, p. 67.

다. 김팔봉의 경우는 박화성과 함께 프로문학의 작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포착하려는 현실을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 작품위에 조약하는 끈기와 용기가 있는 작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정」을 들어 사상적 심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⁴⁷⁾ 이청은 '경향적 색채를 띤 작가가 대개 그러하지만 강씨 역시 언제나 한결같이 어떤 관념이 앞장 섰다'고 하면서 「모자」, 「원고료 이백원」, 「번뇌」를 들어 프로문학적 창작방법의 고정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박화성과 같이 강경애의 '침착하고 대담한 리얼리즘과 호홉의 큰 것과 수법의 비범함에 있어서 남성 작가를 단연 능가하는 기백이 확실하다'⁴⁸⁾고 함으로 강경애의 문단에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강경애를 평할 때 항상 박화성과 함께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⁴⁹⁾ 이는 두 작가의 사상적 경향 때문이었다.

- 강경애는 북한 문학사 및 연변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데,⁵⁰⁾ 1989년에 출간된 『조선족 문학연구』⁵¹⁾의 소설문학개관 편에 1930년대의 작가 강경애를 매우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데 생애나 작품평가도 남한과 비슷하다. 강경애를 '현실을 정시하고 사회 모순을 대담하게 취급하고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문제에 민감한 진보적 작가'라고 평하고 있으며 세계관 및 시대성의 제한으로 계급 모순의 본질 및 근본적 해결 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족점은 있으나 '사

47) 김팔봉, 「구각에서의 탈출」, 앞의 책, pp. 79~80.

48) 이 청, 앞의 책, pp. 23~27.

49) 장혁주(위의 책, p. 150)의 글에서 남성 작가와 겨룰만한 작가로 박화성, 최정희 그리고 강경애를 거론하고 있다.

50) 본 논문에서는 『조선족 문학연구』에서 거론된 부분을 살펴봄으로 대신하겠다.

51) 현룡순, 「조선소설문학개관」,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89, pp. 114~115.

회 모순과 생활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사실주의 창작원칙을 견지하여 적지 않은 성과작을 남겨 놓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강경애는 궁핍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가난에 대한 체험과 간도 땅에서 고통당하던 동포를 통해 획득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다름없이 끊임없는 관심이 여성에게 향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창작에 임할 때 그것을 실천하고자 고심하고 노력했던 작가였다.

백신애는 1908년 경북 영천의 미곡상을 하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인습적이고 완고한 부친 때문이기도 했지만 병약한 몸 때문에 집에 독선생을 두고 한자를 공부하게 된다. 5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15살까지 집에서 한문 수학과 함께 일본의 중학 강의록으로 공부하다가 1922년(15세)에 영천 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대구사범에 들어가 교원생활을 하게 된다. 백신애는 보통학교 졸업 후 여학교에 지원하였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고 사범학교에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신학문에 대한 백신애의 의욕을 꺾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정적 분위기와는 달리 대담하고 열성적 기질을 가졌던 백신애는 여자대학생이 되고 싶은 열정에 '서울로 뽕소니 쳐'52) 올라간 뒤 여성동우회, 여자청년동맹53)에 가입하여 '노란 氣焰을 막 뿜'54)하였다.

52) 백신애, 「自敍小傳」, 앞의 책, p. 283.

53) 여성동우회는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여성단체로 무산여성의 해방을 내걸고 여성 노동자 중에 관심을 보였다. 일제에 대한 투쟁에도 적극적이었으므로 감시와 탄압을 감수해야 했다. 여자청년동맹은 여성운동의 파벌 중에 보다 계급적 색채를 분명히 했던 여성동우회 계열의 여성단체였다. 이 두 단체는 여성운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여성연구회편, 한국여성사, 풀빛, 1992 참조)

54) 백신애, 앞의 책, p. 283.

오빠가 읽고 버린 탐정 소설이나 고대 소설을 모조리 읽으며 문학에 소망을 갖고 있던 그는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나의 어머니」가 1등으로 당선됨으로 문단에 데뷔하게 된다. 1930년에 동경 유학 길에 올라 연극에 경도하다 아버지의 엄명으로 귀국하여 이듬 해에 결혼하지만 1938년에 이혼하고, 1939년에 체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엄한 부친 밑에서 자랐고 신교육의 체험도 짧았으나 전통적 여성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백신애는 신여성으로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그의 적극적인 기질은 거듭되는 가출과 여성단체에 가입하여서의 적극적인 항일운동, 또한 이혼 등으로 이어지며, 전통적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백신애는 이렇듯 평범하지 않은 삶을 통해 그의 독특한 의식 세계가 형성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백신애는 어머니와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고 전해지는데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던 구여성이던 어머니의 사랑과 작가의 강한 의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백신애의 작품 「나의 어머니」와 같은 자전적 작품에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백신애는 조선여성동우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여성해방 의식에 대해 좀 더 확고한 자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작가 백신애의 작품세계를 보면 그가 체험한 시대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작가는 자신의 의식 세계를 철저히 여성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적 양식이란 것을 구분하는 것은 남성중심 문단에서 관습이기는 하나 여성원리의 작가이기를 거부한 박화성, 강경애와는 달리 여성적인 감성이나 사고의 영역에 근거⁵⁵⁾하여 작품을 썼으며 사상적인 경향이나 지향점이 비교적 뚜렷했던 두 작가와 달리 이념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았다.

55) 이재선, 앞의 책, p. 439.

백신애는 신춘문예의 1등 당선이라는 화려한 첫걸음과는 달리 당시 평단에서는 백신애를 여류작가군의 한사람⁵⁶⁾으로 조명되지 못했으며 백철은 「여류문학의 수준」에서 ‘정열이 승해서 문학편이 감당하지 못한 힘이 있다. 작품을 전개시키는데 주관적인 편견을 작품 속에 강요하고 구상화하는 제과정을 거칠게 처리한 힘이 있다’⁵⁷⁾고 논평하고 있으나 이재선 교수는 ‘당대의 여성작에 비겨 그렇듯 폄시할 만한 미숙성을 지닌 것만은 아니었다’⁵⁸⁾고 그 동안의 무관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백신애는 불편해진 몸으로 항일운동이 불가능함을 느껴 시골로 내려가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절대빈곤에 빠져 고통받던 여성과 봉건사회 아래 남성억압에 시달리는 구여성의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을 쓴다. 그가 사상은 뒤로 감추고 농촌의 실상과 여성의 현실에 매달렸으나 인간의 문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자 애쓴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위의 세 작가가 활동한 1930년대는 여성문학이 대두된 시기로 논의되고 있듯이 여성작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명은 여성문학 비평이 도입된 1980년대 이후에 와서야 이루어진다. 당시에 거론된 여성문학 논의는 1980년대 이후의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여성문학 자체도 생소했고 남성비평가의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는 무성의하고 편견이 가미된 것이었으므로 여성문학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여성문제는 당시 여

56) 김팔봉과 이청의 글에서 여러 여성작가와 함께 이름만 거론되고 있으며 이무영과 윤동주 등의 글에서는 이름 석자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

57) 백철, 앞의 책, p. 346.

58) 이재선, 앞의 책, p. 438.

성의 삶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여성문제의 핵심에 닿아 있다.

이들 세 작가가 작품에 드러내고 있는 여성문제 의식은 그들의 체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세 작가가 사회주의 여성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는 전기적 사실에서 여성현실에 대한 그들의 문제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단체에서의 활동내용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는으나 여성의식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박화성의 경우 동경유학시절 1928년 1월 21일 근우회 동경지부 창립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해에 귀국하게 되어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의 여성의식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박화성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계급해방이 여성해방이라는 인식하에 그러한 활동에 적극적인 여성상을 문학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그의 사상적 경향은 그의 삶과 문학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인데, 사상적 영향을 준 인물로 오빠와 남편을 들 수 있다. 「북국의 여명」이나 「헐어진 청년회관」에서 오빠와 남편의 사상성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박화성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그의 현실관은 당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입장이었으며 그것은 그의 창작방법⁵⁹⁾을 통해서 드러난다. 또한 제사여공, 고무여공 그리고 정미공장, 철공장, 기름공장의 노동자며 낱품팔이 하는 농어촌의 남녀 노동자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수필 「동문서답」⁶⁰⁾에서도 그의 현실관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적극성을 띠고 있는

59) 목적을 앞세운 프로문학의 도식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지적되는데 지도자가 등장하여 이념을 주입하는 초기의 방식이나 궁핍의 현장을 묘사함으로 직접 상황을 겪어가며 이념에 도달하는 후기의 창작방법 등이 그것이다.

60) 박화성, 「동문서답」, 신가정, 1933. 3.

박화성의 사상성은 여성판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요구하고 있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활동하는 여성이며 작품에서 그려지는 여성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이다.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여성해방 의식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박화성이 뒤의 두 작가와 구별되는 점은 남성과의 갈등을 통해 여성해방의 전망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박화성도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한계를 체험하며 성장하였을 것이며, 지식여성으로서 국내에 불어오는 여성해방의 바람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국내 상황과 그의 사상성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문제를 보다 전면에서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강경애는 사상적 경향에 있어 박화성과 통하고 있으나 여성의 억압 구조를 고발하는 작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백신애와 같은 맥락이다. 강경애는 근우회 장연지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사실은 그 역시 여성운동에 얼마간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어려서 계부 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삶과 가난의 체험을 통해 여성의 모순된 삶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강경애는 숭의여학교 재학시 스트라이크에 가담하였다가 퇴학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그의 현실인식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특히 숭의여학교가 여성운동의 주역을 많이 배출한 학교로 여성의 자각을 고취하고 여성계몽과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선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잡지인 <여자계>를 발간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학내 분위기와 관련해 강경애에게도 영향을 끼쳤으리란 추정을 해 볼 수 있다.⁶¹⁾ 이렇듯 박화성과는 다른 체험적 요소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강경애도 역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작품과 수필⁶²⁾을 통해서 밝혀지며 그가 그

61) 서정자,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1991, p. 48.

려내고 있는 것은 빈자나 약자에 대한 동정이며 가진 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요약된다. 암울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민족의 해방이 우선이 될 수 밖에 없었으나 여성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인식을 보여준다.

백신에는 두 작가보다 여성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조선여성동우회와 경성여성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여성단체 가입의 이유로 교사에서 강제 사임을 당하고 다음해에는 두 단체의 상임위원이 된다. 그리고 천도교 회관에서 경성여성청년동맹 2주년 기념식 집회 허가를 단독으로 받아내고 대회를 혼자 치루는⁶³⁾ 적극성을 보여준다. 백신에는 사회주의 운동가인 오빠의 영향과 자신의 적극적인 기질로 항일운동과 여성운동을 전개하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사상적 요소나 저항의 색채가 미약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백신애의 개인적 어려움⁶⁴⁾과 함께 국내 여성운동이 근우회 해체 이후 침묵 속으로 빠져버리게 된 상황에서 한계를 느끼고 문학 창작에 몰두하게 된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전통적 삶의 방식의 환경에서 자랐으나 전통적 여성의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으며 어머니의 삶에서 여성의 모순된 삶의 모습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고향으로 내려가 과수농장을 경영하면서 식민지 농촌의 절대빈곤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여성의 생활을 그렸으며 봉건사회 아래의 남성행패를 고발하는 작품을 쓴다. 적극적인 여성운동의 체험과 자신의 생애를 통한 체험은 그의 여성문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62) 강경애, 「이역의 달밤」, 신동아, 1933. 12.

「여름밤 농촌의 풍경 점검」, 신가정, 1933. 7.

63) 백신애 연보, 김윤식편, 백신애 소설집 : 꺼래이, 조선일보사, 1987, p. 332.

64) 백신애는 일경의 감시대상이었으며, 선천적으로 약한 몸에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불편해진 몸으로 항일운동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Ⅲ. 작품에 나타난 여성 문제 인식

1. 궁핍 문제와 여성 문제의 이중구조

1920년대의 궁핍화 현상을 담은 소설이나 1930년대에 와서 농촌의 실상을 리얼리즘 수법으로 그려낸 소설 등은 일제시대 우리 소설의 한 특징⁶⁵⁾이었으며 1930년대 여성 문학을 특징 짓는 요소 역시 빈궁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란 점이다.

식민지라는 사회적·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난이란 소재는 당시 작가들에게 있어 일종의 사명감이라 할 수 있었는데, 강경애, 박화성, 백신애의 소설에 있어서도 가난이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하층민의 처절한 궁핍의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궁핍에 시달리는 여성의 문제에 남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렇듯 궁핍을 그리고 있는 여성 작가의 작품들 속엔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여성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궁핍으로 인해 여성에게 닥쳐오는 현실이 궁핍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작가의 작품에서는 항상 궁핍의 문제와 여성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궁핍의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 있지만 그 이면엔 여성의 문제를 포함하는 이원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조를 보이는 작품들은 극한의 기아에 허덕이는 여성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작품, 또다른 여성 문제로 대두되는 여성 노동자의 착취 현상을 그린 작품, 그리고 조혼과 인신매매 등 인간 이하의

65) 이재선, 앞의 책 참조.

비극적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에서는 식민지라는 모순된 시대적 상황에 의해 강요되고 가중되는 궁핍을 보게 되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하에서 작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성 문제가 단순히 여성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시대적 현실과 아픔을 더 강하게 포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강경애에게 있어서는 특히 궁핍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궁핍의 현실에 깊은 인식을 갖고 창작에 임했던 작가였다. '그가 연민의 정을 갖고 보는 모든 등장 인물은 생활의 기반이 철저히 상실되어 버린 놀리고 악취나는 현장의 농민이거나 가난과 돈 때문에 매매되고 짓밟히는 여자들, 그리고 민족 운동이나 사회 혁명 운동에 정력적으로 행동하다 고난 받거나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다'66)라고 이재선 교수가 정리하고 있듯이 강경애는 극지로 밀려나고 고난받은 사람들의 험악한 삶의 조건과 이들의 인간다움으로의 복권에 관심을 두었던 작가였다.

강경애는 어려서부터 가난을 직접 체험하며 자랐고 나중에 빈곤한 조선의 이주민들이 고통받던 간도에서 그들의 절대 빈곤을 몸소 겪으며 살았던 사람이다.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수가 없었고.....'67)라는 박화성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경애가 겪어야 했던 궁핍의 정도가 상상외로 극심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강경애가 그려내고 있는 궁핍의 실상은 더욱 설득력 있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강경애는 식민지의 궁핍한 시대적 아픔에 남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 식민지 시대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문

66) 이재선, 앞의 책, p. 435.

67) 서정자, 「일제강점기 여류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87, p. 68.

제의식을 갖고 꾸준한 인식의 폭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의 표면적 주제는 궁핍이지만 이면엔 여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궁핍 때문에 파생되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백신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백신애의 작품에 나타나는 꾸준한 관심은 궁핍과 여성에게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식민지 시대 궁핍한 삶 속에서 수난 받는 여성의 현실을 그의 독특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백신애는 결혼 후 친정에서 마련해 준 과수원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과수원에서 품팔이 하는 빈민층 여성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궁핍과 봉건적 가족제도에 의해 수난 받는 여성의 모습에서 작품의 소재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애의 작품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당시의 시대적인 불합리한 현실로 인한 가난과 그로 인해 수난 받는 여성의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박화성은 프로작가나 동반자 작가라는 평을 받고⁶⁸⁾ 있듯이 신경향파 문학의 특성이 작품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후기로 가면서 그는 더욱 궁핍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초기 작품에서부터 물론 궁핍의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후기로 가면서 창작 방법에 변화를 시도하고 직접 궁핍의 현장을 취재하며 작품화하는 노력을 보이는데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신가정, 1935. 12)에서 그는 작품을 위한 준비

68) 1930년대 그의 문학을 백철은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p. 345)에서 동반자적 경향을 갖고 활동한 작가로, 김팔봉은 「구각에서의 탈출」(신가정, 1935. 1)과 「조선문단의 현재적 수준」(신동아, 1934. 1)에서 그의 경향성을 이야기 했고, 이재선 교수는 「한국현대소설사」(pp. 433~434)에서 김윤식 교수는 「한국문학사 논고」(p. 241)에서 이러한 점을 거론 했다.

여행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다. 박화성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밥도 내 손으로 해 먹어 본 일이 없이 귀동이로 자란 내가'라고 스스로 이야기 하듯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남편이 입옥하게 되자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고통이든군요'라고 자신이 겪은 가난⁶⁹⁾을 고백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궁핍의 경험이 체험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화성은 가난을 그저 숙명적으로 주어진 가난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타파해 나가고자 했는데, 이러한 저항 의지를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다. 박화성은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실상을 그리는데 있어서 자연재해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궁핍의 주된 원인이 자연재해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식민지 현실의 고발이 미흡해 보이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화성의 소설에도 역시 빈궁 여성의 현실상이 그려지고 있는데, 위의 두 작가와 다른 점은 여성이 남성에게 지지 않는 위치에 있으며, 남성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유대와 협조의 관계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위의 두 작가 특히, 남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백신애의 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적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궁핍의 시대에서 시련당하는 여성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있음은 박화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궁핍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성의 문제를 작품화 하는데 있어서 세 작가는 나름대로의 다른 필치로 묘파해 내고 있지만 궁핍문제와 여성문제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빈궁 여성의 현실상, 노동여성의 문제, 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간추려 살펴보기로 하겠다.

69) 박화성,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 신가정, 1935. 12.

1) 빈궁여성의 현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탈과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경제적 전락은 하층민의 삶을 극지로 몰고 갔으며 이러한 생존을 위협하는 물질적 궁핍은 농촌을 비롯한 하층민의 삶을 뿌리채 흔들고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갔지만 낯선 땅에서의 고통은 더욱 심했다. 그 가운데 여성의 생활은 한층 더 비참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극심한 가난의 현실에서 인간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여성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고 또 어떻게 삶에 대응해 나가는지 빈궁을 다룬 세 작가의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빈궁의 문제가 당시 모든 작가들의 작품세계의 共通分母였고,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문학적 흐름이었음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듯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세 작가에게 있어서도 빈궁은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강경애가 그리고 있는 조선과 간도는 다 궁핍했으나 조선에서의 궁핍은 더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하촌」이다. 이 소설은 등장 인물의 끔찍하고 섬뜩하기까지 한 묘사를 통해 당시 절대 빈곤의 처절함을 웅변하고 있는데, 김윤식 교수는 「지하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국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도 엄청난 모험을 처음으로 시도한 소설, 그리고 과연 소설이 이 지경에 이르러도 좋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벼랑에까지 몰고 간 이 궁핍의 소재 처리를 작품 「지하촌」은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소설적 관습을 깨뜨린 것이며, 이런 섬뜩한 소재의 궁핍이 가장 궁핍한 시대로서의 식민

지 시대에 썩여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⁷⁰⁾

「지하촌」은 여성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궁핍의 극한적인 묘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의 상황이 매우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는 작품으로 읽혀질 수 있다.

강경애가 「지하촌」에서 묘사하고 있는 궁핍의 실체는 한결같이 육체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불구자이며 병자들이다. 주인공인 칠성이는 네살 때 홍역을 앓고 난 뒤 경풍이라는 병에 걸려 팔다리가 마비되어 동냥을 다니는 불구자이고, 칠성이가 좋아하는 옆집 큰년이기도 후천적인 소경이다. 그리고 ‘왜 이 동네 여인들은 그런 병신만을 낳을까 하니 이상하였다’ 하는 칠성이의 생각하는 장면에서 볼 때 칠성이나 큰년과 같은 상황의 불구자가 동네에 많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칠성이가 큰년에게 줄 옷감을 떠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나이기도 다리가 없는 불구자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그 다음날로 보리마당질을 하다가 주먹 같은 살덩이가 빠져나오는 바람에 평생을 고통과 한숨에 살고 있으며, 영애도 머리엔 종기가 지질하게 나서 거기엔 진물이 마를 날이 없고, 똥을 누는데 힘을 쓰니 똥은 안나오고 밑이 손길같이 빠지고 거기서 빨강 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그리고 칠성이나 동네 사람들도 눈병에 걸려 눈을 못뜨게 되는 등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처참한 생활을 그리고 있다. 이렇듯 고통의 상황에서도 지치고 나약하지만 가족을 위로하고 보살펴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곧 여성이 처한 현실이기도 했다.

「지하촌」에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칠성이와 칠성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의 생존을 위한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 속에 불구자가 된 칠성이는 인간 이하의 수

70)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연작사전, 일지사, 1979, pp. 268~269.

모를 당하며 동냥을 하러 다니는데 칠성이는 현실에 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만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며, 옆집 큰년이에 대한 애정으로 희망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칠성이는 '다 헤진 적삼 소매로 맥없이 늘어진 팔목은 뼈도 살도 없고 오직 누렁다 못해서 푸른빛이 도는 가죽만 남아 있을 뿐'⁷¹⁾인 육신을 가누기도 힘들고 칠성이가 사는 집도 방에는 갈자리를 깔았는데 그 갈자리를 들썩하면 먼지내가 싸하게 올라오고 빈대 냄새가 역하며 등이 가려워 벽에 대고 부비고 나면 동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거칠기 짝이 없는 형상이다.

그들이 먹는 음식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파리가 우구구 끓는 곳을 보니 밥그릇이 눈에 띄었다.……술을 들고 보를 들치었다. 국에는 파리가 똥똥 떠다니고 밥바리에 붙었던 수없는 강구떼는 기겁을 해서 달아난다. 그는 파리를 건져내고 밥을 푹 떠서 입에 넣었다. 밥이란 도토리 뿐으로 밥알은 어찌다 씹히곤 했다. 씹히는 밥알이야말로 극히 부드럽고 풀기가 있으며 그 맛이 달콤해서 기침을 할 지경'⁷²⁾으로 조악하고 비위생적인 그들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또한 '파리가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종기 딱지를 뜯어 오물오물 먹는다' 영애의 모습이라든가 '종기에 붙인 쥐가죽에 피를 문 쌀알 같은 구더기가 아글바글'한 장면은 소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궁핍의 극점까지 이른 그야말로 소설이 이지경에 이르러도 좋은가를 생각해 하는 식민지 궁핍의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작품 곳곳에서 묘사되는 궁핍의 장면과 함께 여성의 삶이 조명된다. 칠성이의 어머니는 아침엔 밥을 해 놓고 밭에 나가 하루종일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는 나무를 해서 오느라 어두워야 돌아오는데 피로에

71) 강경애, 「지하촌」,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태학사, 1988, p. 26.

72) 앞의 책, p. 30.

싸여 넘어질 듯하다.

식민지 시대 빈농여성에게 있어 노동은 그들의 현실이었다. 가부장제 구조속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에 육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생계를 위한 생산노동까지 해야 했는데,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강요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었다. 일제는 그들의 식량증산정책을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므로 여러 여성노동 강화정책⁷³⁾을 펴 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확대해 나갔다. 더구나 소작 빈농여성의 경우는 자기일 뿐 아니라 지주나 마름에게까지 무상 노동을 제공해 주어야 했다. 이러한 노동은 당시 일제와 지주에게 수탈당하여 극도의 궁핍을 감수해야 했던 소작 빈농의 경제상태와 함께 봉건적 관념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시대 농촌여성의 일반적인 상태는 칠성어머니나 큰년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칠성어머니는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를 낳은지 하루만에 보리마당질을 하다 누구에게 말조차 할 수 없는 나쁜 병에 걸렸지만 여전히 격심한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애를 낳아놓고 그 다음 날로 보리 마당질하던 그 지긋지긋 하던 때가 떠오른다. 하늘이 노랗고 핑핑 돌고 보리 이삭이 작았다 커 보이고, 도리깨를 들 때 내릴 때 아래서는 무엇이 뭉클뭉클 나오다가 나중엔 무엇이 묵직하게 매어 달리는 듯 해서 좀 만져 보았으나, 사이도 없고 또 남들이 볼까 꺼리어 그냥 참고 있다가, 소

73) 농번기에는 탁아소를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를 실시하였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여성의 복지와 지위 운운 하기도 했으나 여성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회유책일 뿐 여성지위 향상과는 실제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

변 보면서 보니 허벅다리에 피가 혼전했고, 또 주먹같이 살덩이가 축 늘어져서 들어갈 줄 모르고 또 무슨 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름에는 더 덥고 또 고약스런 악취가 나고, 겨울에는 더하고 항상 몸살이 오는 듯 오삭오삭 치웠다. 먼 길이나 걸으면 그 살덩이가 불이 붙는 듯 쓰라리고, 또 염증을 이르켜 통통 부어서 걸음 걸을 수가 없으며, 나중엔 주위로 수 없는 종기가 나서, 그것이 끓아 터지는지라 기막히게 아팠다. 이리 아파도 누구에게 아프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병이었다.⁷⁴⁾

해종일 김매기에 그 몸이 고달팠겠고 더구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려니 그 몸이 지칠대로 지쳤으련만 또 애기에게서 시달림을 받으니 오늘밤이라도 잠만 들면 깨지 못할 것 같다.⁷⁵⁾

이토록 질병과 노동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비참한 여성의 현실은 옆집 큰넌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를 낳을 날이 다 되도록 밭일을 하다가 낳은 아이는 흙투성이가 되어 죽고 큰넌어머니는 그 다음날로 김매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에그 불쌍하지 얼마나 밭고랑을 타고 헤이었는데 애기 머리는 그냥 흙투성이더구나. 그게 살면 또 병신이나 되지 뭘 하겠니. 눈에 귀에 흙이 잔뜩 들었더라니 아이구 죽기를 잘했지 잘했지!”.....<중 략>.....“사는 게 뭘지 큰넌네 어머니는 내일 또 김매러 가겠다더구나. 하루쯤 쉬어야 할텐데. 이게 이게 어는 때냐 그럴 처지가 되어야지”⁷⁶⁾

이는 일반적인 식민지 우리 농촌여성의 현실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궁핍은 정상적인 출산까지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건강한 아이를 낳았

74) 「지하촌」, 앞의 책, p. 42.

75) 위의 책, p. 40.

76) 위의 책, p. 41.

더라도 병신이 될 가능성이 많은 처참한 현실이다. 그리고 출산 후 산후조리도 못하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농촌여성은 아파도 누울 처지가 못되고 치료받을 형편이 안되므로 그대로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조건들⁷⁷⁾은 무엇보다 격심한 농사일과 다른 가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영양 그리고 열악한 환경 등이며 거기에 나쁜 조건의 출산과 산후조리의 부실함은 농촌여성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자신을 희생하고 체념해야 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이 소설엔 여성의 현실을 안타까와 하는 강경애의 연민의 정이 드러나 있기도 한데 비록 여성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디어 내는 것으로 그칠 뿐 적극적인 의지의 표출은 없었으나 작가는 여성 특히, 어머니들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끝내 좌절되고 말았으나 칠성이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절대 궁핍 속에서 생존과 싸워야 하고, 마비된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큰년이에 대한 사랑만은 칠성이에게 희망이었다. 좋은 것이 생기면 큰년이에게 주고 싶어하며 온갖 고생 다 하여 큰년이에게 줄 옷감까지 사서 집에 왔지만 칠성이가 듣게 된 소식은 큰년이의 결혼이었다. 가난한 현실은 칠성이의 유일한 희망마저 꺾고 말았으며 큰년이는 첩으로 팔려가고 마는 비극을 겪게 된 것이다. 강경애는 칠성이를 통해 저항의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칠성이는 자신이 병신이 된 사실에 가끔씩 화가 나고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와 애꿎은 동생들을 짜증스러워 하고 어머니에게 화를 버럭내 보이는데 전부인 현실자각이 미약한 인물이었다. 칠성이는 큰년이 옷감

77) 이지은, 「오늘의 농촌 여성」, 이효재편,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 비평사, pp. 295~298.

을 사기위해 떠난 길에서 만난 불구자의 말에서 어떤 ‘번쩍이는 불빛’을 느끼는 듯도 했지만 뚜렷이 잡히지는 않았다.

“이 친구, 나두 한 가정을 가졌던 놈이우. 공장에선 모범공이었구. 허허 모범공인!.....다리가 꺾인 후에 돈 한푼 못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니 계집은 달아나고 어린 것들은 배고파 울고 부모는 근심에 지레 돌아가시구.....허 말해서 뭘 하우.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하는 놈이 저 하늘인 줄 아우? 이 땅인줄 아우?”

사나이는 칠성이를 딱 쏘아본다. 어쩐지 칠성의 가슴은 까닭없이 두근거리려 차마 사나이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꺾인 다리를 보았다. 그리고 사나이의 다리 밑에 황소같이 말없는 땅을 보았다. “아니우, 결코 아니우, 비록 우리가 이 꼴이 되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소.....내 다리를 꺾게 한 놈두 친구를 저런 병신으로 되게 한 놈두 다 누구겠소? 알아 들었수? 이 친구”⁷⁸⁾

칠성이 뭔가 밖으로 표현해 낼 수는 없었으나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분노가 캄캄한 속에 어떤 번쩍이는 불빛처럼 잡혀지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말부분에 밖으로 뛰어나와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보는데 이는 단순히 그렇게 좋아하던 큰년이가 시집간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절대절명의 빈곤에 대한 분노요, 사회를 향한 분노이며, 내면에서 솟구치는 처절한 저항이며 울음⁷⁹⁾ 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현실에 그저 순응하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끝내 비명을 지르고마는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 어머니의 분노를 예감하게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칠성이를 통해 분노를 표출해 내고 있다.

「지하촌」은 궁핍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다는 평을 받기도 했지만 일

78) 강경애, 「지하촌」, 임헌영·오현주 편, 열사람, 1988, pp. 292~293.

79) 정영자, 「한국여성문학연구」, 동아대박사논문, 1987, p. 122.

제 식민지 하에서 가중되는 민족의 궁핍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함께 여성들에게 가중되는 억압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이다. 강경애의 작품 중에서 가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작품은 다수이지만 여성의 생활상이 자세하게 서술된 작품은 「지하촌」인 것이다. 간도가 배경이 되는 「소금」이나 「母子」, 「有無」 등에서도 가난에 고통받는 여성이 등장하지만 「母子」나 「有無」는 여성의 생활상 보다는 지하운동가 가족의 어려움이나 그에 대한 동조의 심경이 부각되는 작품이며, 「소금」은 절실하고 다양한 여성적 체험이 묘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간도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물론 극도의 궁핍이 여성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가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 남편을 잃고 중국인 지주에게 정조마저 유린당하여 사생아를 낳게 되는 상황은 처절한 궁핍의 상황과 결부되어 보다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인 지주는 경제적 착취자일 뿐 아니라 성적 억압의 대상인데 「지하촌」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소금」은 남성원리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남은 두 아이마저 잃고 비애에 젖을 겨를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소금 장사를 나서야 하는 현실은 보호받을 수 없던 모성의 고발인 것이다. 「소금」은 여성이 여러 체험을 겪으며 모순을 깨닫게 되는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궁핍한 현실문제 보다는 여성체험의 묘사나 모성과 노동의 모순이 주목되는 소설이다.

백신애의 경우 「糊塗」⁸⁰⁾와 「赤貧」에서 가난한 여성의 생활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수난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백신애의 작품 「糊塗」는 극심한 가난과 포악하고 무능한 남편에 의해 인간다운

80) <비판>(1936.7)에 「食因」으로 실렸다가 나중에 『여류단편결작선』에 「糊塗」로 바뀌어 실렸는데 「호도」는 「식인」에 비해 잡다한 설명은 절제되어 있는 편이다.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끝내 회생당하고 마는 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성격 파탄자로서 무능하고 잔인한 남편의 모습은 소설 첫 장면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빌어먹을 년이 단돈 오 전도 안 내놓는다? 헛 이년이야·····에라 이년·····”

후다닥·····하며 마누라의 몸은 뜰 가운데 가 큰 뗏자로 엎드려졌다.

“이년이 돈 오 전도 없다고 사람의 속을 이렇게 썩인단 말이지. 에이 네 이년.”

연달아 박차고 밟고 두들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빠졌는지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 다 떨어져 가는 노란 장롱문을 뚝 잡아떼고 그 안에 든 의복을 되는 대로 방안에 펼쳐 놓으며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잡고 밖으로 뛰어나와 아직껏 뜰 가운데에 자빠진 마누라를 보자, 손에 쥔 의복으로 두서너번 갈기고는 그대로 횡사라져 버렸다.⁸¹⁾

이렇듯 저주와 협박으로 일관하는 남편의 일방적인 대화와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에서 철저하게 억압하고 지배하는 남편만이 있을 뿐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 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철저한 인권 유린의 장면인 것이다. 결혼 전 옥계택은 김문서의 간절한 구애에도 그가 상처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끝내 물리치고 가장 행복한 배필이라고 믿었던 최서방과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세상에서도 드문 비렁뱅이 처참한 생활로 떨어져 버렸는데 남편 최가는 알콜중독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청혼했던 김문서는 그새 암전한 아내를 맞아 살림도 불어 동리 앞에 큰 농장을 경영하며 날마다 이 삼십명 씩 일꾼을

81) 백신애, 「糊塗」, 한국단편소설대계, 태학사, 1988, p. 317.

부리게까지 되었다. 옥계댁은 아무리 굶주려도 김문서의 농장에는 일하러 갈 생각을 안하고 버텼으나 배는 만삭인데다 너무나 굶주려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버리고 일자리를 얻으러 가게 된다. 옥계댁은 자신의 운명이 불행하게 된 것이 남편 죄가 때문이며 김문서를 거절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옥계댁은 이미 세 아이를 남편의 폭력에 의해 잃고 네째 아이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이번에도 임신까지 한 아내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에 매질까지 하는 것이었다. 옥계댁은 김문서의 밭고랑에서 낳은 네째 아이마저 남편의 발길질에 의해 잃고 아이를 공동묘지에 묻은 뒤 마을 상동식 제물을 장만하는 데서 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제물에 입을 대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고 만다.

인간으로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여성에 대한 불평등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작품이며 피해자로서 수난 받는 여성의 삶을 작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옥계댁의 수난의 시작은 빈곤에서 시작된다. 집안을 돌보기는 커녕 살림살이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옷가지며 마지막 남은 솔마저 들고 나가 소식이 없는 남편 때문에 집에 먹을 거라곤 찬물밖에 없다. 그러기에 해산날이 다 되었는데 김문서의 농장으로 일하러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날 옥계댁은 김문서의 밭고랑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허기가 저서 발의 무를 하나 뽑아 무쫄지, 무잎사귀까지 다 씹어먹고야 아이를 낳을 힘을 얻어 해산을 하게 된다. 처참하기까지 한 궁핍과 여성의 현실이 드러난 현장인 것이다. 극한적인 굶주림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를 지켜야 했던 여성의 힘겨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 강경애의 작품 「소금」에서 아이를 낳은 후 먹을 것이 없어 파뿌리를 씹어 삼키는 봉염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옥계댁이 더욱 비참한 현실로 떨어져 버리는데는 극심한 가난과 함께 인습적이고 제 구실을 못하는 남편의 이기심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편이 남편으로서 제 구실을 못함으로 여성의 삶이 더 비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해산한지 여드레만에 돌아온 최가는 아이가 계집아인 것을 알자 옥계댁의 뺨을 후다닥 연거푸 때린 후 누더기 채 아이를 감아 차던져 버린다. 남편 최가는 자신의 아이를 발로 차 죽일 정도로 성격파탄자이며 포악한 남성으로 그려져 있는데 작가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확대묘사 함으로 여성을 확대하는 당시 남성들의 횡포를 적극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백신애 작품의 특징인데 이 작품은 대표적인 경우라 할 만하다. 남성원리의 갈등을 통해 여성해방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糊塗」의 옥계댁은 현실에 패배하고마는 무기력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이 적극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소설구조 역시 백신애 소설의 한 특징이다.

「糊塗」에서도 당시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빈농 여성의 생활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가사노동과 생산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여성의 열악한 현실은 밭고랑에서 아이를 낳게 되도록까지 일해야 하며 견뎌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지하촌」에서도 큰년어머니가 밭고랑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듯이 이러한 모습은 당시 농촌여성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옥계댁에겐 무능하고 이기적인 남편의 폭력까지 더해져 이중적 억압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옥계댁은 전통적 사상에 지배되는 철저한 구시대적 여성으로 불행의 근본인 남편의 폭력과 궁핍에 억눌리고, 봉건적 악습에 희생되고 마는데 보다 철저하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 역으로 여성자아 획득과 구습타파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백신애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적빈」은 극심한 궁핍에 대한 묘사와 함께 남성의 억압에 눌리는 여성의 삶이 매우 독특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적빈」에서 매춘대 늙은이와 두 며느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여성의 현실은 궁핍과 남성횡포에 의한 수난의 연속인데 그와 함께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 늙은 어머니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게된다.

「적빈」에서 그려지고 있는 궁핍은 '가난하다면 이 매춘대 늙은이 보다 가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궁핍 중의 궁핍이다. 매춘대 가족이 그토록 최악의 궁핍으로 내몰린 것은 게으르고 소견없는 남자들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궁핍과 억압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매춘대 늙은이의 생존방법에서 강렬한 생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부정적인 면과 함께 긍정적인 면이 가미되어 이 작품의 재미를 더하여 주고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이 작품의 독특함으로 평가된다.

매춘대 늙은이는 송우암 선생의 자손이며 귀남이란 이름을 갖고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무능하고 소견없는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가난하고 불행한 삶으로 떨어져 버린 인물이다. 「호도」에서 옥계대 비극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듯이 「적빈」에서도 역시 여성의 잘못된 결혼에 의해 여성의 수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매춘대 늙은이의 모습은 '더럽고 불쌍하고 얄미운 거러지 보다 더 가난한 늙은이'이며 사람들에게겐 멸시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매춘대 늙은이의 수난은 극심한 경제적 궁핍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매춘대 늙은이에겐 이렇듯 가난한 현실만을 남겨 준 남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무능한 착취자로서의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두 아들이 있다. 죽은 남편과 같이 '도야지'라는 별명을 듣는 맏아들은 모든 일에 돼지같이 둔하고 욕심궂고 철딱서니 없고 소견없는 멍청이면서

도, 술먹고 담배 피우는 데는 일당백이었다. 술이라면 제 목이라도 베어 줄 작자라 죽도록 남의 일을 해 주고 술만 얻어먹고 돌아오고, 품팔이라도 해서 돈이 들어오면 바쁘게 술집으로 쫓아 가는 것이었으므로 몸에 입은 옷이라고는 자칫하면 숨겨야 할 물건까지 벌름 내다보일 지경이었으니 생활을 책임질만한 인물은 못 되었다. 그러니 눈 빠진 사람이 아니고는 그에게 딸을 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도야지'도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스무살 먹도록 시집을 못 보내고 있는 병어리 색시의 아버지가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도야지'는 끼니조차 책임지지 못할 뿐 아니라 술만 찾아다니고 나중엔 밥을 얻어오라고 병어리 아내를 두들기는 비인간적 폭력자로서 매춘대 늙은이에게 부담감만 더해주게 되었다.

둘째 아들인 매춘이는 착실하게 고용살이 해서 장가도 들고 모아둔 돈으로 집도 장만하고 남의 논이나마 농사도 지어보리라 희망을 품었으나 턱없는 욕심에 남은 돈을 하룻밤 새 노름판에서 날려 버리고 동리 알부랑 노름꾼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뒤 그들은 일 년 열 두 달을 남의 술에서 익혀 낸 밥만 얻어 먹게 되었는데 일을 해 주고 먹는 것이라도 공밥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천대하고, 이때부터 '매춘대'의 '대'자를 빼고 매춘네 늙은이로 부르게 되었다. 매춘네 일가의 경제적 몰락은 매춘대 늙은이를 더욱 동리의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천대받고 학대받아도 남들의 냉정한 것을 슬프거나 원망스럽게 느낄 줄 모르게 만들었다. 여기서 그의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의 대응방식이 나오는 것이다.

매춘대 늙은이에겐 놀음으로 돈을 다 날리고 정신 못 차리는 작은 아들과 장가를 갔어도 두 식구 끼니도 못 잇고 있는 큰 아들에다 만삭이 되어 해산 날이 다가오는 두 며느리가 걱정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불평없이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어머니의 모

습을 보여준다. 해산 후 며느리에게 먹일 양식을 구하러 다니지만 사람들은 편잔만 주고 놀려 줄 뿐이다. 그러나 그는 ‘히에—’ 하고 고양이 같이 웃어 보이고는 여전히 자신의 할 일을 한다. 매춘댁 늙은이의 이러한 모습은 가난을 이겨내는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이며 체념과 인내로 일관해 온 전통적 여성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고통을 참아내며 자식을 돌보는 매춘댁 늙은이의 희생적인 모성애와 인간애를 보게 된다.

백신애는 「적빈」에서도 남성을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데⁸²⁾ 게으르고 욕심사납기 짝이 없는 큰 아들 도야지는 어머니에게는 경제적인 착취자이며 아내에게는 남편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임신까지 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대자이자 폭력자이다.

그러나 당장에 입에 넣을 것이 없었으므로 병어리를 두들기며 밥 얻어 오라고 하는 것이었으나 병어리는 이미 아이를 배어 만삭이 된 커다란 배를 가리키면서 서럽다는 듯이 우는 것이었다. 그래도 돼지는 어떻게든지 양식을 얻어올 궁리는 하지 않고 병어리를 조르다가 지치면 늙은이가 무엇이나 가져오지 않나 — 하는 턱 없는 꿈을 꾸며 덩굴덩굴 구르기만 하는 것이었다.⁸³⁾

여기서 작가는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로서 여성억압의 존재가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가장으로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만 노리며 다니는 노름꾼으로 전락해버린 작은 아들 매춘이도 도야지와 다를 바

82) 백신애의 작품 중 비교적 남성을 긍정적으로 그린 것은 「鰥富子」와 「彩色橋」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남성들은 여성에게 희망적 존재가 되지 못하며, 극심한 가난에 의해 몰락하고 만다.

83) 백신애, 「적빈」, 申熙千편, 보성출판사, 1987, pp. 73~74.

없다. 매춘택 늙은이는 지긋지긋하게도 망나니인 두 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 지쳐버렸다.

“이것은 해산하면 먹일 약이다. 손도 대지 말아라.”

하고는 가지고 온 바구니를 윗목에 밀쳐 놓고 밖에 나와 쪼을 한줌 쥐어다가 그 위를 눌러 덮었다.

“정말 이것은 손을 대지 말아라. 아이를 낳으면 먹일 약이다.”

늙은이는 열 번 스무 번 당부하는 것이었다.⁸⁴⁾

그러나 도야지는 병어리가 해산하기도 전에 이미 그 양식을 다 먹어치우고 이제 막 해산한 부인의 먹는 것조차 욕심을 내는 것이다.

“그년, 아이를 낳고 아프지도 앓나베. 밥이야 억세게 처먹는다. 나도 배가 고파 죽겠다. 제기.”

돼지는 뜰에서 태를 태우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⁸⁵⁾

작가는 비인간적이고 기생충적인 남성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매춘택 늙은이의 살아보려는 강한 삶의 의지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동등하게 애정은 나누어 주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모성애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적빈」에서의 궁핍은 매우 절박한 것이었다. 양식을 약이라고 말하며 서글퍼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처참하기까지 하다. 진통을 하느라 기진한 큰며느리가 장으로 술에 찬물 한 바가지 붓고 끓여 온 물을 받아먹고 나서야 해산할 힘을 얻어 해산하는 모습은 「호도」에서 흙 묻은 무를 잎사귀까지 다 씹어 먹고서야 아이 낳을 힘을 얻는 옥계택의 처참한 궁핍과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다음 장면은 우스꽝스럽기까지

84) 위의 책, pp. 77~78.

85) 위의 책, p. 82.

하다.

그는 더욱더 걸어가는 사이에 몹시 뒤통마려워서 잠깐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본 후 속옷을 헤치려다가 무엇에 놀란 듯 재빨리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은 똥힘으로 사는데…….’

하는 것을 생각해 내었던 것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들 밥 한술 남겨 두었을 리가 없으며 반드시 내일 아침까지 굶고 자야할 처지였으므로 지금 똥을 누어 버리면 당장에 앞으로 거꾸러지고 말 것 같았던 까닭이었다.

그는 흘러내리는 옷을 연방 움켜 잡아 올리며 코끼리 겹질 같은 몸뚱이를 벌름거리며 그대로 뒤통마려운 것을 무시하려고 입을 꼭 다문 채 아물거리는 어두운 길을 줄달음치는 것이다.⁸⁶⁾

이 재선은 이 부분을 굶주림 때문에 배설의 대사 과정마저 참는 장면은 무지함 보다는 가난의 구극을 생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렬한 리얼리티를 지닌다⁸⁷⁾고 지적했다. 극심한 궁핍이 형상한 인간이하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비례해 더욱 가중되는 남성횡포에 의해 수난받는 여성의 삶이 강조되면서도 이를 이겨내는 여성의 지혜와 인간애가 색다른 재미를 더해 준 작품이다. 그리고 백신애 소설의 부정적 남성상은 다음에 다룰 박화성의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인물과 대조를 이루는데 두 작가의 여성문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박화성의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서 지도적 인물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전반기의 형식을 버리고 절실하게 궁핍의 현장을 묘사함으로써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식을 취했음은 그의 작품의 모색을

86) 위의 책, pp. 83~84.

87) 이재선, 앞의 책, p. 438.

통해 나타나고 있는 점⁸⁸⁾이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작품⁸⁹⁾엔 이념의 내포 뿐 아니라 데뷔작부터 식민지하 우리민족의 궁핍에 끊임없는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강경애나 백신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궁핍에 해당하는 작품을 분류해 내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만큼 세 작가의 현실인식은 궁핍이었다.

박화성의 작품에서 궁핍이 더욱 비극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작품은 자연재해의 참상과 결부되어 그려지고 있는데 「투鬼」에서 농촌의 비참상과 여성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은 남성에게 지지않는 위치에 있으나 가난에 눌려 고통받는 양상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극심한 양상을 띠고 있다.

「투鬼」는 자연재해인 가뭄으로 인해 가중되는 궁핍과 빈농 여성의 현실상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가뭄이 '인간의 삶 자체를 어떻게 교란시키는가'⁹⁰⁾를 다루고 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섭은 양심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인물이지만 흉년이 들어 내지 말자고 결정한 곡수를 혼자서만 낼 정도로 현실인식이 부족한 인물이다.

그러나 성섭의 아내는 남편의 못마땅한 행동에 면박을 주기도 하고 남편과 달리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며 억압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극복의지를 드러내는 여성인물이다.

“.....작년보다도 발곡식까지 못돼버린 더 큰 흉년이니께 곡수 못 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세전이라도 살아갈 도리를 사정해 본다고 지주댁에 물려간다고 합디다. 그래도 당신을 쏙 빼놓는 것

88) 서정자, 앞의 논문 참조.

89) 본 논문에서는 박화성의 초기 작품에 속하는 1930년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90) 이재선, 앞의 책, p. 434.

보시오. 작년에도 그런 짓을 했으니께 으레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그래서 내가 가마고 했소. 지주댁 아니라 상감님 앞에라도
당장 가겠소. 아니 염라국에라도 갈라면 가겠소. 지금 어린 새끼들
하고 무더기 죽음이 나게 될 판인디 무엔들 못 할까?”⁹¹⁾

성섭과 그의 아내는 대조적인 행동양상을 보이는데 이미 성섭도 내부에서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시인하고 있었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에 벼들은 다 타버리고 논바닥은 주먹도 들어갈 만큼 짹짹 갈라져 가는데다가 식수마저 부족하게 되어 물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되고 날마다 우는 아내를 보며 성섭의 가치관은 혼란을 겪게 된다. 「투鬼」에서 묘사되고 있는 식량과 식수부족의 처참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두 해째 연속해서 든 흉년으로 궁핍이 가중되는 상황인 것이다.

성섭은 물을 삼천 두레나 품고서 부은 다리를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새도록 방아질하는 아내와 ‘보리가루죽이 남동 배부르게 못 먹고 자는’ 아이들 ‘갈기갈기 찢어진 흠이불은 아이들이 몸을 뒤칠 때마다 짹하고 찢어지는 소리를’내는 궁핍의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홍수를 지낸 작년 가을부터 여름까지 줄곧 겨울에는 무죽이나 시래기죽으로 연명하였고 봄부터 쫄면죽으로 끼를 잇다가 쫄면물까지 없어지자 쌀겨를 구해다가 거칠은 것은 돼지밥으로 고운 것은 양식으로 죽을 썬서 보릿동까지 대어오면서……⁹²⁾

위의 예문과 같은 상황은 당시 우리사회의 보편적 현실이었다. 궁핍의 가속화 현상은 일제의 경제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많은

91) 「한귀」, 박화성 작품집 ; 고향없는 사람들, 일신서적, 1994, p. 245.

92) 위의 책, pp. 237~238.

농가 특히 소작농들은 가을의 수확기에 소작료와 차용식량 및 채무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뒤에는 벼를 탈곡한 쪼더미와 왕겨를 넣은 바가지 밖에 남지 않는 참담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⁹³⁾ 그러므로 농민은 지주로부터 내년의 수확을 담보로 식량을 꾸어올 수 밖에 없고 이것에 또 이자가 붙어 매해마다 소작 농민들은 채무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생명을 이어가는 성섭네 집의 상황은 가뭄까지 겹쳐 식수마저 부족하게 됨으로 그 비참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에 하나 뿐인 우물 물이 줄대로 줄어들자 엄중히 파수까지 보며 물길어 가는 것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빨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남자들과 아이들은 다 옷통을 벗고 살았다. 여덟 식구나 되는 성섭네는 더 고생이었고 아이들은 물을 찾다 어머니에게 매를 맞아야 했고 뜨물이나 구정물까지 사용했으므로 돼지마저 목이 마르다고 깼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의 몸은 때와 땀에 절어 얼룩얼룩했으며 그들의 앙상한 갈비뼈가 여름 동안에 더욱 날카롭게 비어져 갔다.

박화성은 이렇게 가중되는 궁핍한 현실에서의 여성의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다. 성섭의 아내는 아픈 몸으로 닭이 두해나 올 때까지 방아를 찧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야 다음 끼니의 식량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끝이 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생활이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고집을 부렸소 어디? 나도 편안하게 쉬면 오직 좋겠소? 낮에 찢 것은 다 저녁밥 해버리고 나니께 보리쌀이 오직 많이 드요? 내일은 또 모를 심는 다니께 그래도 내일 눅밥 해 줄 것이나 찧어 쌓지라우. 나는 고사하고 우리 품앗이 방애 찧느라고 다른

93) 강제언, 일제하 40년사, 풀빛, 1984, p. 104.

덥네들도 밤을 새웠는디라우. 모래는 또 품앗이 방애도 짚어야 쓰고 우리 방애도 짚고 콩밭도 매고 해야지. 아이고 빨래는 또 언제 할꼬? 새끼들이 거지꼴이 다 되었는데 풀 할라면 또 쌀이 있어야 하는데 쌀은 어떻게 또 구할 것인가 몰라.”⁹⁴⁾

일제 식민지 시기를 통하여 성별 농업분업 구조가 변화여 갔는데⁹⁵⁾ 전통적으로 여성은 주로 밭농사와 직조, 양잠, 축산을 담당하였고 논농사는 남자의 일이었다. 그러나 농업노동력의 부족⁹⁶⁾과 농가의 경제적 빈곤, 그리고 일제의 정책에 의해 여성은 기존의 해오던 일에도 농업노동의 전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성은 옥외노동 외에도 과중한 가사노동까지 해야 하는 처지였다. 간단한 예로 빈농여성들은 정미소를 이용할 형편이 안되므로 방아질이나 절구질로 주식을 준비해야 했고, 당시 의복 재료는 대부분 면직물이었기 때문에 풀을 하거나 다림질이 필요했고 빨래도 비누이용은 어려운 상태라 재래방식으로 일일이 잣물에 우려내 냇가에서 빨아 너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했다. 더구나 농사일이 많아지는 농번기에는 온 종일 농사일에 시달리고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식사준비와 밤 늦도록 눈을 비벼가며 바느질이며 다듬이질 등을 해야 했던 것이다.⁹⁷⁾

「한귀」에서 박화성은 고달픈 농촌여성의 일상을 자세히 서술함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박화성이 그려내고 있는 여성은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궁핍한 생활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걱정해

94) 앞의 책, p. 234.

95) 최숙경·이배용·신영숙·안연선, 앞의 논문, p. 61.

96) 식민지 치하 농가의 가속적 궁핍은 농촌을 떠나게 하는 이농 현상을 만들어 냈으며 전시체제하(1937~1945)에서 남자들은 징용·징병으로 끌려가 남성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농업 인구의 감소는 농업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97)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앞의 책, pp. 83~88.

주고 도움도 주는 남성이 옆에 늘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남성억압의 상황은 없으며 때문에 남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구조는 없는 것이다. 성섭의 아내도 남편과 상하관계로서 억압을 받거나 핍박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편잔을 주기도 하고 충고를 하는 쪽이다.

성섭도 아내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방아를 찧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얼마나 팔다리가 아플까 걱정하고 자신도 물을 삼천 두레나 품느라고 몸이 아프면서도 아내를 위해 보채는 아이를 받아 재우기도 한다. 마구 언성을 높이며 대들어도 그는 아내의 말이 옳을 땐 수긍하는 것이다. 동등한 관계 혹은 여성우위의 관계로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고향 없는 사람들」에서의 부부관계들에서도 다르지 않다. 여성의 발원권은 보장되어 있으며, 역시 여성은 남편에게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시한다. 이는 남성이 부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강경애와 억압의 존재로 군림하는 남성을 그리는 백신애와는 다른 특징적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투鬼」에서의 궁핍은 「산지옥」을 방불케 하는데, 대변이 항문에 걸려 나오지 않다 항문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성섭의 모습, 얻어먹은 보리밥을 소화시키지 못하여 그대로 설사를 하는 봉현이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성섭 아내의 모습에서 비극은 절정을 이룬다. 미쳐버린 검둥이에게 물어 뜯겨 피를 흘리는 봉이와 아내를 보고 성섭은 끝내 분노를 터뜨리고 만다. 성섭의 분노는 모순된 사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궁핍으로 일관하는 「春宵」는 양림이네 가족의 비극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벼 백이나 하고 글자 깨나 다루던 집안의 자손'이었던 양림아버지는 일제의 농촌 수탈정책에 의해 몰락한 것으로 보이는 몰락농민으로 선창의 지갯군이 된 노동자인데 건강한 팔

다리는 기운을 잃고 늘어져 궁상만 쪼르르 흐르는 무능력한 남성이다. 그러나 박화성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원리와의 갈등 양상은 없다. 양림어머니는 일년 쯤 채소행상을 하며 끼니를 연명해 가고 있는데 이들의 궁핍상은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죽거리라도 조반 끓일 것만 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양림어머니는 부엌문에 우두커니 서서 조반 끓일 궁리를 해 보았으나 역시 어제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계책이 나지 않고 가슴만 막막하였다.⁹⁸⁾

끓은 채로 지게를 지고 일하러 나간 남편이 혹 돈을 벌었을까 싶어 보낸 영순은 빈손으로 오고 양림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양림이의 샤쓰와 영순이의 양말 짝을 뺀다.

양림이의 샤쓰란 것은 삼년째나 입어온 무명샤쓰이었다. 붉은색이었건만 빛도 바래서 희끄무레해지고, 아래도리는 움 조각으로 이어내리고 몇 겹으로 기웠던 자리가 갈기갈기 떨어져서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을 그래도 한번이나 더 입혀볼까 하여 빨고 앉았는데 그 어머니의 가슴 역시 샤쓰의 떨어진 곳 처럼 어수선 하였다.⁹⁹⁾

당시 의생활은 극도로 열악하였는데 의복은 계절별로 옷 한 벌이 있을 뿐이고 그것도 옷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헤어진 게 보통이었다. 아이들은 겨울 이외에는 거의 벗고 있다시피 하였다. 그나마 목화나 의료작물을 심어 짜 입을 수 있는 가정은 좀 나왔고 공장에서 면직물이나 인조견이 쏟아져 나왔으나¹⁰⁰⁾ 빈농여성이나 그날그날 입에

98) 박화성, 「춘소」, 신동아, 1936. 6, p. 319.

99) 위의 책, p. 319.

100)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사분과편, 앞의 책, p. 88.

풀칠하기도 어려운 빈궁 여성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양림어머니는 「홍수전후」나 「한귀」에서 처럼 농사일에 시달리지는 않으나 「新婚旅行」에서 게것장사를 하거나 「중굿날」에서 소금장사를 해서 가게에 보탬을 주듯 야채행상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 못하는 남편만 믿고 앉았거나 원망하기보다 자신이 서둘러서 돈벌 궁리를 한다. 밀린 외상도 못갚은 상황에서도 또 외상으로 야채를 얻으려다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외상 야채를 얻어 시장에 나간다. 그런데 그날 따라 장사가 잘 되어 ‘좁쌀 한 되와 짬 반찬’을 사가지고 집에 오지만 양림이가 똥통에 빠져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죽은 양림이를 붙들고 울부짖는 양림 어머니의 모습은 비극의 절정을 이룬다.

“너그가 누구죄로 이런 못 당할 일을 당한단 말이나. 웬?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아”¹⁰¹⁾

역시 비극적 현실 앞에서 주인공은 세상을 원망하게 되며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망할놈들 같으니. 아무도 올란다는 놈은 없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말해도 이따가 의사 데리고 와서 조사나 해 보지. 죽은 아이는 살릴 수 없다 하고 다른 의사한테 두 곳이나 가서 사정해도 얘기만 들어보고는 그 애는 아주 죽은 아이니 그리 알고 그냥 가라고 만 합니다.”¹⁰²⁾

이는 가진 자들에 대해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던 하층민의 모습인

101) 「춘소」, 앞의 책, p. 325.

102) 위의 책, p. 325.

것이다. 「춘소」는 노동자의 아내로서 궁핍에 시달리는 현실묘사와 빈궁에 대처하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 준 작품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地下村」, 「糊塗」, 「赤貧」, 「旱鬼」, 「春宵」 등은 1930년대 우리 나라 하층민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들이며, 극한의 궁핍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피폐화시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다.

2) 노동여성의 문제

전통적으로 여성은 '집안'의 존재였으며, 그들의 천직은 가사 노동이었고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농사일이나 가내 수공업이 전부였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여성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농가 여성의 노동력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는데 1920년대와 1930년대 초기에는 옥외 노동 권유의 차원이었으나 전시경제 체제로 돌입하면서 부터는 강제적으로 여성 노동력을 수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작품들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농촌여성 특히 빈농여성에게 궁핍한 생존 문제와 더불어 이중의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말미암은 도시로의 이농 인구 급증과 일제의 농업 위주의 전통 경제를 식민지 경제 체제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노동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일본 자본에 의한 것이긴 하나 조선의 공업화와 더불어 여성 노동자가 출현하였다. 새로운 생산 형태가 여성 노동자를 필요로 하기도 했지만, 여성 역시 농사일과 가내 수공업의 보조 역할 그리고 가사 노동만으로는 더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으로 나와 임금 노동자가 되었던 것이다. 여성은 '바깥'으로 나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의 노동에 참여하게 되

었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지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혹한 지배 밑으로 들어간 것에 지나지 않았다.¹⁰³⁾ 여성 노동자는 일반 노동 계급의 개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여성 차별의 뿌리가 깊듯이 노동현장에서도 여성에겐 더 많은 지배와 억압이 가중되었다. 식민지 하 여성 노동자는 민족차별과 함께 성차별로 더욱 하락되어 있었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여성 노동력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것이 여성문제라고 보는¹⁰⁴⁾ 사회주의 여성 운동론은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모두에서 여성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근대 산업사회로 가면서 더욱 가중되는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사회문제로 부각될 만큼 심각해져 갔다. 여성으로서 또는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로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이중억압의 문제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그리고 있는 작품은 강경애의 「인간문제」와 박화성의 「추석전야」가 있다. 이들 작품들은 식민지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작품으로 그들의 사상성과 리얼리즘에 초점을 맞춰 해석해 왔다. 강경애는 식민지의 모순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소외계층의 변모과정을 통해 '여성문제'와 '노동문제'를 「인간문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장편소설인 「인간문제」는 당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하는 성과를 이룩했다¹⁰⁵⁾는 평을 받았듯이 당대 사회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식민지 시대에서의 투쟁적 인간상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카프진영의 작가들에게도 그리 흔하지 않을 만큼 공장 내부의 구체적인 생생한 묘

103) 徐廷美, 「성과 勞動」, 이효재편,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 비평사, p. 306.

104) 이승희,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사회과학개론, 백산서당, 1990, p. 298.

10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p. 321.

사가 뛰어난 작품¹⁰⁶⁾으로 인정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궁핍문제와 여성문제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작품이란 전제에서 무엇보다 여주인공 선비가 변모되어 가는 모습과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문제」는 당대 사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여성 독자의 입장에서 다시 볼 때 식민지 체제와 남성지배에 억압되어 온 여성의 문제를 분명히 한 작품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 작품의 총체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며 여성 독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편협된다거나 작품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¹⁰⁷⁾이 아니라 작품의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인간문제」는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공간이 배경이 되고 있다. 전반부에는 용연이라는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 정덕호라는 봉건적 지주계급의 횡포와 그에 대항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마는 소작인의 모습 그리고 남성횡포에 희생되는 여성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고, 후반부에는 인천부두와 방적공장으로 옮겨와 억압받는 노동자에서 새로이 변모되는 인간상을 보여주게 된다. 「인간문제」는 전체적으로 여주인공 선비의 일생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한 개인의 삶이란 것이 사회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모순을 인식하고 변모되어 가는 것이므로, 여성으로서 어떻게 모순을 인식하고 대항해 나가는지를 추적해 나갈 때 여러 사회적 현상과

106) 임헌영, 「비판적 사실주의의 소중한 열매」, 강경애전집1, 열사람, 1988, p. 317.

107) 송지현, 「1930년대에 있어서의 여성자아정립양상연구」, 전남대 박사 논문, 1991, p. 44.

관련하여 살펴 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선비는 소작인의 딸로서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 지주에게 횡포를 당하게 되고 더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로 나와 공장의 노동자가 된다. 소설의 전반부는 선비로 하여금 도시의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농촌에서 일제와 지주가 저지르는 비리를 고발하고 있다. 농촌에서 밀려나는 농민의 처지가 일제와 결탁한 지주의 횡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농민이 노동자로 바뀌어서는 지주와는 비교도 안되는 일제의 횡포와 싸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전반부에 소개되는 원소(怨沼) 전설은 작품에 큰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전설의 장자침지와 맞아 떨어지는 인물인 정덕호는 작품 전반부의 억압의 표상으로 군림한다. 용연마을의 소작인들에게 가혹한 착취자로 소작인들을 파탄의 길로 몰아 넣어 농촌 이탈을 부추겼으며, 처녀를 농락했다가 버리는 짓을 되풀이 하는 악덕 지주이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로서 무엇보다 선비의 일생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비는 지주 정덕호의 서사 노릇을 하던 김민수의 딸로 아버지가 덕호의 산판에 얻어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죽었으나 의심의 여지 없이 덕호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고맙게 여기는 순수하고 연약한 인물이다. 어머니마저 잃은 뒤 덕호의 집에 옮겨와 살게 되는데 돈과 첩밖에 모르는 덕호는 서울로 보내어 공부시켜 주겠다고 선비의 환심을 산 뒤 아들 하나만 낳아 달라며 선비의 정조를 유린한다. 선비는 덕호나 덕호의 아내, 그의 딸 옥점이의 횡포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고 덕호의 집을 떠나게 된다. 덕호는 악덕지주로 일제와 결탁하여 무산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억압의 대상일 뿐 아니라 여성에게 성적인 것까지 더해져 이중의 억압을 가하는 존재인 것이다. 덕호의 아들을 바라는 욕심에 의한 희생자들은 신천택과 간난이 그리고

선비에게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 명확히 눈 뜨지 못한 채 덕호에게 버림받게 될 것만을 걱정하다 덕호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여 버림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게 된다. 선비도 덕호에게 몸을 더럽히자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야 아들을 낳아 이 집안의 세력을 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덕호가 자신의 방을 나가 안방문을 여는 소리를 들으며 웬일인지 가벼운 한숨과 함께 질투 비슷한 감정마저 느끼는데, 이는 남성중심의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길들여진 여성으로서 현실의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선비는 결국 덕호에게 짓밟힌 뒤에야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고, 한때 친구이자 덕호의 첩이기도 했던 간난이를 이해하게 되며 간난이가 떠나간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비는 자신을 감싸주기는 커녕 고통과 눈물만 주던 집을 벗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남성도 포함될 수 있지만) 집을 떠나 가출하게 되는¹⁰⁸⁾ 설정은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현실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찾고 더 나은 현실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경애 작품에서 집은 안식과 평안함을 주는 공간이 아니다. 강경애의 집엔 극심한 가난이 있고 떠나게끔 만드는 참담한 삶과 배신의 세월이 있다. 선비에게 있어서 집이란 더욱 그러한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없을 뿐 아니라 의지가 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를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짓밟은 구속과 억압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억압의 공간을 떠나는 것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의 표출인 것이다.

용연마을을 떠난 선비는 도시로 들어와 간난이의 도움으로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선비가 덕호의 집을 떠나기에 앞서 용연 마을에서 함

108) 김열규, 「여성과 집에 관한 試論」, 김열규외, 『家와 家門』, 서강대 인문과학 연구소, 1989 참조.

게 자란 첫째가 마을을 떠나게 된다. 지주인 덕호에게 대항하였다가 땅을 빼앗기고 굶주림에 못 이겨 무작정 떠나게 되는 첫째는 역시 도시의 노동자가 되고 수동적이고 무지한 농민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듯 새로이 변모되는 인간상을 보여주는 상황은 선비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선비는 덕호보다 몇 배나 더 무서운 가해자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강경애는 간난이와 선비가 취직한 인천 대동방적공장 내 여공들의 생활을 통하여 여성 노동력의 착취현장에서의 임금 수탈과 비인간적 대우 등의 정신적, 육체적인 이중적 수탈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며 그들의 의식 각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할 무렵 일본 자본주의의 침입을 받은 국내의 경제는 완전히 식민지 종속하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무렵 공장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공장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였고 여공의 수도 차차 늘어 갔다. 특히 일제하의 공업화가 여성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였던 방직, 화학(성냥, 고무), 식료품 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여성노동자는 1930년대에서 1940년의 10년동안 28,288명에서 73,202명으로 2.5배 증가하였고 전체 공장 노동자의 30~35% 정도를 차지하였다.¹⁰⁹⁾ 1930년대 전반기의 조선 공업은 방직공업이 중심이었다. 이 업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적은 투자로 고율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자연히 전통적으로 대우가 낮은 여성들과 유년노동자에게 관심이 향하게 되었다. 여성 노동자는 민족적, 계급적, 성적 억압의 대상으로 착취구조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듯 방직이나 식료품 같이 가사 관련 업종이 산업화 초기 공업화

109)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앞의 책, p. 230.

의 주력 산업이었고 여기에 여성들이 고용되었다는 것은 식민지 시대 조선의 공업화가 조선 여성 노동력 수탈에 기반해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¹⁰⁾

「인간문제」에 등장하는 인천 대동방적공장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여성 노동자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작가 강경애가 일제 식민지 체제와 다를 바 없는 공장 내의 수탈 체제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이중억압의 문제 그리고 지하 노동운동의 적절한 노출 등에 주목함으로써 식민지 현실에서의 핵심적 문제에 접근한 문학적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미 공장에 취직할 때 계약조건부터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¹¹¹⁾ 임금은 생계비엔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이고 거기에다 벌금제와 불량품 배상제도, 그리고 강제 저축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더욱 하락했다.¹¹²⁾ 공장측은 기숙사 제도를 통하여 여공들을 더욱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유도하였고, 그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였다. 이러한 작업장 안의 전근대적인 구조와 강압적인 분위기는 그들의 기본적인 인격마저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거기다 공장주나 남성 감독의 폭언, 구타,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으며 심지어 성폭행 사건도 빈번히 일어났다.¹¹³⁾ 그리고 기숙사의 열악한 식사와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과 사고가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110) 최숙경, 이배용, 신영숙, 안연선, 앞의 논문, p. 43.

111) 여성 노동자들은 3~5년간의 고용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것은 합법화 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었다.

112) 여성 노동자들은 13시간 노동에 최저 16전을 받고 있었다. 당시 하루 밥값이 34전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아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여성 노동자의 기아 임금은 감독에게 ‘아양을 떨어야’ 했으며, 부업적 혹은 일시적 매춘을 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113) 이러한 성폭행의 문제는 공장파업시 주요 요구조건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노동 시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가가 여성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주목한 것은 여성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접근이라 하겠다.

인천 대동방적공장에 들어간 선비와 간난이는 공장의 어마어마함에 놀라고 선비는 간난이의 숙련된 일 솜씨를 보며 부러워한다. 공장내의 작업과정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저편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소음과 돌아가는 와꾸의 소음이 합쳐서, 공장 안은 정신 차릴 수 없이 소란하였다. 선비는 멍하니 서서, 간난이가 실켜는 것을 보고 있다. 간난이는 늘 해 보던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을 손 익게 하였다. 우선 남직공이 갖다 주는 초벌 삶은 고치를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들어 붓고 조그만 비로 돌아가며 꺾꺾 누른다. 그러니 실 끝이 모두 비에 묻어 나왔다. 처음에 나온 실 끝은 비로 끌어내어 가마 좌우에 꽂힌 못에 걸어 놓고 나서 다시 비를 넣어 실 끝을 끌어 올리었다. 이번에는 노란색을 띤 정한 실끝이었다. 간난이는 실끝을 왼손에 걸어쥐고 나서 바른 손으로 실 끝을 하나씩 끌어 사기 바늘에 붙였다. 그러니 실이 술술 풀려 올라간다.¹¹⁴⁾

그러나 선비에게 닥쳐온 첫 시련은 식은 밥 찌 놓은 것 같은 풀기 없고 석유내가 끼치는 안남미 밥에 반찬은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 없는 소금이 와그르르한 새우젓 뿐인 식사였다. 배에서는 꼬룩꼬룩 소리가 났지만 먹을 수가 없어 멍하니 앉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해서 나가는 여공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공들은 이 밥을 먹지 않고는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들도 처음 며칠은 이 밥에 배탈을 얻어 십여 일이나 설사를

114) 강경애, 「인간문제」, 임현영·오현주 엮음, 열사람, p. 207.

하고도 할 수 없이 이 밥을 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먹어나니 이젠 배를 앓거나 또는 처음 먹을 때처럼 석유내가 몹시 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배고픈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고……하였다. 시재 못 먹을 것이라도 배만 고프면 먹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하였다.115)

처음 공장 야학에서 감독의 연설은 겉으로 보기에 여공들의 이익을 위한 배려로 들렸다. 그리고 여공들은 감독의 말을 들으며 희망에 젖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공장 내부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시골에서 조밥도 못 먹고 김매던 생각에 가슴이 벅차도록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독의 연설엔 여공들에게 행해지던 갖가지 제도와 장치가 소상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공장은 다른 작은 공장과 달리 직공들의 장래와 편의를 생각해 주는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이 기숙사라든가, 또 야학이라든지, 기타 여러분이 소비하기 위한 일용품까지 배급하는 설비라든가……”<중 략> ……

“그리고 에……이 공장에서는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 저금제도를 만들었소. 저금은 인생의 광명이요! 그러니 여러분은 노동만 하면 공장에서 밥을 먹여주고 일용품을 대주고 나머지는 저금을 시켜주니……” <중 략>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 3년을 계약 맺고 들어 왔으나…… <중 략> ……경찰서에서 일일이 보증까지 받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요?…… <중 략> ……”

“이 공장에서는 여공의 장래를 가르칠까봐 엄밀히 감독하는 까닭에 개인의 외출을 불허하느니 만큼 여러분은 밖이 펍 그리울 것이요……” <중 략> ……

“……또 일의 능률을 내어서 임금 외에 상금도 많이 타도록 하오.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도리어 벌금이 있을 터이니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오.”116)

115) 위의 책, p. 209.

116) 위의 책, pp. 211~212.

일용품까지 배급하는 소비조합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저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3년 이내에는 마음대로 못나가도록 경찰서에서 보증까지 받은 계약서와 개인적인 외출도 불허하는 기숙사 제도며 상금이나 벌금제도 등은 사실상 여공들의 노동력을 절대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제도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공장 감독의 말을 들으며 간난이는 별떡 일어나서 일일이 반박하고 싶은 흥분을 느낀다. 간난이는 무지하고 순진한 여성 노동자들을 각성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었던 것이다. 간난이는 이미 시련을 겪어내고 현실을 바로 보는 시각을 획득한 지도자적 여성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선비는 간난이를 통하여 깨달아 나가게 된다. 간난이는 '어리석은 저들의 눈을 어서 뜨게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루라도 속히 천여 명의 여공들이 한몸이 되어 우선 경제적 이익과 인격적 대우를 목표로 항쟁하도록 인도하여야 하겠다는 책임을 절실히' 느끼며 밖의 동지들과 협조하여 공장 감독의 연설한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폭로하는 종이를 방마다 돌리는 역할을 해낸다. 그러나 아직은 소극적인 입장인데다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때의 선비는 간난이의 말과 행동이 어렵고 놀라울 뿐이었다.

“선비야! 그런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저 봐라! 지금 야근까지 시키면서도 우리들에게 안남미 밥만 먹이고, 저금이니 저축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작을 하여 우리들을 속여서 돈 한푼 우리 손에 쥐어 보지 못하게 하고 죽도록 우리들을 일만 시키자는 것이란다. 여공의 장래를 잘 지도하기 위하여 외출을 불허한다는등, 일용품을 공장에서 저가로 배급한다는 등 전혀 자기들의 이익을 표준으로 하고 세운 규칙이란다. 원유회를 한다느니 야학을 한다느니, 또

몸을 튼튼케 하기 위하여 운동을 시킨다는 것도 그 이상 무엇을 더 빼앗기 위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작이란다.....”

선비는 간난이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른 줄을 아는 바에는 처음부터 공장에 들어오지 말 것이지 왜 서울서 그만두고 이리로 오고서는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런 불평을 토하는가? 하였다.

“선비야! 우리들을 부리는 감독들과 그들 뒤에 있는 인간들은 덕호보담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운 인간이란다.”¹¹⁷⁾

간난이는 여공이 밀회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려다 참는다. 선비는 간난이의 말이 이해되지 않고 생소했지만 덕호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많다는 말에는 가슴이 울울하여 지는데, 이는 그들이 같이 공감되는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덕호와 같은 우리들의 적이 많은 것이다. 그것을 대항하려면 우리는 단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선비는 어떤 힘을 불쑥 느끼는데, 작품에서 덕호로 대표되는 남성 폭력에 대한 공동체험을 통해 선비는 초보적인 단계의 이해를 시작하게 되고 간난이의 사업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게 까지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선비를 비롯한 여공들의 공장 생활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는 공장 감독의 성적인 모욕과 폭력을 들추어 내고 있다. 감독에게 잘 보이고 말을 잘 들으면 일이 쉬워지고 상금을 타지만 그렇지 않을 땐 벌금에 갇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얼굴이 고운 선비는 감독들 사이에서 암투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선비 앞에서 떠나지 않고 선비의 환심을 사기위해 상금도 주었었다. 그러나 선비의 태도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간난이가 나간 뒤로는 날마다 선비를 나무라고 벌금까지 물리는 것이었다.

117) 위의 책, p. 214.

무섭게 돌아가는 와꾸에 여공들의 손가락이 잘릴 뻔하기도 했으며, 간 봄에는 여공 하나가 머리카락이 와꾸에 끼어서 마침내는 기계에 말려들어 무참히 죽는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이를 극비리에 붙이고 여공들에게 작업복과 수건을 쓰라고 엄명하였는데, 물론 공장에서 내준 것이 아니고 여공들이 스스로 해 입어야 했다. 선비는 언제부터인지 오실오실 춥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으며, 기침할 때 피까지 섞여 나오게 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의해 몸이 망가져도 쉴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처지고 못 되었다. 선비는 아픈 몸으로 일을 하려니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러다 실이 끊기면 감독이 와서 채찍으로 와꾸를 툭 치어 기계를 돌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십 전 벌금을 물게 되고 밤새도록 일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선비는 여전히 바쁘게 손을 놀리지만 소득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억압의 울타리를 벗어나 공장 노동자가 됨으로 희망을 가졌던 선비는 자신이 덕호에게 당했던 그 분하고 부끄러운 일이 공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몸이 망가지도록 고된 노동에 시달려도 예금통장엔 돈이 모이지 않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고 억압적인 노동현실에 눈뜨게 된다.

선비는 번데기를 건져 입에 물며 머리를 들어 와꾸를 바라보았다. 번개치듯 돌아가는 와꾸에 흰 무지개 같이 서기를 뻗치며 감기는 저 실! 처음에 그가 저 와꾸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형용 못 할 애착을 느끼었으며, 그리고 저것들을 뽑아서 하꼬에 담아 가지고 감정실로 들어갈 때의 만족이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저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들이 그의 생명을 좀 먹어 들어가는 어떤 커다란 벌레 같이 생각되었다.¹¹⁸⁾

118) 위의 책, pp. 256~257.

목숨을 잇기 위해 노동력을 팔지만 오히려 목숨을 단축시키게 되고 임금차별과 끔찍한 노동조건, 성적인 모욕과 위협 등과 같은 인권유린을 겪으면서 공장내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감독의 소리가 크게 나므로 흘금 바라보니 결의 동무의 와꾸를 툭 쳐서 돌린다. 동무는 얼굴이 빨개서 실 끝을 이르려고 허둥거린다. …… 그 팔! 그 손끝! 차마 눈 가지고는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선비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그의 손가락을 다시 보았다. 빨갛게 익은 손등! 물에 부풀어서 허옇게 된 다섯 손가락! 산 손등에 죽은 손가락이 달린 것 같았다. 그는 전신에 소름이 오싹 끼치며 이 공장 안에 죽은 손가락이 얼마든지 쌓인 것을 그는 깨달았다.

119)

선비가 모순을 인식하고 자아를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덕호에 의한 성적 유린에서 시작하여 간난이를 통해 초보적 이해를 하고 노동자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더욱 확고해 진다.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계급 의식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난이의 도움으로 자각에 이를 수 있었던 선비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처지의 여공들을 위해 대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지만 활발한 행동으로 미처 실천해 보지도 못한 채 폐병으로 죽고 만다. 선비의 죽음은 거대한 식민지의 구조적 폭력 앞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한 개인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인간문제」의 후반부에 전개되는 다른 하나의 이야기에서 작가는 두 가지 인간상을 대립시켜 가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적하고 있다. 신철을 비롯한 의식있는 지도자적 지식인을 통해 그들의 생활 모습과

119) 위의 책, p. 257.

전향 문제 등을 갈등하는 기회주의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상경한 첫째가 신철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과 변혁 운동의 주체로서 자각하는 과정을 그렸다. 여기서 남성 노동자의 노동 착취 현장과 파업 전개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선비와 간난이, 첫째와 같은 노동자의 현실과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다.

신철을 만남으로 의식화가 되고 달라진 첫째는 '옛날의 술 잘 먹고 사람 잘 치기로 유명'한 <부랑자 놈>이 아니었다. '인간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실천하게 되었다. 이미 용연마을의 타작 마당에서 지주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준 그의 행동은 인천부두의 노동투쟁으로 연결되어 이 소설에서의 문제적 인간으로서의 암시를 보여주었다. 실패로 끝난 노동쟁의이지만 작가는 당시 현실의 모순과 역사발전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였다. 또한 선비의 애정은 첫째에게 향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 선비와 첫째의 결합에 대한 소망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결합과 단결을 상징하여 묘사된 것¹²⁰⁾이며, 무산 계층의 여성과 남성의 결합만이 자신들의 정당한 인간회복을 위한 이상적인 결합이 된다는 작가의 견해를 볼 수 있다.

선비는 어떤 힘을 불쑥 느꼈다. 그리고 간난이가 가르쳐 주는 그대로 하는 데서만이 선비는 첫째의 손목을 쥐어 보리라 하였다. 흙짐을 져서 팔아진 첫째의 등허리! 실을 켜기에 부르튼 자기의 손끝! 수많은 그리고 그 등허리와 그 손들이 모여서 덕호와 같은 수없는 인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하였다. 보라도 선비의 앞에 나타나는 길은 오직 그 길 뿐이다.¹²¹⁾

120) 송지현, 앞의 논문, p. 62.

121) 「인간문제」, 앞의 책, p. 227.

그리고 선비의 죽음을 통해 「인간문제」의 결말을 대변하고 있다. 간난이의 전을 받고 달려간 첫째에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선비가 시체가 되어 있음을 보고 인간문제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이 시커먼 뭉치! 이 뭉치는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뭉치 …… 시커먼 뭉치 이 뭉치야말로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 인간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하여 몇천만 년을 두고 싸워 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 나갈 인간이 누구일까?¹²²⁾

작가는 이 당면한 인간 문제를 풀어갈 인간은 선비, 간난이, 첫째와 같은 하층민이란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선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현실은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지배에 의해 가속된 궁핍이 여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피폐화 시켰으며, 봉건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이중체계의 모순이 빚는 횡포 속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억압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봉건적 가부장제는 여성을 자신의 지배체제 안에 가두고 노동과 아들을 낳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하락시켰으며 자본주의에 의해 노동 시장에 나오게 된 여성은 더욱 가혹하고 살인적인 노동과 여성차별 및 성적 유린에 희생되어야 했다. 과중한 노동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성차별까지 더해져 여성 노동자는 이중의 억압에 고통받아야 했던 것이다. 선비가 식민지 체제 내의 각종 횡

122) 위의 책, p. 262.

포에 의해 희생되고 마는 비극의 극대화는 강경애의 여성 현실에 대한 보다 강한 문제제기의 의도라 할 것이다.

강경애의 「인간문제」에 앞서 박화성은 「秋夕前夜」에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루었다.¹²³⁾ 이 소설은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함께 궁핍한 현실에 대한 주인공의 비애가 드러난 작품이다. 지도적 인물과 체험적 요소에 의해 자기발견에 도달하는 「인간문제」의 선비와 달리 「추석전야」의 영신은 이미 빈부와 계급에 대한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박화성의 여성관이 예외없이 반영된 작품이다.

주인공 영신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두 아이의 생계를 위해 방적공장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이다. 영신이 다니는 목포의 방적공장은 「인간문제」의 인천 방적공장에서와 다를 바 없는 여성 노동 현실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종일토록 귀가 덜거덕거리는 기계의 소리와 머리끝이 터질 듯이 심한 기름 냄새, 숨이 턱턱 막히는 먼지가 가득한 공장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기계의 노예가 되어 일하지만 생계비엔 미치지도 못하는 기아임금과 공장 감독의 횡포가 영신을 괴롭힌다. 더구나 종일 기계와 싸움하기에 고달픈 그들의 몸이 그 자리를 떠나 자유의 몸이 되지만 집에는 자신만을 바라는 주린 식구들이 기다릴 뿐이다.

「추석전야」에서는 공장감독의 성적 희롱과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여공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으며, 영신은 동료인 양금이 이를 보호하다가 기계에 팔을 찢리고 만다.

영신은 아까 공장에서 당하던 일이 문득 눈에 보인다. 곧 조금

123) 「추석전야」는 박화성의 데뷔작으로 1925년 1월 <조선문단>에 발표되었고, 「인간문제」는 1934년 8월에서 12월에 걸쳐 <東亞日報>에 연재된 소설이다.

전이다. 공장 감독이 와서 돌아다니다가 양금이라는 처녀의 긴 머리를 쪽 잡아 당겼다. 양금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다가 감독인 줄 알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러한 짓이 한두 번 아닌 까닭이다. 그 자는 다시 양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쁜 사람이 머리가 좋소.”

하고는 또 한 번 잡아 당기고는 뺨을 만지려하였다. 참았던 양금이라도 두번째는 못 견디겠던지 머리를 툭 채어 잡아 빼며,

“왜 이래, 그것 미친놈이네.”

하며 영신에게로 피해왔다.

……… <중 략> ………

“무어 내가 미친놈이? 이놈의 가시네, 나쁜 말이 했소지바리.”

하며 양금이를 때리려 드는 듯이 쫓아왔다. 양금이는 영신의 뒤로 돌아가며,

“그래, 어제 왜 남을 건드려.”

벌써 감독의 검은 주먹은 양금의 붉고 연한 뺨을 휘갈겼다.

“요놈의 가시네(계집애) 또 말이 해봐라. 내가 어제 미친놈이난 말이다.”

하며 또 한 번 주먹이 올 차례다. 영신은 빨리 주먹을 어깨로 받아 확— 뿌리치고 돌릴 때 기계를 건드리자, 북이 튀어나와 적삼을 뚫고 왼팔을 찢었다.¹²⁴⁾

공장에서 제일 어여쁘고 귀여운 처녀 양금이는 감독에게 종종 성적인 모욕과 위협을 받고 있었다. 모욕을 참던 양금이는 감독에게 저항하였다가 폭행을 당하고 두번째 주먹을 막으려다 영신이 다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영신은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다른 여공들과는 달리 감독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신은 전일부터 빈부와 계급에 대한 반항심을 잔뜩 가지고 있었으며 더구나 감독의 평일 행위를 몹시 미워하던 터이라 떨리는

124) 「추석전야」, 박화성작품집 ; 고향없는 사람들, 일신서적, 1994, p. 48.

입술로,

“그러면 당신이 왜 먼저 그 따위 짓을 하느냐 말이야. 감독이면 점잖게 감독이나 하지 어린애들 머리를 잡아 당기며 부인들을 건들며 그 따위 못된 짓을 하니 누가 좋다고 하겠소, 그래 놓고는 당신이 도리어 때려 웅, 그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는 개만도 못하게 보이오?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이 기계에 몸이 매였을지언정 이러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당신같이 나쁜 짓은 하지 않은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녀는 독이 가득찬 눈으로 감독을 쳐다보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

“저 — 주인에게 갑시다. 내가 당신이 하던 짓을 다 말하고 결단을 낼 터이니…….”¹²⁵⁾

분에 찬 영신의 외침엔 감독이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성적 희롱이 만연화 되어 있음이 드러나 있으며, 정당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계의 부속품 취급을 받는 노동자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영신은 여성으로서 인권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감독은 지갑에서 일원 짜리 지폐를 꺼내주며 돈으로 회유하려 드는데, 영신이 돈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으나 감독을 벌줄 수 없는 현실에 서럽기만 하다.

영신은 감독이 던져 주는 더럽다고 느꼈던 그 돈조차 아쉬운 궁핍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삼년전 남편이 폐병으로 죽은 후 가장이 된 영신은 공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러나 생계비엔 미치지도 못하는 임금은 좁쌀에 안남미 밥이나마 못 짓는 날이 있고 줄라대는 아이들의 대님도 사주어야 하고 어머니의 떨어진 광포 적삼이 안타까와 민망하지만 땅세가 석달이나 밀려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어려운 살림이지만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남매를 가르치겠다는 결

125) 위의 책, p. 49.

심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지만 영이는 유치원에 빗을 내어 보내 놓은 상황이고, 경아는 월사금을 못내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추석 명절이 되어 명절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영신에겐 막막함 만이 비애를 더해 주는 것이다. 영신은 머리 속으로 필요한 돈을 셈하여 본다.

경아의 월사금 이원, 댕기 대님 모두 하여 삼 원 가량이다. 땅세가 사 원 오십 전, 내일은 다시 좁쌀과 싸라기를 사야 할 것이다. 또 명절이라고 고기는 못 해드리나마 백미 한 되는 사야 될 터인데 일 원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이나 십일 원이다. 십일 원만 있으면 우선 발등에 불을 끄겠다. 십일 원!126)

내일이면 공장에서 돈을 받는 날이다. 열흘마다 오 원씩 받는데 오 원을 받아도 육 원이 모자라는 것이다. 영신은 머리 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다 팔 것도 없다. 그러다 영신은 바느질 품 파는 친구 시어머니의 일을 갖다 하기로 결심을 한다. 갑사 저고리 하나와 적은 관사 저고리 두 개에 일 원 십 전이니 아직도 돈이 모자라지만 영신은 쭈시는 어깨를 느끼며 집을 나선다. 이렇듯 영신은 추석 전날까지 꼭 있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와 싸우고 밤에는 아픈 몸으로 샅바느질을 하여 모인 돈으로 어찌 해보려 하지만 땅 주인은 끝내 사 원 오십 전을 다 받아가고 남은 오십 전을 보며 영신은 삶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쓰러지고 만다.

영신은 사흘 전 부터 팔을 다친데다가 이틀이나 공장에 이를 갈고 다녔다. 더구나 바느질 하느라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저녁도 굶었다. 영신은 공장에서 임금으로 ‘피 값, 땀 값, 눈물 값 오 원’을 받았으나

126) 위의 책, p. 57.

집세를 내고 나면 오십 전이 남는데 그것으로 열흘을 살아야 한다. 영신의 임금은 한 가족의 생계를 잇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고된 노동은 영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마는 것이다.

영신은 '빈부와 계급에 대한 반항심을 잔뜩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죽은 남편의 동창생인 부자의 아들을 보고 고생만 하다 죽어버린 남편을 생각하며 빈부의 불평 등을 느낀다. 또한 공장 내에서 벌어지는 모순에 저항하는 영신은 현실을 자각하고 모순된 현실에 문제제기도 할 줄 아는 여성인 것이다. 그러나 냉혹한 식민지의 현실은 영신에게 궁핍과 노동의 중압감만을 더해 줄 뿐이다.

박화성의 「추석전야」는 1925년에 발표된 데뷔작으로 그가 「하수도 공사」를 1932년에 발표하기까지 7년이란 공백기간이 있었던 작품이다. 그러나 「추석전야」는 식민지에 삶을 붙이고 살아가는 궁핍한 여성의 현실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식민지의 노동현실에서 기아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및 여성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의 삶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여성노동의 현장을 실감나게 묘사한 작품이 드물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또한 「추석전야」는 「인간문제」에서 선비가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모자보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이 여성 작업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아쉬운 점¹²⁷⁾으로 남는데 반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있었던 영신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영신에게 아이들을 돌봐줄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모자보호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애의 「소금」은 공장

127) 서정자, 앞의 논문, p. 91.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다룬 작품은 아니지만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직업을 가져야 하는 여성과 직업의 이중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봉염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일제에게 잃고 중국인 지주에게 정조를 유린당하여 사생아를 낳게 된다. 봉염어머니는 아이를 지우려고 별짓을 다 했다. 그는 양젓물을 먹고 죽으려고 까지 하지만 봉염이를 생각하고 죽지도 못한다. 그러다 낳은 아이를 봉염어머니는 죽이려는 맘을 먹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유모 자리에 취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총칼이 난무하는 살륙의 현장 간도의 피폐한 땅에서 봉염어머니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자신의 아이에게 주어야 할 젖을 남의 아이에게 빨리우고 자신의 아이는 명만 유지한 채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다. 생존의 절박함 앞에서 어머니는 두 아이를 보호할 수 없고 두 아이는 어머니를 찾다 굶주림과 병으로 죽고 만다. 봉염어머니는 직업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보살펴야 하는데 어머니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에게 처한 이중의 역할이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생산노동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가사 노동이나 육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노동의 문제를 보여준 작품이다.

지금까지 다룬 「인간문제」, 「추석전야」는 여성문제와 노동문제를 제기한 작품으로 작가의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식민지 현실 앞에서 궁핍과 빈부의 문제를 보다 더 부각시킬 수 밖에 없었음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조혼과 성의 상품화

궁핍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를 포함하는 이중구조를 보이는 여성작

가의 작품들 중에서 표면의 주제는 궁핍이지만 이면엔 여성의 비극적 운명을 고발하는 작품들을 보게 된다. 1930년대의 궁핍한 시대에 여성은 상품화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비극을 겪게 되는데 비록 원인은 생존을 위협하는 궁핍이었으나 여성은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작가들의 작품에 많이 등장하고 있음은 이러한 비인간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구나 팔려가는 여성은 저항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은근히 기대를 하는 쪽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은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아버지는 딸을, 남편은 아내를 아무런 갈등없이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이것은 궁핍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역설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강경애, 박화성, 백신애 세 작가의 작품에도 성의 상품화에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때로는 부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여성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당시 하층민 여성이 겪어야 했던 인권유린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의 상품화 현장이 그려지고 있는 작품은 강경애의 경우 「어머니와 쌀」, 「지하촌」, 「同情」, 「麻藥」이며 박화성의 경우 「온천장의 봄」, 「중국어날」 백신애는 「복선이」, 「少毒婦」에서 조혼의 비극을 그려내고 있다.

성의 상품화가 주된 사건으로 그려지는 「同情」과 「麻藥」은 여성의 비극적인 생이 강조되고 있다. 「同情」에는 나이 열 두 살에 부모의 빚 때문에 팔려가 비극적인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산월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동정」은 식민지하 성행하였던 매음행위의 실상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설이다. 경제적인 핍박에 시달리는 여성은 상품화되어 인육시장에 팔려나가게 되었으며 자식으로서 효행만 강조하고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무시하는 봉건도덕이 부모와 가족의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딸과 아내를 매매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더욱 매춘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여 1930년대에는 조선의 빈곤과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조선인 매춘부가 늘어갔으며, 개항후 이미 성행하기 시작한 공창제도가 더욱 만연화 되어갔다. 여기에 사창까지 합세하여 유괴 및 부녀자 납치 등의 악랄한 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이다. 128) 산월이의 경우도 중개업자를 통해 인신매매되어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신세인 것이다.

“고향은 황해도 풍천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를 열두 살에 팔았답니다. 지금 생각하니 빗 값에 그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때나 폐를 쓰고 안갔더라면 어찌되었을는지. 그러나 저러나 안가구야 백이는 수가 있으야지 후……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사람만 딸아가면 이 밥에 고혼 옷을 준다면 나를 멀리다 못해 회차리를 해갓이고 날 작구 따렸다고. 그러니 어떻게요. 나는 앙앙 울면서 낯선 사나이를 딸아 나섰지요. 나는 한발거름에 주저하고 두발거름에 앙탈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우리집 울뒤의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밝앙게 익었구레. 그래서 펄석 주저앉고 울다가 아버지한테 되게 얻어맞고야 일어났죠. 난 지금도 그 대추가 생각나요.”¹²⁹⁾

산월이를 산 수양 아버지는 소리를 가르쳐서는 다시 요리집에 팔아버리고 산월이는 다시 또 팔려다니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매춘부가 되고 만다. 손수 옷을 지어 입으며 갓은 애를 다 쓰건만 빗은 나날이 늘어가 처음에 팔려올 때는 삼백원이었는데 용정으로 온 지금은 오백원으로 불어서 매춘부 노릇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던 산월이에게도 애인이 생겼는데 산월이는 손님에게 받은 돈을 푼푼이 모아 그에게 건네 주며 혼인을 약속하지만 그 남자는 산월이

128)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앞의 책, p. 68.

129) 강경애, 「동정」, 청년조선, 1934. 10, p. 120.

를 배신하고 다른 여학생과 혼인하고 만다. 「어머니와 딸」에서 기생인 산호주가 한 남자에게 정성을 다하였다가 그 남자가 여학생과 결혼함으로써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와 비슷한 설정이다. 산월이는 주인에게 심한 매를 맞고 도망쳐 나왔지만 도움을 주겠다던 사람(서술자 '나')에게 거절을 당하고 우물에 빠져 죽고 만다.

산월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은 경제적 궁핍 때문이었다. 어린 자식을 팔게끔 몰아가는 식민지의 궁핍이 얼마나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 또한 인간의 의식세계를 얼마나 피폐화시키고 분열시키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산월이는 시대적인 비극에 희생되는 여성의 기구한 운명을 표상하는 인물이며 매춘부로 여기저기 팔려 다니는 산월이는 상품가치 밖에 없을 뿐 인간으로서의 권리같은 건 없다. 그러나 산월이는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홍! 매소부 매음부 아시지요!”

그의 입은 삐죽하면서 비웃음을 가득 띠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뭐라고 할 말을 잊으며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계집이라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 <중 략>

“.....그저 평생 이 노릇이지요. 어젯밤도 과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인놈이 이렇게 때렸다고. 물 길리고 빨래도 시키고 동자시키고 또 그 노릇시켜서 돈 벌어 쳐넣었지요.....이 세상은 언제 망할까요. 그저 대포로 모두 쿵쿵 썩 버렸으면.....” 그의 눈에 불이 번뜻 일어났습니다.¹³⁰⁾

매춘 여성의 상황은 매우 비참했다. 포주는 일상적으로 매춘 여성들

130) 앞의 책, pp. 119~121.

에게 잔혹한 학대를 가하였으며,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구타하거나 밥을 굶겼고 도망가고 싶어도 24시간 감시원이 감시를 하므로 사실상 도망하기가 어려웠다. 창기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1,000원의 배상 혹은 포주의 종신 부양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 내에 몸값을 치루고 벗어나는 경우는 몹시 드물었다.¹³¹⁾ 산호주도 빗은 오히려 더 늘고 포주에게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작가는 당시 매춘여성의 문제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여성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강경애는 「마약」에서도 극심한 궁핍과 여성을 무시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빗은 여성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실직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다가 끝내 마약 중독자가 된 남편이 아편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를 중국인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보득 어머니는 자식과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에 탈출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고 마는 결말을 보여 준다.

보득아버지는 일제가 만주사변 이후 효율적인 제국주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만주지역에 아편을 의도적으로 살포하였는데¹³²⁾ 여기에 희생된 인물이다. 실직으로 인해 빈민하다 등록한 아편쟁이가 된 보득아버지는 상점에서 도적질하다 들켜 매를 맞기도 하고 아내를 중국인에게 팔아 넘길 정도로 타락한 인물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질서에서 보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부인에 대한 독점권은 절대적이며 여자에게 있어서 정조란 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매춘을 시키는 설정은 더욱 비극적이며 지극히 비정상적인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어찌할 도리 없는 극심한 빈궁의 상

131)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앞의 책, p. 68.

132) 金貞華, 「강경애 소설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1, p.120.

태에서 그들이 취하게 되는 비윤리적 행위는 식민지 시대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작가는 보듬어머니로 하여금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도록 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식에 대한 강한 모성애를 보여주고 남편의 비인간적 행위조차 감싸 안도록 하고 있다. 남편이 자신을 팔아 넘긴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원망하기 보다 어린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보듬어머니의 현실대응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투명한 현실 인식은 여성을 비극적 삶에 더 가두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보듬어머니를 궁핍하지만 자식과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불행한 현실을 용서하는 여성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가 자신의 모순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은 적극적으로 저항한다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겪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더 강하게 표출된다. 보듬어머니가 끝내 남편과 자식을 보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은 사실 여성으로서의 인간성 회복을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작가가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의 치열함을 보여 준다.

매음문제는 이미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비참한 경제적 상황이나 봉건적 가족제도와 관련이 깊은 사회문제였으며 여성의 지위를 더욱 하락시키고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중요한 여성의 문제이다.

강경애의 소설인 「지하촌」과 「어머니와 딸」에서는 부분적인 일화로서 인신매매의 현장을 폭로하고 있다. 「지하촌」은 식민지의 극에 달하는 궁핍의 현상이 배경이 되고 있는 소설로서 빈궁여성의 비참한 현실상이 폭로되고 있는 소설이다. 극심한 노동과 질병에 시달리는 '지하촌'의 여성들 중에서 가난한 부모에 의해 팔려가는 여성이 등장한다. 주인공 칠성이가 유일한 삶의 희망으로 여기고 있는 옆집의 장님

처녀인 큰년이다. 큰년이는 소경으로 살면서 집안의 가사 노동을 도맡아 하다가 아버지의 결정으로 읍내의 자산가에게 씨받이로 팔려가고 만다.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 운명이 결정나는 것이다. 칠성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큰년이에게 용기를 내어 묻는데 큰년이는 “내가 아니 아버지가 알지”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재차 묻는 칠성이에게 큰년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푹 쉴 뿐이다. 더구나 읍에서 무슨 장사를 해서 돈푼깨나 있는 집에 아들을 낳기 위한 여나쁜이 넘는 첩종의 하나로 팔려가는 큰년이를 보는 시선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이다.

“.....참 큰년이는 복 좋아 글썄 이런 꼴 안 보렘인지 어제 시집갔단다.”¹³³⁾

씨받이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조차 ‘복 좋은 일’로 여겨지는 비정상적인 인식은 당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처참한 현실이며 궁핍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인 하나의 풍속도였다. 그러나 이렇듯 여성을 가부장적 남성위주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사고 파는 행위는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와같이 모순된 남성원리에 의해 매매되는 여성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딸」에도 등장한다. 가난한 집안을 위해 첩으로 팔려가는 엠분이도 큰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이다. .

박화성은 「중갓날」과 「온천장의 봄」에서 성이 상품화되는 문제를 그리고 있다. 한결같이 가난때문에 빚어지는 여성의 비극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중갓날」에서는 자식을, 「온천장의 봄」에서는 아내를 돈받고 파는 상황이 각각 벌어지고 있는데 「중갓날」에서 금례가 목포

133) 강경애, 「지하촌」, 앞의 책, p. 296.

의 술집으로 팔려가게 된 건 「동정」에서 처럼 부모의 빚 때문이다. 면화공장에 다니다가 허리를 다쳐 반신불수가 된 채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금례는 팔려가게 되었다. 「중굿날」은 금례가 팔려가게 되기까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같은 동네 술장수 칠순아버지의 소개로 용하다는 의원을 데려다 침질을 했건만 병은 낫지 않고 빚만 태산같이 늘었다. 그런데 빚으로 의원을 쓰게 했던 칠순아버지가 이번엔 제가 나서서 백원을 얻어다가 의원 돈을 갚고는 그 값으로 금례를 목포 술집에다가 일년간 두었다가 데려오면 그만 아니냐고 우기는 것이다. 일부러 빚을 지게끔 만들고 금례를 팔려가지 않고는 못 견디게 몰아간 것이다.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술장사 칠순아버지는 매춘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실제로 매춘업자 뒤에는 중개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금례의 애인 국범이가 돈 백원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약속한 날이 되기도 전에 서둘러 금례를 데리고 목포로 떠나 버리는 데서 드러난다.

그러나 이렇듯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들의 대응양상은 의외로 담담하다. 당사자인 금례는 팔려가게 된 현실이 싫고 옳은 일이 못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한편으론 지긋지긋한 가난만이 있는 섬을 벗어나고 싶은 맘이 간절하다. 그리고 호기심에 끌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정작 팔려가는 주인공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태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의아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작중 인물들이 상식을 벗어난 태도를 취하게 하는 상황 뒤에는 극심한 가난이 있다.

쫄보리밥! 보릿 방아! 보리가루 죽! 이것은 호강스러운 생활이었다. 풀잎나물! 해초죽! 게 잡아다가 삶아 먹기! 그런 것 먹고 나서

설사질 하기!

이제는 그만 지만 그 노릇도 하고 싶었다. 바닷바람 때문에 툭툭 터지는 얼굴과 손등에 향내 나는 구라분도 바르고 싶었다. 살이 비죽비죽 나오는 헌 누더기를 벗어 버리고 윤이 찌르르 나는 인조 비단 옷도 입어보고 싶었다.

작년에 목포로 팔려 갔다가 열 달 만에 어느 부자의 첩으로 들어 갔다는 용순이가 저번날 친정에 다니러 온 것을 보니까 머리에 금불이로 두건을 하고 몸에는 비단 옷이오 거뿔게 꼬슬렀던 얼굴과 손이 분결같이 고아지고 살이 오동포동 찌서 아주 훌륭한 새 아씨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금례의 맘은 고무 풍선처럼 들뜨려 하였다.¹³⁴⁾

빛을 갚기 위해 자식을 파는 부모나 팔려가는 처녀 금례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윤리 도덕 쫓은 무시하고 싶은 것이다. 처녀를 사고 파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은 용순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인데 용순이 역시 인신매매의 희생자이지만 이러한 일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처리함으로 작가는 만연화되어 있는 여성의 상품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화성은 식민지 지배가 낳은 부조리를 팔려가는 금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 운동가로 보이는 국범이가 야학 선생으로서 금례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이는데 금례가 의식의 자각을 보이는 대목은 없다.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저항의식은 국범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후기로 갈수록 이념의 드러남이 암시에 그치거나 소극적인 형태를 띠게 하는 박화성의 창작방법이기도 하다.

여성의 상품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온천장의 봄」이다. 주인공 명례는 오십이 넘는 영감님의 첩인데, 이미 영감님에게 팔려오기 전 남편에 의해 여관에 팔려 온 신세였다. 명례는 시가의

134) 「중국날」, 박화성창작집 ; 홍수전후, 백양당, 1948, p. 110.

가난 때문에 돈 이십 원에 팔려와 사나운 여관주인 밑에서 고생하다가 여관 손님으로 가장한·중매장이에 의해 지금의 영감님 첩이 된 것이다. 명례는 본처에게 심하게 매를 맞아 독풀이도 할겸 해서 유성온 천에 온 것인데 온천탕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만나게 된다. 「중굿날」에서 처럼 또 다른 인신매매의 현장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직업적인 중개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어염집 부인같이 앓은 여인 한사람이 더부살이로 보이는 각씨를 데리고 들어왔다.

“어서 먼저 감어라”

하고 여인은 각씨 몸에다가 물을 끼얹어 주었다.

각씨가 머리를 푸니까 때가 기름에 절은 냄새가 획 끼쳤다.……

..

“인제 내일 밤부터라도 손님을 뵈실테니까 머리로 잘 감구 몸에 때두 잘 밀어”

여인은 각씨에게 또 한번 물을 끼얹어 주었다.……

“그럼, 너만 내일· 잘 몸을 빼쳐 나와서 전에 말하던 자리에만 와있어. 우리가 자동차로 실어갈테니.……”

하고 거침없이 말하던 여인은 스스로 깜짝 놀라더니만 명례를 뵈 — 히 돌아보다가 그에게서 아무런 위험성을 찾지 못하였던지 다시 말을 계속한다.¹³⁵⁾

명례를 여관에서 빼돌려 영감님의 첩으로 판 중매장이도 한달간 여관에 묵으면서 날마다 명례를 데리고 목간통에 다녔다. 그러다가 여관에서 도망쳐 나와 첩이 되었는데 온천에서 만난 여성의 경우도 명례와 비슷하다.

135) 「온천장의 봄」, 앞의 책, pp. 80~81.

“너이 여관집 주인 마님은 정말 악하더라. 거 어떻게 이날꺼정 배겨났니? 너 인제 네세상 본다. 얼굴이 저만 하니 수단만 좋으면 못사내들의 사랑을 맘껏 받을게야”

여인은 또 각씨에게 속삭였다. 여인의 얘기 소리를 들으면 각씨는 그의 여관집 더부살이임에 틀림없으나 못사내 들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명례 자기처럼 영감님의 청을 받아 중매쟁이가 되는게 아니오 아마 어느 술집으로 데리고 가나부다 생각하니 각씨가 가엾게도 보였다.¹³⁶⁾

그러나 명례는 자신처럼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중매장이가 과히 밍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명례의 무지함은 중매장이에 대한 생각에서 뿐 아니라 자신을 여관에 팔아버린 남편을 떠올리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그때만 해두 어디 그이가 그러고 싶어 그랬나. 시어머니가 다 저질러는 일이니께 허는 수 없어 그랬지. 좌우간 그 돈 갖다가 시아버지 일이나 무사히 됐으면 좋을 텐데. 그 후로는 영 — 소식두 모르고 나는 석달 살다가 도망와 버리고 말아버렸으니 뭘.”¹³⁷⁾

명례는 남편과 시댁에 원망도 하지 않으며 아내를 팔아버린 남편도 이미 남편으로서의 존재는 없으며 명례 역시 남의 첩이 되었으니 정상적인 부부 관계의 윤리는 파괴되고만 상황이다. 도덕이나 양심의 부재 시대가 되어버린 혼란스런 식민지 사회의 한 단면인 것이다. 궁핍과 남성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수난 중의 하나인 인신매매의 문제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명례는 끝내 여관주인과 마주치게 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돈에 의해

136) 위의 책, p. 82.

137) 위의 책, p. 74.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정한 현실에 오열하다 도망을 결심하면서 끝이 난다.

박화성 작품이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가 남성을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인데 「중굿날」에서는 금례를 구하고자 애쓰는 국범이 있으며 「온천장의 봄」에서 명례를 산 영감님도 명례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그리고 결말 역시 비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강경애나 백신애의 경우는 남성이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으며 결말도 매우 비극적이다. 「동정」이 산월이나 「마약」의 보듬어머니에겐 호의적인 남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끝내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다. 백신애의 「복선이」와 「소독부」의 어린 각시도 비극적인 결말을 겪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한 두 작품에서만이 아니라 작품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데 이는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나 창작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백신애는 「복선이」와 「소독부」에서 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농촌여성의 결혼은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는데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빈농의 경우는 15세 미만의 조혼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 때문에 몇 푼의 돈이나 쌀에 팔려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하였으며 첩이 되기도 하였다. 백신애는 조혼이 빚어내는 어린 각시의 비극을 묘사함으로써 여성의 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복선이」와 「소독부」의 두 여주인공이 14살의 어린 각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다. 14살의 어린 여자를 시집보내게 되는 행위는 경제적 곤란이란 이유하에 아내와 자식을 파는 인신매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울타리 밑에서 동리 아기들 소꿉놀이에 서 투른 어린 솜씨로 만든 <풀각시> 모양 그대로인 복선은 가난때문에 최서방에게 시집오지만 너무 어려서 보는 사람들은 모두 어린 각

시라고 웃을 정도였다. 그러나 가난한 빈농의 딸이었던 복선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을 해야 했다. 더구나 복선이의 언니인 복련이도 14살에 시집갔다가 불행히 시들시들 마르기 시작하더니 단 일년도 못되어 애처롭게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복선이의 부모는 복선이도 일찍 보냈다가 복련이처럼 죽게 될까봐 많이 키워서 시집 보내려 하였으나 딸이 다섯이나 되고 보니 조금 그림직한 혼인 말이 나면 두 귀가 번쩍 열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최서방에게도 반기듯 용하여 말 한마디에 시집보내고 만 것이다. 한 입이라도 덜어야 하는 가난때문에 복선이는 결혼하면 어떻다는 것도 모른 채 시집가고 말았다.

복선이만 해도 나면서부터 오늘까지 보리밥덩어리라도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했고 굶주림에 절여진 그다. 시집을 가면 일도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밥도 많이 먹어 볼 수 있고, 그뿐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먹던 몇 숟갈로 동생들의 배를 채운다 하여 시집가면 어떻고 어떻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몰랐었다.¹³⁸⁾

그러나 나이찬 남편이 밤마다 추근거리는 성적 고통을 겪으며 복선이는 일은 고달프고 배는 항상 굶주려도 동생들과 용기종기 누워 자던 옛날을 그리워 한다. 복선이는 성적부담에 시달리지만 시어머니도 인자하고 살림도 나아져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간다. 그러다 복선이가 시집온지 두 해 되는 팔월 초순 추석빔으로 비단 저고리를 떠다 주겠다고 나간 최서방은 그날 정미소 기계에 치어서 즉사하고 만다. 극도의 궁핍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이 죽게됨으로 비극적인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여성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복련이는 1년

138) 백신애, 「복선이」, 申熙千편, 불꽃의 여자 백신애, 보성, 1987, p. 47.

도 채 안되어 죽고말고 복선이는 16살에 과부가 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소독부」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조혼의 폐단을 다루고 있다. 어린 각시의 성적 갈등과 당시 신문 지상에 종종 등장하던 어린 소부(少婦)의 자살과 방화, 남편 살해 등의 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소독부」의 색시도 14살의 어린 나이에 최서방에게 시집와서 ‘시집오던 날부터 무섭고 괴롭고 하여 울며 이를 갈면서도 시집오면 으레 그런 것으로만 알고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꼬박꼬박 아내 노릇을 해왔다.

스물 일곱 살인 최서방의 무시무시한 성욕을 반항없이 받아오던 색시의 가슴 속은 최서방이 무섭고 다만 키 크다고 시집 보내 준 그의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남편이 무섭다는 말을 그의 부모에게 할 수 없었다.

“왜 무서워?”하고 물으면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서방에게도 그 무섭고 슬픈 뜻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당장 쫓아 보내든지 때리든지 할까 봐 겁이 났다.
139)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결혼을 한 어린 색시의 성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생활이 어려워수록 여성은 결혼 연령이 내려갔는데 이러한 조혼의 경우 대부분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되곤 했다. 이러한 때 여성은 15살 이하의 어린 나이인데다 남편과 연령차가 컸기 때문에 노동이나 봉건적 인습 그리고 성적 부담 등이 클 수밖에 없었다. 「소독부」의 어린 색시도 남편과 13살의 나이 차가 나고 있는데 색시에게 남편은 무서운 존재일 뿐이며 조혼을 당한 여성으로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색시에겐 고민이 하나 더 있다. 시집오기

139) 위의 책, pp. 177~178.

전 같은 동네에 살던 갑술이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갑술이는 색시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색시 나이가 열 대 여섯이 되면 장가를 들려고 했던 것인데 이웃 동네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색시는 부모에 의해 조혼을 당하고 말았다. 갑술이는 머슴살이도 그만두고 나중에는 색시가 사는 동네로 이사해 들어와 색시의 주위를 맴돌며 불쑥불쑥 색시를 찾아오곤 했다. 갑술이의 끈질긴 구애는 색시를 갈등하게 하고 남편과 비교하여 갑술이에게 마음이 가기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무섭고 싫은 남편이긴 하지만 사회적 윤리 도덕을 깨뜨릴 수는 없는 일이었으며 그럴만한 용기도 색시에겐 없었다. 더구나 ‘아직 열 다섯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인 색시로서는 건디어 내고 판단해 내기에는 너무 무겁고 어려운’ 사랑의 갈등이었다. 이 어린 소녀는 방안에 쪼그리고 앉아 울다가도 엇장수 소리에 엇을 바꿔 먹으며 금방 헤헤 웃기까지 하는 어린 소녀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애정의 갈등이 빚은 결말은 갑술이가 색시의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끝나는데 어린 색시는 순식간에 범죄의 공모자가 되어 주재소로 끌려가고 만다.

“아이구, 무서워라, 암상긋기도 하지.”

“글쎄 말이지. 열 다섯 살밖에 안 먹은 계집년이 사나이를 죽이다니!”

“아니 갑술이놈 하고 언제부터 붙었는고……. 서방질을 하다니……그런 죽일 년이 어디 있소.”

“아이구, 무섭고 독한 년.”

“년놈이 의논하고 죽인 게지 어린 년이 어찌면…….”

동리는 물끓듯 소란한 가운데 색시는 갑술이와 뽕뽕 묶여서 순사 두 사람에게 끌려 그 멧드러진 향나무 서 있는 샘터를 왼편으로 끼고 돌아 주재소로 갔다. 이리하여 간부와 공모하여 남편을 독살한 십 오세의 독부가 생겨났다.¹⁴⁰⁾

140) 위의 책, pp. 178~179.

「소독부」는 조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本夫 殺害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죄없이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어린 각시의 모습은 당시 여성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호받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였나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자신의 의지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전통적 굴레에서 억압된 채 살아야 했던 여성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백신에는 조혼이라는 인습적 제도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동정」, 「마약」, 「지하촌」, 「어머니와 딸」, 「중갓날」, 「온천장의 봄」, 「복선이」, 「소독부」에서는 궁핍에 의해 파생되는 여성문제의 하나인 조혼과 성의 상품화 문제가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처자를 팔고 꼬마 각시를 만드는 그 이면에는 가난 만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남성원리의 봉건도덕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적극성을 띠고 있지 못하지만 세 작가가 당대 여성의 현실문제에 깊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부조리한 현실을 여성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었다.

2. 남성우위 사회와 여성의 위치

전통적으로 여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 했던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했다. 여성의 삶이란 것은 철저하게 남성위주의 사회내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가부장제¹⁴¹⁾라는 모순 구조속

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으로서 자아를 찾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특히 성적으로 남성에게 짓밟히고 예속되는 무기력한 존재였다. 이렇듯 남성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독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문학작품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성중심의 폭력과 그로인해 빚어지는 오류를 지적하고 무시되어지고 억눌려 있던 여성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여성문학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점은 여성 작가들의 글을 남성적 전통과 가부장제에 의해 강제된 여성들의 침묵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세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여성의 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전통적 여성관이란 것은 여성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에게 예속된 일부분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딸로서 아내로서 또는 며느리로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해 내지 못하고 현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채 살아가는 구 여성의 문제를 그린 작품으로 백신애의 「狂人手記」, 「어느 田園의 風景」,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박화성의 「비탈」 등을 들 수가 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가부장제적 지배하에 복종하여 왔다. 그 권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했지만 전통적으로 가족내에서 가

141) 가부장제(patriarchy)란 남성이 높은 지위에 놓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성이 낮은 지위에 놓이는 사회제도로 이 용어는 남성집단이 여성집단을 지배하는 권력구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정치적 개념이다.('페미니즘용어사전', 현대시사상, 1991. 봄, p. 144 참조).

장에 대한 예속적 의미는 높았다. 더구나 가계를 계승하는 중심 인물인 남성과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여성사이에는 커다란 신분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는 家長인 아버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에 대해 복종해야 했는데 아버지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적 관계로 존재한다. 결혼 후에는 역시 남편의 권한하에 예속되어 인내와 체념을 강요받게 되는데 결혼 후 며느리로서의 지위는 더욱 하락하게 되어 시누이나 시동생에게조차 존대해야 하는 지위가 되고 孀家の 식구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적대관계가 형성되며 며느리는 더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고부간 갈등의 문제를 통해 전통적 가부장제의 문제점이 강하게 드러난다.

여성해방의 움직임이 일어난 이래 1930년대의 여성의 삶 자체나 법적 지위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형식상으로나마 향상된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으며 전통적 관습의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여성의 현실은 아직 어두웠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관습의 벽과 식민지 체제의 법적 지위 그리고 교육의 부재 등은 여성에게 있어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여성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

「狂人手記」, 「어느 田園의 風景」, 「어머니와 딸」에서 교육不在에서 오는 여성피해의 모습과 봉건적 관습에 수난받는 구여성의 문제가 그려지고 있으며 「비탈」에서 역시 여성교육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백신애의 「狂人手記」는 순종과 희생만 알고 살아왔던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에 의해 정신착란까지 일으키게 되고 다리 밑에서 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독백형식의 소설이다.

열 일곱 살에 부모의 명령에 따라 남편의 얼굴도 모른 채 시집와서

남편이 동경으로 유학간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진 구박 속에서 쫓겨나 친정에 가 있다가 남편이 귀국하여 같이 살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무슨 '주의자' 행세를 하는 까닭에 몇번이나 감옥에 드나들며 갖은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남편을 위하고 자식 셋을 기르느라 마음 편할 날 없이 20년 세월만 흘렸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신여성과 정을 통하여 그 동안 자신의 삶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

가부장제 제도 속에서 며느리는 부당한 대우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매서운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이 소설에는 고부간의 갈등을 통한 여성의 문제도 제시되고 있는데 남편이 동경 유학을 떠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세하여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이다. 더구나 시누이는 시집간 첫날 남편이 전처에 아들이 없어 속여서 첩장가 든 것을 알고 그날로 신랑과 인연을 끊은 여자였다.

그런 시누이를 여성의 입장에서 동정하였는데, 시누이는 며느리를 몰아붙이는 것이다. 시누이의 행패는 극심하였고, 시어머니까지 가세하여 '죽으라면 죽고 때리면 맞고 인형같이 있는' 며느리를 쫓아내고 만다. 여성은 남편의 식구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와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에도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으므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빌고 또 빌었으나 끝내 쫓겨나게 되고 친정으로 가지만 친정아버지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봉건적 윤리도덕의 입장에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옷 보통이를 싸가지고 밤길을 나오는 그런 딸을 둔적 없다. 아마도 너는 이 밤중에 시집에서 쫓겨나온 것이 분명하다. 한번 시집가면 그 집에서 죽어서 나오는 법이지 살면서 시집에서 나오는 딸을 맞아들이지 못한다.” 하고 당장 쫓아냅니다.……<중략>……그래서 할 수 있나요. 그 길로 또 삼촌 댁으로 갔지요.

이 집에서야 또 쫓길라구요.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숙모님 같이 좋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뒤미처 어머니가 달려와서 또 나의 편이 되어 주더군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누이, 우리 아버지 세 사람이지요. 시아버지도 살아있었다면 이 세 사람보다 더 무서웠을지도 모르지요.¹⁴²⁾

딸의 상황을 고려해 보려는 여지도 없이 문전박대를 하고 마는데 전형적인 우리 나라 전통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한 앞에서는 복종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시어머니, 시누이 만큼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여주인공이 정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는 교육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란 '단지 한문 글씨나 배웠을 뿐'으로 전근대적 가정 분위기 내에서 신식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고 '얕전한 색시'가 되는 교육이 전부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주인공은 교육받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이유로 동경유학생인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뺨박받는 처지가 된다. 남편과 금실이 좋다는 이유로 남편이 없는 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겪다가 남편이 돌아온 후 다시 탈없이 살 수 있었으나 그것으로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고 새로운 남편의 구박을 겪게 됨으로 여성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무엇이 어쩐다고? 무식한 계집이란 할 수 없다니까. 그래 네가 자식을 얼마나 훌륭하게 낳았기에 배운 것도 모르는 멍텅구리 같

142) 백신애, 「狂人手記」, 앞의 책, pp. 154~155.

은 자식놈인가 말이다. 계집이 건방지게 사나이를 아이 새끼들 앞에서 꾸짖고 야단이야…….”¹⁴³⁾

“밤 늦게? 누가 말이야? 간밤에도 내가 일찍 돌아왔는데 그래 날 보고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면서 저는 초저녁부터 잠이나 자는 거야? 무식한 계집이란 아무 소용도 없어. 자식 교육을 할 줄 아나 ………. 밥이나 처먹고 서방만 밝히지 ………. 어미의 마음이야 천상 금수나 다름 없지 뭔가?”¹⁴⁴⁾

남편의 구박에 아내는 참는데, 다시 ‘주의자’를 시작한 것이라고 믿는 아내는 남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뒤를 따랐다가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에— 듣기싫소. 그까짓 돼지 같은 여편네의 속에서 나온 자식 새끼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중 략> ………

“내가 열 여덟 살 때 부모님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강제 결혼을 한 것이니까! 나는 그를 한 번도 아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¹⁴⁵⁾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싶어서 거짓으로 하고 있는 말인 줄은 알고 있지만 남편을 하늘같이 믿고 자식과 시가에 헌신하여 온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식 신랑과 전통적 교육이나 또는 그마저도 받지 못한 구식 신부와의 결혼은 한국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하나의 전형적 결혼형태¹⁴⁶⁾였는데 이와 같은 결혼은 비극을 낳는 요인이 된다. 『狂人手記』에서도 근대적 사상을 가진

143) 위의 책, p. 158.

144) 위의 책, p. 160.

145) 위의 책, p. 162.

146) 金亭子, 한국여성소설연구, 民知社, 1991, p. 202.

남편은 구여성인 아내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방식의 생활을 누리는데 부적당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신식교육을 받은 신여성과 만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모두들 무지하니까 나는 지적으로 너무나 목말랐 더랍니다. 아내란 것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빨아주고 밤이 되면 야수같은 본능만 아는 그런 여편네와 20년이란 세월을 살아왔구료. 아무 감격도 신선함도 이해도 없는 그런 부부생활이었어요. 당신까지 나를 이해 못하고 그러십니까? 그 여편네는 나에게 무지하기를 원하고 생활이 평안하도록, 일하는 남편이 되기 원하며 자식에게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종이 되기 원할 따름이에요.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어느 곁에 나를 위한 삶의 시간을 갖으란 말인가요.”¹⁴⁷⁾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희생과 인내만이 강조되고 남성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열려 있던 남성 우위의 사회적 상황이 강조되고 있다. 남편의 외도에 있어서도 여성은 닫혀진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지 보다는 ‘대체 어찌된 셈인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어.....’와 같이 정신착란의 상황 뒤로 숨고 만다. 그리고 작가는 이 여성에게 닥친 현실을 남편이 내 놓은 <수수께끼>로 남김으로 구체적 행동의 모습은 보여 주지 않는다.

이렇듯 이 여성은 남편을 비롯한 억압된 현실을 저주하면서도 강한 모성에 끌려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불평등 구조와 이기적인 남성중심사회의 횡포에 수난받는 구여성의 비극은 당시 여성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기 어린 이 여인의 하늘을 향한 항변은 억압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여성의 인

147) 백신애, 앞의 책, p. 163.

권선언인 것이다. 「광인수기」는 남성지배 원리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남성인물에 대한 백신애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法律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어느 田園의 風景」은 법률의 허구성과 함께 이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구여성의 문제가 깔려있는 작품이다. 부자인 시아버지 김상렬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믿을 수 없으나 법률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에게 닥친 두가지의 문제를 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려 하는데 하나는 거액의 보증에 대한 책임문제이고 두번째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초행에서 돌아 온 이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친구와 공모하여 이 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오히려 친구의 간계에 빠져 들게 됨으로 법률의 허구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며느리를 멀리하고 이혼을 요구한다. 김상렬은 아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갖은 수단으로 달래 봐도 효험이 없었다. 그러는 중에 딸을 낳았는데 김상렬은 아무래도 이혼을 시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아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난 후 아무 말 없이 동경으로 달아나고 말았으며 이혼을 시켜주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소식만 보내고 삼 년이 되어도 귀국하지 않았다. 김상렬은 차차 마음이 변하여 얼른 이혼을 시켜버리고 싶었으나 며느리가 순순히 이혼해 주지 않을 것이며 또 법이 있으니 이유없이 쫓아낼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시부모의 이런 생각이 날로 얼굴에 나타나자 며느리도 처음같이 유순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시부모가 마음대로 며느리를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법률 때문이었는데, 이는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부당한 이유로 이혼을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여성계몽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김상렬은 친구를 찾아가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친구는 법률을 이용하여 며느리를 내 쫓는 계책을 가르쳐 준다. 법률에 걸리지만 않

으면 되니, 며느리를 회유하여 이혼도장만 찍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몹시 위하는 척하며 친구가 일러 준 계교대로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는 당장에 그 계교를 쓰겠다고 야단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차마 며느리를 속이기가 가슴이 아팠다. 그러던 중 보증 서준 책임이 없어질 때까지 전 재산을 잠시 친구의 명의로 해 놓았다가 책임이 없어지면 찾아가라는 간계에 빠져 전 재산의 명의를 옮기는 수속을 마치게 된다. 시아버지는 한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가벼운 마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 준다.

“아무리 친하신 사이시드라도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하오면 전 가산이 이정환 씨 명의로 있게 되오니 염려올시다. 아무 증인도 없는데……아니올시다. 설혹 증인이 있다드라도 벌써 법률적으로 뚜렷이 그분의 것이오니 그분이 만일 마음을 잘못 쓰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며느리의 얼굴이 푸르러졌다.

“응?”

상렬은 심황후를 만난 심봉사처럼 두 눈이 활짝 뜨인 것 같아 벌떡 일어났다.¹⁴⁸⁾

며느리의 시아버지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사리 밝은 말에 허겁지겁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게 된다.

이 작품은 앞의 작품과 같이 교육을 받은 남편이 본처를 박대하는 결혼생활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으며, 며느리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고 내쫓으려고 간계를 꾸미는 시부모의 모습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육을 못 받고 법에 무지했던 탓에 수난 받아야 했던 여

148) 백신애, 「어느 전원의 풍경」, 한국현대문학전집 V, 삼성출판사, 1978, p. 108.

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여성 자신도 자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작품이다.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에도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구여성의 비극이 그려지고 있다. 「어머니와 딸」은 강경애의 초기 소설로 첫 장편소설이기도 하다. 강경애의 작품에서는 식민지 시대 여성의 문제가 날카롭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의 실질적 데뷔작¹⁴⁹⁾이기도 한 「어머니와 딸」에서 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작가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이 연재될 당시 편집자는 “부분 부분의 섬세한 묘사 같은 것은 충분히 대가의 그것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넉넉하지만 내용이 時俗의 감렬한 米國活動寫眞과 近似하고 사건을 진행시키는데 無理와 粗漏가 많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명작가로서 누구도 손대여 보지 못한 큰 노력을 시험하고 있다”¹⁵⁰⁾고 소개하고 있는데 강경애의 섬세한 필치와 새로운 문제 모색에 대한 적극성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어머니와 딸」은 식민지 시대 여성의 삶이 안고 있는 왜곡되고 모순된 현실을 어머니와 딸의 세대간 삶의 대비를 통해 잘 꼬집고 있으며, 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넓게 볼 때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라는 기본 축을 이루고 있으나 매우 폭넓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게 될 부분은 봉건적 인습에 얽매어 살아야 했던 구여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은 어머니 세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딸의 세대인 옥이의 친정어머니와 시

149) 1931년 1월 27일에서 2월 3일에 걸쳐 조선일보에 실린 「파금」이 그의 데뷔작이긴 하지만 이것은 투고 형식이었고, 「어머니와 딸」은 추천에 의한 공식적 데뷔작이다.

150) <혜성>, 1931. 5, 편집자의 말에서.

어머니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옥이의 친정어머니인 엽분이는 남성의 폭력에 의해 비극적인 삶으로 떨어져 버린 인물이다. 엽분이는 자신을 매우 좋아하는 둘째가 있었지만, 농장의 지주인 이춘식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다. 엽분은 극심한 가난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누구나 한번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체념해 버리고 마는데, 소작인으로서 생존위기에 몰린 참담한 사정이 있기도 했지만 전근대적 현실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엽분의 사고방식과 절대적 부권아래 순종해야 했던 가부장적 남성권위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첩으로 들어간 엽분은 아들 낳는 목적으로서의 가치밖에 없었는데, 엽분이가 딸을 낳자 가차없이 버림을 받게 된다. 여성을 아들 낳는 도구쯤으로나 또는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의 비인간적 행위와 본부인의 행패는 엽분이에게 수모를 주고 학대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남성의 축첩을 통한 가정의 문제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성문제의 심각성이 그려지고 있다.

엽분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고 첩이 됨으로 정상적인 삶에서의 일탈을 가져오게 되고 부모님과 동생마저 잃는 비극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엽분은 삶을 포기한 채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만다. 한 여성의 삶이 남성위주의 가족제도와 무지로 인해 비극으로 치닫고만 것이다.

한편 옥이의 시어머니인 기생 산호주는 자신이 사생아이면서 또 사생아를 낳게 됨으로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세대의 인물이다. 한 남성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다 버림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을 피해 그의 아이를 낳아 아이만 바라고 살게 됨으로 자신의 삶의 모순된 상황을 벗어나려는 자각의 노력이 없는 세대인 것이다. 작가는

엠펙과 산호주 그리고 옥이의 삶을 통하여 식민지 시대의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들이 왜 그들의 삶을 짓밟히며 지주의 첩이 되고 또 매음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세대의 인물들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체념으로 일관한 삶을 살게 된다. 사실상 여성에 대한 불평등 구조는 여성 스스로도 느끼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보편적 이데올로기로 내면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경애를 비롯한 여성작가들은 여성의 문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명확히 인식하고 작품화 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와 딸」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로 내면화된 불평등 구조는 딸의 세대에 와서 자각에 이르게 된다.

일부분을 차지하기는 하나 여성교육에 대한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박화성의 「비탈」에서는 가부장적 가족내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그와는 대조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수옥의 아버지 유생원은 전에는 논섬지거나 착실히 가진 호농(豪農)이었는데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도 점점 빚을 지게 되어 금융조합에니 척식회사에니 논을 저당하다가 나중엔 김부자에게 완전히 전답이 넘어가고 말았다. 일제 식민지 정책에 몰락한 농민의 전형적 모습이였다. 유생원은 수옥의 학비문제도 파산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공부를 중단 시키려 하였으나 동생 수진이 퇴학함으로 수옥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유생원을 수옥을 미워하게 되었다. 아들인 수진이를 제쳐두고 딸을 공부시킨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것이었다.

“.....누구 때문에 집안이 요 모양이 되어 가는 줄 아느냐 말이다. 웅? 저 기집안가 무엇인가 서울 보내서 공부나 막걸린가 시

킨다고 우겨서 보낸 것이 누군데? 그리고 어린 아들 버는 돈은 뭇
땅뭇땅 저 기집애 밑으로만 들어 보내고…… <중 략> ………”

“저년 서울가서 공부하는 지가 몇년이야? 벌써 칠 년째여, 칠
년. 흥, 하늘아래 나같이 딸년 밑으로 논밭 없애는 놈은 둘도 없을
것이다. 밥을 할 줄 아냐 바느질을 할 줄 아냐? 정갱이 닮는 몽당
치마나 대롱거리고 말굽 같은 구두가 뭇가만 대똥거리고 집이라고
오면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애리니하고 번번히 자빠졌기만 한단
말여…….”¹⁵¹⁾

딸을 공부시킨다는 원망은 딸에게 우호적인 수육어머니에게 퍼부어
진다. 수육은 아버지의 야단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절대적
부권앞에 묵묵부답일 뿐이다. 가부장적 가족내에서의 권위와 명령의
아버지의 모습과 양보와 인내와 포용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대
조적이다. 딸인 수육을 공부시킨다는 사실에 불만이 많은 아버지와는
달리 여성으로서 딸을 공부시켜 보겠다는 포부와 한이 어머니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내면의 자아획득을 위한 근원적 욕망의
표현인 것이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교육정책은 식민지 정책에 따라 변화
하는데 식민지 시기 내내 유지되었던 것은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식민
지 통치가 요구하는 인물을 길러내는 데 있었다. 여성교육에 대한 방
침도 가사노동에 관한 지식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빈곤과 과거로부터
여성은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온 봉건적 사고방식,
취업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상황 등으로 여성들의 교육기회는
더욱 적었다.

1930년대 이후, 적극적 교육정책을 폈으나 학교 취학률¹⁵²⁾을 봐도

151) 박화성, 「비탈」, 일신서적, 1994, p. 171.

152) 취학률이 크게 높아진 1935년도에 가서도 전국 아동의 취학률은
25.8% 인데 도시 여아는 43.4%(도시 남아 79.8%), 농촌 여아는 9.1%
(농촌 남아 38.3%)정도 였다.(여성운동사, 풀빛, 1992, p. 64 참조)

여성은 매우 적었는데, 민족차별 외에도 계층간, 남녀간, 도시와 농촌간 차이가 격심하여 특히 농촌의 여아들은 거의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당시 발표된 여자교육에 대한 글¹⁵³⁾에서도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도수에 있어서도 남학생의 육분의 일 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부족 뿐아니라 여성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여성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거나 여성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갖추게 하기에는 빈약하였는데, 여성의 교육이란 일제나 남성에 의해 주도된 현모양처가 되는 교육이었고 사실상 지위향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비탈」의 수옥 역시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였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서양여성의 모습을 모방하여 다님으로 여성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교육의 결함은 민중교육기관을 통해 극복될 수 밖에 없었는데 192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들이 여성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박화성이 동반자 작가 성향의 작품을 쓴 점이나 항일 저항정신 등의 작가적 현실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봉건적 남성우위의 사회에서 여성피해의 일면이 드러난 작품 또는 여성교육의 문제점 등을 다룬 작품이었다. 이들 작품은 식민지 시대라는 억압된 특수 상황하에서 더욱 가중되는 여성의 문제가 인식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시의 여성이 가정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음이 여성작가들의 현실인식을 통해 작품으로 그려지고 있음은 중요한 일이다. 비록 구원의 지평을 제시하거나 확고한 행

153) 주요섭, 「조선여자교육사」, 신가정, 1935. 4.

동양상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지만 남성우위의 사회내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3. 여성의 자아발견 의지

여성의 자아발견, 정체성은 여성문학을 연구하는 데의 중요한 테마이다. 페미니스트 비평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글이 남성의 글과 무엇이 다른가를 밝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여성들의 경험이 남성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여성의 글에서 반복되는 이미지리와 특징적인 내용들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꾸준히 규명해 낸 사실이기도 한 여성의 작품에 드러나는 억압의 이미지나 남성적 관습에 대한 도전적 태도(30년대 여성 작가들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겪게 함으로 이러한 태도를 드러낸다) 등이다.

인간의 기본적 정체성은 어머니를 통해 형성되는데¹⁵⁴⁾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여성의 정체성은 과정을 겪으며 획득된다. 남자아이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분리되어 아버지의 역할을 선택하게 된다. 아버지와 자신이 동일시를 겪는 동안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닮아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게 되는데 여성은 남성의 경우보다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남성에게는 선택의 범위가 다양한데 여성에

154) 주디스키건 가디너,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신은경 역, 페미니즘과 문학, 김열규 공역, 문예출판사 1988, p. 222.

게 허용된 두가지 역할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불협화음을 경험하게 된다. 정체감이란 자신의 내부에서 불변성과 단일성을 가지게 되는데 정체감의 위기는 그때까지 일반적으로 지배하던 가치의 흔들림이며 위기감도 느끼게 되지만 자기를 발견하고 보다 새로운 자기상을 키우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개화, 근대화를 맞으면서 여성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봉건적 가부장제 하에 오랜 세월을 三從之道에 의해 형성된 여성의 정체감이 여성 의식의 고조와 함께 점차 위기를 드러낸다. 여성이 자신을 가두었던 고정된 틀을 벗어 던지고 변모된 자기의 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작가의 글에서 사회적 편견이나 인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지향하는 작품을 보게 된다. 1930년대의 여성으로서 또한 식민지를 살아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당대의 현실에서 자아실현의 의지를 표명해 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여성들의 자아발견 의지는 시대적 현실과 동일시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으로서의 여성상을 제시하는 경우와 자각의 경지를 넘어 보다 확고하게 여성 자신을 선언하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각 작가들이 어떠한 목소리로 자신을 확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새로운 여성관의 제시

일제 식민지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식의 형성은 더 시급한 식민지 현실 문제에 더 기울 수 밖에 없었다. 박화성이나 강경애의 경우 경제적 문제나 계급의 문제에 깊은 사상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들의 작품은 여성문제보다 식민지의 사회모순에 더 많은 영역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박화성에

게 있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박화성은 여성으로서의 제한성을 넘어서서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도 식민지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집중된다.

서양에 있어서 여성운동이 대 남성투쟁이었는데 대하여 한국의 근대 여성운동은 남자와의 대립보다는 오히려 개화된 남성들과의 동지적 유대와 협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박화성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박화성이 제시하는 여성관도 남성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동지관계로서 협조하고 받아들이며 남성에게 사상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남성과 협조하는 범위 내에서 시대적 고뇌와 궁핍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여성 자신의 발전도 지향하고자 한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의 차원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관을 확립한다.

박화성의 작품 「비탈」, 「헐어진 청년회관」, 「신혼여행」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여성관을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탈」에서 박화성은 대조적인 성격의 두 여성을 통하여 자신의 여성관을 제시한다. 그 두 여성은 소작인의 딸로서 어렵게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수옥과 지주의 딸로서 동경에 유학중인 주희인데,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집착이나 부와 허영만 쫓는 수옥은 큰 부자의 딸이지만 민족의 현실을 인식하며 계층문제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고 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주희와 대조된다. 「비탈」에서 박화성이 요구하는 여성상은 정찬을 통해 드러나는데 개화된 남성인 정찬과의 유대와 협조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의 참된 모습이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정찬은 수옥으로 하여금 자각에 이르도록 유도해 보지만 끝내 실패하고 만다. 수옥에게 하는 정찬의 충고를 통해 박화성의 여성관을 보게 된다.

“수옥씨! 이번에는말로 수옥썬 수옥씨의 사는 곳을 잘 알아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하지만 대체로 수옥썬 수옥씨의 부모라든가 고향이라든가 거리가 꽤 먼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문학교 삼학년이 아닌가요? 한 해만 더 있으면 학창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창이란, 또 기숙사 생활이란 영구한 것이 못되거든요. 그런데 수옥썬 평생 학생으로 기숙사 생활만 계속할 사람처럼 그 학창과 그 생활에 사로잡혀서 도취되어 있단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옥썬 현재의 그 환경이 눈을 꼭 가리고 있어서 당신의 좌우에 있는 실사회라든가 현실이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집에서 보내는 학비 이십 오 원의 쓸 곳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름에 돈이 오면 식비와 월사금 내고, 날마다 학교에 갔다와서는 영어단어만 외고, 그럭저럭 밤이 지나면 학교에 가고 또 돈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는 동안에 한 달이 지나거든요. 부수적으로는 예배도 보고 빨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외출도 하면서 삼년을 지내왔으니 말이죠, 나머지 일년에서 수옥씨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수옥썬 벌써 현대여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이 약간 흥분되어서 여기까지 말할 때 수옥은 혼잣말처럼,
“내가 현대여성이 아니면 뭘까?”

하였더니 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수옥썬 물론 현대식 여성입니다. 머리를 가르고 전대에 없던 뽀족구두도 신고 양속 양복을 입고 금시곶 차고, 얼굴이 현대식 미인이겠다, 스타일이 만점이겠다, 과연 울트라 모던이죠.”

그는 픽 웃었다. 수옥도 따라 웃었으나 속으로는 일종의 모욕을 당한듯이 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말입니다. 수옥썬 다만 일천구백삼십년식의 여성이었다 뿐이지 현재 실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은 아니란 말입니다. 수옥썬 현실에 어둡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자리와 생각에 묻혀 있읍지요. 좁게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현재의 수옥씨 같은 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옥씨가 어떻게 현대여성, 즉 현대사회를 짚어진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의 개척과 성장을 맡은 한 분자인 그런 여성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난 아무 자격도 없는 쓸모가 없는 여자란 말예요?”

수옥은 빨근해서 툭 쏘아 붙이며 정을 똑바로 보았다. 시선이 분노로 떨리는 듯했다.

“그렇죠, 지금의 수옥씨 같아선 그렇단 말입니다. 수옥씨가 적어도 현실에 입각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수옥씨의 한계를 전환 또는 넓히지 못하는 한도내에서는 정찬이라는 이름이 요구하는 여성도 되지 못할 것이니까요.”¹⁵⁵⁾

위의 글에서 박화성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여성관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실 사회가 요구하는 적극적인 여성이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개척하고 성장하는 여성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여성에게는 매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데 수옥을 끝내 비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수옥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어 오해와 질투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데 반해 주희는 개인적 감정보다는 현사회를 위한 더 큰 의미를 두고 적극 행동한다. 박화성의 이러한 여성관은 「하수도공사」의 용희에게도 심어주고 있는데 동권과의 사람을 일반적인 사랑으로 추락시키지 않고 동지적 관계로서의 이념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동권을 통해 용희가 장애를 돌파하고 개척하여 나가는 용기있는 여성이 될 것을 일깨우고 있다. 이는 박화성의 여성관이며 「하수도공사」의 여성 인물도 역시 남성을 통해 자각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남성과의 동지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비탈」에서도 주희를 통해 이러한 여성관을 제시한다. 전문학교에 다니는 지식인이지만 사회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적 욕망만 강한 수옥은 가냘픈 외모나 신경쇠약이라는 병에서도 이미 현실이 요구하는 여

155) 박화성, 「비탈」, 앞의 책, pp. 167~169.

성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대상황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자신의 삶의 올바른 좌표를 추구해 가는 여성 주희는 외양에서부터 언어와 체격과 표정과 행동에 힘이 넘치고 열정이 흘렀다. 봉건적인 굴레를 깨뜨리고 멀리 동경으로 유학간 점이나 아버지를 매사에 이겨내는 점들을 들어 주희의 개척정신과 적극성을 드러낸다. ‘내가 이번에 일찍 나온 것도 내 의식에 큰 변동이 생긴 것에 대한 해결을 짓자고’ 나온 것이라고 하는 주희는 정찬의 도움으로 실제적 행동에 나선다.

주희는 다섯 마을을 합하여 계몽반을 조직하고, 그 마을의 보통 학교 졸업생 세 명을 청하여 교원 넷이서 네 반을 가르치게 되었다.¹⁵⁶⁾

또한 주희는 공장파업을 지도하여 성공을 거둔다. ‘이번 일주일의 노력이 백 여명의 성공을 빚어내게’ 되어 기쁘다는 주희의 말에서 일주일의 노력은 동맹파업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주희는 현실개혁에 적극성을 갖고 정찬과 동지로서 활약하는 여성이 되어간다. 주희를 통해 제시되는 여성관은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는 것이다.

「철어진 청년회관」에서도 효주와 원주를 통해 지향되는 여성상은 <일본제국주의와 자본가 계급에게 맹렬히 반항>하여 식민지 현실이 요구하는 능동적인 여성이 되는 것이다.

효주와 원주는 시누이 올케 사이로서 사회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식민지의 어려운 현실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홍수에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돕기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156) 박화성, 위의 책, p. 191.

“.....참 형님 오늘은 꼭 부원들을 보이게 합시다. 저번에도 못 모이고 말았으니..... ” <중 략> 원주는 힘있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혁명가의 안해로서 부끄럽지 않을만한 일에 대한 열정과 성의를 갖고 있었다.¹⁵⁷⁾

현실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박화성은 여성인물들에게 남성에게 지지않는 이념적 지향성과 행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혁명가로서 활동하다 죽은 오빠의 꿈을 꾸고 난 뒤 효주는 보다 확고한 이념의 지향을 나타낸다. 여기에 ‘헐어진 청년회관’은 일제의 탄압 앞에 힘을 잃고 있는 시대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듯 비참한 몰골로 다 쓰러져가는 청년회관의 모습에서 효주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빠와 남편과 같은 남성에게 의존하여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 혁명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죽은 오빠나 입옥해 있는 남편을 상기하며 또한 그들이 활동하던 청년회관의 퇴락한 모습에서 효주는 다시금 솟아나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성에게 의존하여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

형님! 나 자신도 헐어져 가는 이 집과 다른 것이 무엇이요? 오빠의 가신 후 이년 동안은 남편의 지도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그마저 입옥한지 사 년이 된 이 날까지 내 생활은 어떠하였어요. 나는 모든 것에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었어요. 나는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통하여 받는 여성의 유약과 수동성을 실천 과정에서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움직여 주던 오빠와 남편이 없어진 오늘에 나는 힘을 잃고 방향을 잃은 평범하고

157) 「헐어진 청년회관」, 박화성 창작집 ; 홍수전후, 백양사, 1948, p. 211.

무의미한 생활에서 허덕이고 있는게 아닙니까?158)

여성의 유약과 수동성을 극복하여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운동에 앞장서고 꺾박받는 계층의 고통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비탈」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여성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박화성이 요구하는 여성은 「헐어진 청년회관」에서도 역시 식민지 사회 현실과 외면하지 않는 측면에서 자아실현을 완성하는 여성인 것이다.

다음으로 「신혼여행」에서도 작가는 지식 여성의 자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호남 지방의 수해참상과 신흥 도시인 목포의 퇴폐적 타락현상 그리고 섬마을의 처참한 궁핍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조선의 궁핍이 얼마나 극심하고 절실한가를 보여줌으로 현실과 유리된 채 살고 있는 현대 여성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경성에서 우수한 실업가의 딸로 보육과 졸업생인 복주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시계를 넓히지 못한 채 살아온 여성이다. 결혼 후 의대생인 남편 준호와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고 신혼여행 역시 이름난 명승지로 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준호는 호남선을 타고 호남 지방의 처참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도록 준비한다. 호남선을 타고 목포를 거쳐 섬마을까지 여행하는 과정에서 복주는 홍수로 생활터전을 잃고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재민의 모습과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망가져 버린 논과 말못하게 주저앉아버린 농가들의 모습 그리고 신흥도시 목포의 타락상과 섬마을 어민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게 된다. 복주는 자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완전한 현실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때 꿈에서 깬듯한 놀라움과 동정이 가슴에 일어남을 느낀다. 복주는 남편이 의도한

158) 위의 책, p. 215.

대로 방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에 쑥 들어가서 느껴보고 생각해 보고 알아보려는 태도로 변모되어 새로운 현실관을 갖게 된다.

“.....꿈엔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주 난 오늘 가슴이 어떻게 빠근하고 쓰리고 갑갑한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복주의 말소리에는 진정한 양심의 하소가 있었다.¹⁵⁹⁾

사회적인 현실에 무관심하고 인식이 없었던 지식인 여성 복주는 궁핍의 현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의 태도를 비로소 체득하게 된다. 그리고 복주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결심한다. 박화성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게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이 변모되는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남성인 준호에 의해 자각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에게 지나치게 주제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은 복주가 자각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게 함으로 작품의 경직성을 초래하고만 것이다. 작가의 프로문학적 성향이 시대적 사명감을 작품 내에 강조함으로 공식적인 소설구조를 가져온 것이다. 박화성은 이 작품에서 여성이 특히, 지식 여성이 현실을 직시하고 개척 정신과 성장에의 뜻을 갖고 실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기를 역설하고 있다.

위의 세 작품에서 살펴보았듯이 박화성은 시대적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자아발견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봉건적 남성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제약된 여성의 정체감은 식민지의 현실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부조리한 문제들이 해소될 때 확립됨을 제시하

159) 「신혼여행」, 박화성 창작집 ; 고향없는 사람들, 중앙문화보급사, 1948, p. 93.

는 것이다. 그러나 「비탈」의 주희나 「헐어진 청년회관」의 효주 그리고 「신혼여행」의 복주도 여성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자신의 인생관을 확립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남성윤리와 의 갈등을 통해 여성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부각이 미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화성은 자신의 정체감에 관한 경험을 표현하기 보다 식민지의 빈부와 계급에 대한 반항심을 표출해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점은 박화성 문학의 특징적 요소가 되는데 작품에 따라 여성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여성해방의 선언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둡기만 한 현실에서 여성의식의 발전은 그러한 현실을 포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다룬 박화성의 작품은 여성문제를 시대적 문제와 동일시 내지 그 안에 흡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각의 경지를 넘어 여성으로서, 하나의 인간인 나로서의 삶을 선언하는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이렇듯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남성원리에 도전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여성해방의 전망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된다.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백신애의 「나의 어머니」, 「낙오」에서 여주인공의 여성해방의 선언을 들을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은 크게 두 세대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어머니 세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여성해방의 전망을 보여준다. 어머니 세대로는 엽분이와 산호주가 등장하는데, 가난과 남성원리에 의해 정상적 삶에서 이탈하고 스스로 매춘부로 전락해 버리는 엽분이는 남성에 의해 몰락했으면서 남성에게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모순의 순환을 보여 줌으로 비극적 삶으로 끝을 맺고 만다. 산호주도 남성지배 원리에

희생된 여성으로 고아로 태어나 평양의 유명한 기생이 되어 강수라는 학생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되지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심한 상처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숨어서 강수의 아들인 봉준에게만 집착하면 살아간다.

어머니 세대의 삶을 통해 형성된 옥이의 정체성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삶과 동일시되어 있었으나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불협화음을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의 삶과 분리됨으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옥이는 어머니 엽분에게서 버림받아 산호주에 의해 길러졌는데 산호주의 간절한 청으로 옥이는 봉준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봉준은 세살 위인 옥이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한다. 옥이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이혼을 강요해도 참고 견뎠고 어머니가 남긴 논밭을 마음대로 팔아 낭비를 하고 여학생을 드러내 놓고 쫓아다니며 짝사랑에 괴로워해도 자신이 못배운 탓이라며 남편의 횡포와 도덕적 일탈을 희생적으로 감수한다. 더구나 숙희라는 여학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애원하기까지 한다.

그러다 옥이는 서울로 올라와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의식있는 신여성이 되어가는데 작품 속에서 옥이는 우등생이며 똑똑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옥이가 그동안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모순된 세계에 갇혀 있었나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주 우연한 사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남편을 만나달라고 숙희에게 애원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불근 옷 입은 죄수>를 보게 되는데 그들 중 영실의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늘상 영실 어머니가 눈물 섞어가며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던 것이다.

몇 백 명의 노동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 바친 영실 옴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정신이 뻗작 들었다. “옴바! 내 옴바도 되는 것이다” 영실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밟고 간 넓은 길을 뜻없이 바라보았다. 영실이는 눈을 부치며 “언니, 가자우” 옥이의 손을 잡었다.

“봐라!” 옥이는 옷득 서서 무엇을 곱히 생각하더니 “옴바가 밟고 간 이 길로 우리도 가야한다! 영실아!” 그의 음성은 썰려나왔다.
160)

소설의 전개에서 영실 오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옥이가 이 광경을 보고 갑자기 의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설정이라든가 노동자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영실 오빠처럼 자신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결심하는 과정에서 작품 전개상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 옥이의 결심이 다소 생경하게 들리는 것이다. 그것은 작중 인물에게 작가 자신의 의식을 강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처한 현실과 여성의 억압된 현실을 타파하려는 작가의 강한 사명감과 의욕의 결과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지는 옥이의 변모된 모습을 통해 확고하게 드러난다. 우선 남편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나는 엇더한 길을 걸었나? 안이 나도 사람인가?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줄 아니 사람이랄가? 울고 옷을 줄 아니 사람이랄가? 웅 — 아니다. 울었다면 나를 위하여 울었더냐 웃었다면 진정한 나의 웃음이었더냐. 모—도가 봉준을 위얏습이였다. 두리뭉실 삶이였다! 이러한 삶을 계속 식히려고 안타깝게 울었든 것이였다.…… <중략> ……… “불상한 인간! 차라리 울바에는 너를 위하여 울어라. 좀더 나가 여러사람을 위하여 울어라. 하낫 겨집애를 생각하여 운

160) 강경애, 「어머니와 쌀」, 혜성, 1932. 10, p. 128.

다는 것은 너무나 갑엄는 울음이 안이나!”¹⁶¹⁾

그리고 옥이는 자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남편에게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

나도 이제부터는 나로서의 삶을 계속하여 보렵니다. 그러닛가 과거와는 달라진 삶이겠지요.¹⁶²⁾

과거 남편의 권한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체념이라는 구세대적 사고에서 정당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자아발견의 선언인 셈이다.

어머니의 삶은 나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실행치 못한 것을 나는 실행할 것이다.¹⁶³⁾

이와 같이 전통적 윤리 도덕에 얽매어 불행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억압의 부당성에 대해 대항의지가 없었던 어머니 세대에 대한 극복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각의 경지를 넘어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여성 행방의 선언인 것이다.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 아래에 있어야 하는 부차적 존재임을 일깨워 주며 어머니 세대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체념과 종속적인 운명이 딸의 세대에 와서 주체적 자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여성의 적극적 실천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식의 자각을 통하여 확고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백신애의 「나의 어머니」와 「낙오」가 있다.

161) 위의 책, p. 128.

162) 위의 책, p. 130.

163) 위의 책, p. 133.

「나의 어머니」는 자기의식이 확고하며 사회활동에 사명을 두고 있는 ‘나’와 봉건적 관습에 갇혀있는 구여성인 어머니와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는데 사회활동을 함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보통학교 교원이었던 ‘나’는 여자청년회를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회관에도 나가고, 여성단체를 조직하기에 애를 쓰기도 하고 책과 씨름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 거기에 ××청년회관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인극(素人劇)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전 책임을 맡게 되어 날마다 밤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까운 재주 놀리며 빈둥빈둥 노는 것도 못마땅한데 밤늦게 연극한다고 돌아다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연극하는 데라니? 아이구 이 애 좀 보게. 그곳이 글썄 네가 갈 데냐! 아무리 상것의 소생이라도 제집애가 그런데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니? 모이는 자식들일랑 모두 제 아비, 제 어미는 모른다 하고 사회니 지랄이니 하고 쫓아다니는 천하 상놈들만 북적이는데”¹⁶⁴⁾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노기만 더할 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고 만다. 이따금 옛이야기 하던 끝에 자신의 입장을 돌려서 이야기 하면 그 당시엔 받아들이는 듯하나 그것도 잠깐이고 나면서 부터의 완고한 옛 도덕과 인습에 폭싸인 어머니시라 그만 씻어버린 듯이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주관으로 돌아가고 만다. 더구나 아들이 청년회관에 들락이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 있기

164) 백신애, 「나의 어머니」, 김윤식편 ; 겨래이, 조선일보사, 1987, p. 26.

때문에 어머니는 '나'의 행동에 더욱 비판적이다.

그러나 '나'는 '남자들과 같이 연극하기는 죽기보다' 부끄러워 하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부모가 야단하는 까닭에' 연극을 못하겠다고 이유를 대는 전근대적 여성과는 달리 남자를로만 하게 된 연극의 책임을 맡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진보적 여성이다. 또한 결혼문제도 어머니가 말하는 김가가 있지만 '나'는 이미 장래 남편되기를 허락한 남자가 있다. 이는 보수적인 관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자유연애 결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나'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괴로워하는 모습을 안타까와하고 이해하기도 한다.

자신의 편안함과 혈육을 사랑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모르고 도덕과 인습에 사무친 저 어머니와 자기의 생명같이 키워 놓은 단 두 오누이로 말미암아 오늘에 받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나는 가슴이 다시금 찢르르하고 쓰러졌다.¹⁶⁵⁾

그렇지만 '나'는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백신애는 어머니 세대의 인습적 편견을 거부하고 '나'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확고한 자기 실현의 의지를 실천해 나가게 하고 있다.

「낙오」에서도 이러한 여성해방 의지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보통학교 교원이었던 정희와 경순은 일개 교원에 만족하지 앞서가는 현실을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로서 2년 후에는 함께 동경 유학을 떠나기로 약속한 친구 사이이다. 그러나 가정형편 때문에 좌절될 위기에 놓여 있던 경순에게 서울로 떠난 정희의 청첩장이 날아온다. 그러나 정희는 부모가 정해 준 나이 어린 신랑과의 결혼식이 있는 날 동경

165) 위의 책, p. 28.

유학을 떠나버린다. 매사에 고집이 세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정희 성격을 받아 주면서도 경순은 한편 못마땅해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된 나이 어린 신랑과의 결혼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관습의 장벽을 넘는 정희의 모습에서 경순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과연 그렇다. 정희와 같이 의지가 굳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희생이 없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적으나 크나 남의 희생이 없이는 못사는 것이다.” 하고 입 속으로 한탄하듯 속삭였다. 처음엔 정희의 태도를 비난도 하였으나, 지금 자기는 여전히 가슴에 불평을 가득 품고서 큰 소리 한번 못하고 순순히 항상없는 생활을 계속하는 찢기없는 인간이다 라고 느끼는 동시에 정희의 그림자는 훨씬 멀리 자기 앞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¹⁶⁶⁾

정희의 행동은 제도와 인간적 도리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여성으로서의 인권선언¹⁶⁷⁾이며 실천의지의 표명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정희의 앞서 걸어가는 그림자에서 상대적으로 낙오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순은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갖고 스스로 선택해 떠난 정희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된다. 「나의 어머니」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관습이나 구결혼관에 용기있게 도전하고 부정하는 신여성의 강한 의지를 만나게 되며, 항상 새로운 세계로 탈출을 시도하는 백신애의 현실관을 보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세 작품은 자아 발견의 단계를 넘어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봉건적 질서와 남성원리에 도전함으로써 여성자

166) 백신애, 「낙오」, 위의 책, p. 197.

167) 정영자, 앞의 논문, p. 106.

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여성해방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여성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 했던 것은 하층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의 많은 작가들은 하층민과는 다른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지식인의 현실을 작품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여성작가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경애, 백신애, 박화성 세 작가는 당대의 지식인들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반면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강경애와 박화성의 경우 특히 지식인의 현실인식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박화성에게 있어서 지식인은 식민지의 부조리한 현실에 뛰어 들어 세계를 개선시키려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 더욱 분명한 특징이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의해 각성되고 남성에게 사상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백신애는 남성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남성 지식인이 등장하여 극복의지를 제시하는 작품은 없으며 여성 지식인의 자아 각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여성 인물의 현실인식 태도이다. 특히 허위가식의 세계에서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성 지식인 또는 신여성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담긴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은 강경애의 「그여자」, 백신애의 「일여인」, 박화성의 「비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경애의 「그여자」는 간도가 배경이 되고 있으며 허위의식에 간혀

있는 여성 지식인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목소리가 담긴 작품이다. 어쩌다 우연히 여류 문사가 된 마리아는 어쩌서 그렇게 쉽사리 여류 문사가 되었는지 반성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월감에 빠져 남을 업신여기는 허위가식의 세계에 빠져있는 지식인 문사이다. 관심있는 것은 외모나 명예 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없는 여성이다.

그가 얼두거우(二頭溝) 예수교 안에 설치된 부인 청년회에서 연사초청을 받아 떠나면서 그의 그러한 허위의식을 알게 된다. 한 번 약속해 놓은 것이라 불쾌하고 꺼림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농촌의 자연미를 구경하는 호기심과 그것에서 명작이나 하나 얻어볼까 하는 바램으로 떠난 것이다.

강연의 대상인 농부들에 대한 마리아의 생각은 어쩌서 고향을 등지게 되었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다만 운명에 돌리고 못나게 우는 것이 농부들이었고 제일 못나고 동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농부들이며,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이해하는 수준이다. 마리아의 농민에 대한 생각이나 강연을 떠나는 그의 마음가짐은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용정에서 강연장으로 가는 도중 마부의 누런 이를 보고 '저것들도 인간이라고 할까?'하는 생각을 품는데서 마리아의 계층의식을 보게 되며 강연회장에 도착하여 군중을 대하는 장면에서는 마리아의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극에 달한다.

문안으로 들어서서는 이마다 모두가 흑인종같이 보였다. 그 옷주제며 햇빛에 그을대로 그을은 얼굴들이 바라보기도 끔찍하였다.

마리아는 입으로는 무엇이라고 지껄이면서도 속으로는 똘 생각이 자꾸만 들어왔다. 말하자면 자기는 닭의 무리에 봉이 한 마리 섞인 듯하고 흑인종에 백인종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다. 따라서 저들이 나를 얼마나 곱게 볼까 내 말에 얼마나 감복이 될까 하는 생

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열변이 낙수처럼 떨어졌다.

비록 성경책을 내놓고 믿음이란 문제를 걸어왔을망정 사뭇 문제와는 딴판으로 노동자 농민을 부르짖고 현대 조선 사회상을 들추어냈다.¹⁶⁸⁾

어쩐지 자기들과는 다른 인종 같은 마리아의 열변에 농민들은 ‘어떻게 저가 노동자 농민을 알게 되었을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의 머리에는 ‘공부한 신여성 무엇을 안다는 여자는 다 저 모양이지’ 하는 생각만 뚜렷이 짙어졌다. 강연을 듣던 군중들은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죽어도 내 땅에서 죽고요, 살아도 내 땅 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 하러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내 잔뼈를 이룬 땅이요, 내 다만 하나인 조업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산명수려한 내 땅을요!”

마리아는 그의 백어 같은 손으로 책상을 치며 부르짖었다.

군중은 무의식간에 호응! 하고 비웃음과 함께 이때껏 지리하던 한숨이 흘러나왔다. 무엇보다도 어린 처자를 앞세우고 울며불며 내 고향을 떠나던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도 내 땅 안에 있으면 이 쓰린 이 모욕은 받지 않지요. 그래 남부여대하여 이곳 나와서 한일이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내 동포 밖에 없지요. 우리가 외로울 때 즐거울 때 가난에 찌들 때 같이 울고 같이 걱정해줄 이가 누구예요. 우리 동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달아나고 이 몸뚱이가 분골쇄신이 되더라도 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¹⁶⁹⁾

농민들이 왜 간도로 떠나와야만 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168) 강경애, 「그여자」, 한국여성소설선 I, 갑인출판사, 1991, p. 123.

169) 위의 책, pp. 123~124.

문제의식 없는 마리아의 외침에 농민들은 자신들과 괴리된 지식인의 허상을 보게 되었고 자기들을 밀어냈던 고향 지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중들이 동요를 보이자 마리아는 가슴이 선뜻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조선의 최고 학부를 마치었으며 더구나 조선에서 드문 여류 작가이고 게다가 어여쁜 미모의 주인공이다'라는 우월감으로 농민들을 비웃으며 노려보았다.

농민들은 자신들을 비웃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가진 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되었고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목사와 장로까지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이 보여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간도 민중으로 변하고 말았다. 결국 간도 민중의 분노의 불길에 허위의식에 가득차 농민을 멸시하던 마리아는 혼줄이 나고 만 것이다.

「그여자」는 여성작가로서 강경애 자신의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듯한 소설이다. 마리아가 간도 농민에게 외치는 내용은 「어머니와 쌀」에서 옥이가 고향을 떠나는 동포에 대해 부르짖는 내용과 일치한다. 「어머니와 쌀」에서의 옥이의 외침을 통한 작가의 의도는 「그여자」에 와서 간도 민중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징계하게 함으로 의식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도 역시 여류 작가로서 부정적인 지식 여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냄으로 지식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하겠다.

강경애는 특권층에 속해 있는 지식 여성이 얼마나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째서 자기가 그렇게 쉽사리 여류 작가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관심있는 것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로 허영심만 까맣게 높아져 가는 모습이나 마리아의 '백어같은 손'과 '인형같이 어여쁜 얼굴'은 작가가 보내는 불신의 시각이며 며칠전 미음 한 그릇 따 뜻이 못 먹고 죽은 농민의 아내며 누이며 딸들과 비교되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비교적 많아진 여성 교육의 기회에 혜택을 받은 여성이 조선의 현실문제와 동떨어진 현실인식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 여성으로서 기생 산월이를 동정하였지만 자신의 사고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분열된 의식을 보여줌으로 산월이를 죽음의 절망으로 가도록 방치한 「同情」의 ‘나’는 작가 자신의 반성적 목소리와 함께 현실과 유리된 지식 여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산월이가 매음부 노릇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비라도 담당해 주겠다고 했었지만 막상 산월이 자신을 찾아오자 부쩍 싫은 생각이 들고 어제 수해구제음악회에서 삼 원을 기부하였는데 또 돈 쓸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불쾌했던 것이다. 남에게 보여지는 일에는 서슴없이 돈을 내지만 정작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한 가엾은 여성을 차갑게 외면해 버리는 허위가식의 탈을 쓴 여성 지식인의 모습에 작가는 비판의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강경애는 「原稿料 二百圓」에 와서는 적극적 실천의지를 표명해내는 지식 여성을 보여준다.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나’는 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받은 원고료 이백원을 어디에 쓸까 들떠서 잠도 제대로 못 이를 정도이다. 어려서의 어려웠던 기억을 하며 털외투에 목도리, 구두, 금니 등 사고픈 것이 많았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남편과 다투게 된다. 남편은 감옥에서 심장병을 얻어 나온 동지와 투옥된 동지의 가족을 돌보는데 그 돈을 쓰자는 것이었다. ‘나’의 생각에 대해 작가는 남편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너도 요새 소위 모던걸이라는 두리뎡년이 되고 싶은 게로구나. 아, 일류 문인으로써 그리하여 하는 게지. 허허 난 그런 일류 문인의 사내될 자격은 못 가졌다. 머리를 지지고 복고, 상판에 밀가루 칠을 하구 금시계에 금강석 반지에 털 외투를 입고 입으로만 아! 무산자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문인이 되고 싶단 말이

지, 당장 나가라”¹⁷⁰⁾

당시 여성들의 사치풍조에 대한 풍속도를 짐작케 하는 장면이며, 사치 여성에 대해 비판하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물론 남편의 말에 동조하게 되었음을 동생 K에게 이야기 하면서 지식인이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실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남편을 통하여서 이긴 하나 허영심에 들떠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자각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당시 신여성들의 사치와 허위와 가식된 삶을 비판하고 있는 백신애의 소설 「일여인」에서는 여학교까지 나온 여성의 위선적인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다. 사치여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문제였다.

요새는 혼인한 젊은 여자나 점원이나 교원이나 여급이나 학생이나를 물론하고 그들의 사치한 의복, 손에는 핸드백, 낫을 가리는 양산, 구두, 비단 양말, 구름결같이 지진머리, 후각을 놀래이는 향수 — 사치하기로 유명한 파리 일류 사교연회에 참례케하여도 사치한 맛으로는 별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어느 편으로 생각하면 좋다. 그러나 그 반면 곁는 사람은 사치비를 지출하는 미명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보다도 생활의 균형을 잃은 기형적 생활이 더 한심한 일이다. <중 략>

조선사회를 염려하는 유지숙녀 여러분이어 이 사치비 확장을 축소할 도리가 없을까요?¹⁷¹⁾

한달 생활비가 백 원이며 사치비가 이십 원이나 삼십 원이 된다는

170) 강경애, 「原稿料二百圓」, 신가정, 1935. 2, p. 196.

171) 李容高, 「朝鮮女子와 奢侈」, 신가정, 1935. 9, pp. 90~91.

지 일상생활은 오십 년 전 그대로이면서 사치한 것만은 이십세기의 오늘 유행을 따라가는 생활의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소설 「일여인」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여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님’의 하루를 세밀히 관찰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의 하루는 거짓된 허영과 욕설로 일관된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 세수시키는 장면부터 이 여성의 허위의식이 드러난다. 부자집 아이처럼 보이기 위해 비누보다 좋다는 센강(洗顔) 구리무로 세수를 시키고 키제 타월로 얼굴을 닦은 뒤 해찌마 화장수를 얼굴에 바른 뒤 크림이 발리우고 퍼프로 눌러준 뒤에야 아침 세수가 끝이 난다.

아이의 아침상은 한통에 60전 하는 오트밀에 바나나 두 개, 코오피한 잔이다. 온통 서양식인데 이 모든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며 마님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치스런 아이의 아침식사는 마님의 초라한 아침식사(보리 섞인 밥, 장찌개, 간청어퐁지)와 대조가 되어서 마님의 허영심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마님은 남에게 보이는 외양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아들의 외모 단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역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도 여간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김참의 댁에 초대받아 가서도 주머니엔 내일 아침 바나나 사먹일 돈 밖에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

“아이 음식은 보기만 해도 몸서리야. 그까짓 날마다 먹는 걸 무엇이 그리 먹고 싶어 야단이다, 그만 먹고 이야기나 합시다.”¹⁷²⁾

이렇게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 빙하니 현기증이 날 것 같다. 예전 시

172) 백신애, 「일여인」, 한국현대문학전집 V, 삼성출판사, 1978, p. 139.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벳 천이나 하다가 시아버지가 죽자 폭삭 망해서 겨우 백 석 추수나 남았는 것을 그 남편이 밤낮 먹고 놀기만 하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는데 거기다 남에게 업신여김 받기 싫어 식구 셋에 침모, 식모, 상노 아이 셋을 부리니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먹는 것도 말이 아니므로 누구보다 요리를 먹고 싶은 사람은 마님이다.

그러나 마님은 과자쪽이나 집어먹다가 서울서 유명한 손님이 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일어선다. 마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과시를 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마님의 가식된 삶을 꿰뚫어 보고 비난을 한다. 작가는 참의댁에 참석한 사람들과 유모나 식모로 하여금 마님의 허위가식된 삶을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세수한 자리를 치우던 유모는 혀를 끌끌 차며,

“에이 참, 세수한 자리가 아니라 물지랄병하고 간 자리 같군.”

하고 물론 입속말로 속삭인다.. 한참 걸려 마루 소제가 끝나자 방으로 들어가 경대 앞을 바라본다. 크림임통, 화장수병, 분통, 퍼프, 수건 등이 자욱이 뚜껑이 벗기어 구르고 있다.

“웬 사내 새끼를 사당에 보낼려나 보다 …… 별꼴도 다 보네.”

하고 역시 입속으로 혀를 찬다.

“부엌 사람! 커피차 얼른 가져와……”

대청에서 고함소리가 나자 식모는 코오피 주전자를 들여다 놓는다.

도련님 상 위에는 아주 서양식으로 보리죽(오트밀) 대접이 놓였고, 바나나 두 개가 접시에 담겨 있고, 코오피잔이 놓여 있다.

식모는 돌아서 나오며,

“에이 정말, 단 일곱 식구에 아침을 꼭 네 차례나 치루니 웬 사람이 견뎌 낼 수가 있나. 멀쩡한 아이놈에게 아침마다 죽은 무슨 벼락맛을 죽만 먹여 글썽.”¹⁷³⁾

173) 위의 책, p. 134.

마님의 생각엔 서양식 생활이 이상적이고 부유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여성의 사고는 개화와 함께 들어오기 시작한 서구의 문물을 아무런 각성 없이 받아들이고 쉽게 동화됨으로 일어난 과도기적 사회현상의 한 단면일 것이다.

특하면 과정(過程)이니 과도기(過渡期)니 하는 말을 잘 하나 실상 어느 과정을 짓고 또 과도기에 있는 것은 현대 우리의 여성계일까한다. 왜그런고하니 현대의 여성은 구교양(舊敎養)과 옛전통(傳統)을 버서나 새 교양과 새 국원(紀元)을 세우려는 까닭이다.¹⁷⁴⁾

그러나 언행범백에 아직 자리잡히지 못하고, 대개는 경조하고 부박하여 일에 대한 집착력과 결행력이 없고 무엇을 느낀대야 깊이 느낄 줄 모른다고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과도기에 혼란을 겪는 당시 여성의 현실을 읽을 수 있다.

겉모습은 신여성이지만 구시대적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당시 여성의 현실이었다. 「일여인」에서도 유난히 <마님>이라는 호칭에 집착하는 것이나 외모에 신경 쓰고 남에게 보이는 걸치레를 중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언어는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는 마님의 모순된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새로운 것을 적절히 받아들일 지적 수준이 따르지 못하는 당시 신여성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님의 파행적 행동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거짓말을 시키고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는다.

174) 신가정, 1935. 7, 권두언, 「과도기의 신여성」, p. 5.

“이 자식아 오늘도 학교에 가거든 더러운 아이와는 놀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선생 말을 잘 들어야 해, 그까짓 쌍년의 선생이고 못한 자식이기는 하드라마는 부득이 배워야 되는 것이니 선생 가르치는 것은 꼭꼭 그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체조 시간이 끝나거든 선생이 야단해도 듣지 말고 너는 꼭 수도에 달려가서 손을 씻고 이 손수건에 닦아야 된다. 웅? 알았니? 빌어먹을 놈의 선생이란 것이 흙장난한 아이들의 손도 씻기울 줄 모르고…….애야 너 꼭 손씻겠다고 해라 손이 더럽거든 꼭 씻겠다고 해 알았니?”

마님은 도련님에게 열심히 꾸밈을 하고 있으나, 도련님은 오토밀이 먹기 싫어 바나나 먹기에 바빠 마님의 말은 귀 넘어로 듣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묻거든 우리 집에는 목욕탕이 있어서 하루 한번씩 꼭꼭 목욕한다고 해라, 그리고 잘 때는 꼭 잠옷을 입고 잔다고 해, 잠옷이라지 말고 파자마 입고 잡니다라고 해야 되……그리고 아침에는 밥 먹지 않고 오토밀을 먹는 다고 해야 된다. 알았니?”¹⁷⁵⁾

뿐만 아니라 아이의 교육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어머니이다. 낮잠에 방해가 된다고 나가 놀라고 하며 아이의 숙제를 대신 해 주기도 한다. 다음날 엄마가 대신해 준 숙제 때문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온 아이를 보고 마님은 선생에게 한바탕 퍼부어 주기 위해 학교로 향한다. 그러나 양품점 앞에 왔을 때 자신이 어디를 가던 길인지도 잊어버리고 주머니엔 동전 한 푼 없으면서 몇 천 원 어치라도 마음에 드는 물건만 있으면 살 것 같은 태도로 양품점으로 들어간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무지와 허영심에 들떠 파행적 삶으로 치닫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하여 식민지 시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식 여성의 자각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러한 여성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175) 「일여인」, 앞의 책, p. 135.

우리 민족이 처한 식민지 현실에서 생활의 균형을 잃고 사치와 허영심만 높아가는 여성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은 당시 사회상의 반영임을 알 수 있는데, 박화성은 「비탈」에 등장하는 수옥을 통하여 현실 인식이 없고 허영만 쫓는 부정적 여성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수옥은 소작인의 딸로서 부모나 동생에게 피해를 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실사회라든가 현실이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집에서 보내는 학비 이십 오 원의 쓸 곳 밖에' 보이지 않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 여성이다.

아내가 있는 철주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도 허영심을 만족시킬 만한 재력이 있기 때문이며, 사회 생활의 개척과 성장을 맡은 한 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정찬의 뜻을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 작가 박화성이 불신의 눈으로 보는 여성은 현실에 입각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에 지배되어 안목을 넓히지 못하는 여성인 것이다.

머리를 지지고 뽀족 구두를 신고 양속 양복을 입고 금시계를 찬 외양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여성이지만 내면은 구태의연한 재래의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는 여성상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과도기 여성의 현실 반영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의 모습에서 세 작가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상은 허위와 가식의 세계에서 시계를 넓히지 못한 채 파행적인 삶으로 치닫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문학이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또한 비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현재 조선의 현실이 요구하는 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전진적인 인생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IV. 1930년대 여성문학의 특징과 한계

—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를 중심으로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세 작가의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문제 인식의 양상은 공통되는 특성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특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30년대는 여성 소설가의 창작활동이 두드러졌던 시기로 여성해방 운동의 흐름 중에 한 영역을 차지하고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성소설의 출발점인 1920년대의 소설가들에 비해 1930년대 작가들을 매우 뚜렷한 문학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인식의 폭과 관심의 지평이 확대되고 남성작가 이상으로 사회현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는 당대 사회의 제반문제와 모순을 묘사함으로써 시대적 고뇌와 아픔에 동참하고 있으며,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본질에 다가서고 있다. 박화성은 동반자 작가 성향을 갖고 있는 작가로 지적되듯이 여성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예외가 아니었다. 우선 박화성은 여성의 현실문제를 그려내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자신의 이념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으며 여성문제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박화성에게 여성문제는 계급해방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여성관도 전통적인 여성의 소극성을 배격하며 사회개혁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여성으로서 현대사회를 짊어질 수 있는 여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성과의 동지적 유대와 협조를 통해 계급의 문제나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화성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남성에게 지지 않는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불만을 정당

하게 표현하며 남성은 여성을 동등한 지위로 인정한다. 그것은 남성이 억압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성은 남성에게 사상적으로 의지하고 남성에 의해 자각된다. 이러한 점은 박화성이 남성원리를 무의식 중에 인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여성등장 인물이 남성원리와 갈등이 없는 가운데 여성문제가 미약하게 드러나며 여성해방의 전망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전망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즉 박화성 작품에 여성해방의 전망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사실을 민족적 특수성이나 그의 사회주의 여성해방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반영이라고 평가되는 점이지만 한편으로 여성이 남성원리에 흡수되어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면은 강경애나 백신애에게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발견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화성 문학의 전반적인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해방은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박화성은 '유약성과 수동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여성으로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은 중요하다. 여성해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여성해방의 의식이 소설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경애는 이념의 구현을 위한 자신의 창작 방법을 택하여 식민지의 현실을 그려내는데 궁핍에 대한 남다른 인식으로 민족의 고통에 함께 괴로워한다. 강경애는 박화성과 마찬가지로 경제문제와 계급의 문제에 사상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여성 문제보다 식민지 사회 모순에 더 많은 영역을 할애한다. 그러나 강경애는 식민지 현실에서 고통받던 여성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봉건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이중체제 내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삶을 밀도 있게 규명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박화성에 비해 한결음 여성문제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강경애는 궁핍한 민족의 한과 극복의 의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의 작품은 민족해방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와 여성해방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물론 진실한 민족의 문제앞에서 여성문제가 미약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짐은 박화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문제를 다루는 작품에 있어서는 여성해방의 전망이 매우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강경애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당대 여성문제를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여성의 적극적 실천의지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관건이 되는 여성문제의 핵심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는 부분인 것이다. 남성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남성원리와의 갈등을 통해 여성의 피해의식을 드러냄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이러한 면은 백신애와 통하는 부분인데 강경애는 「어머니와 딸」에서와 같이 남성원리에 대한 인습과 사회적 편견에 과감히 도전하는 여성을 그려 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박화성과 달리 여성해방의 전망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한다 하겠다. 그러나 남성원리와의 갈등양상이 일시적이거나 미미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있으며 여성해방의 전망 역시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에 뒤쳐지고 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백신애는 데뷔작도 그렇고 그의 사회활동 등으로 보아 이념과 무관하지 않은 경력을 보이나 작품에서 사상적 측면은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위의 두 작가와는 달리 사회적·민족적 문제보다는 자신을 비롯한 여성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남성체제의 사회구조와 민족적 현실인 빈궁과 소외의 문제가 백신애 소설의 주제이며 여성문제를 가부장제와 관련하여 인식함으로 여성해방의 전망을 심화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사회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여성의식을 수용하는 이원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백신애 소설은 민족해방을 위한 저항의지나 이념적 요소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가부장적 남성원리와의 갈등이 소설구조의 중심을 이룬다. 남성과의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여

성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백신애는 여성문제를 남녀의 권력 관계로 파악하며 남성은 철저한 지배자로 피지배자인 여성을 확대하고 착취하는데, 이렇게 남성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백신애 소설의 특징이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없고 구시대적 관념의 지배를 받는 전통적 여성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여성의 삶이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보임으로써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어떤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여성의식의 고조와 더불어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여성은 남성원리의 편견과 인습에 도전하여 실천의지를 적극 제시하기도 한다. 백신애는 당시의 현실문제였던 궁핍의 문제와 가부장적 억압 구조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성들의 자아의식 형성과 존엄성 회복에 노력한 작가였다. 그리고 여성해방의 차원을 그리되 여성심리의 미묘함까지 묘사함으로써 여성리얼리즘의 확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 억압을 묘사하지만 능동적 행동이나 저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강구조를 이룸으로 구원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작가의 여성문학적 가능성은 식민지라는 시대 상황이나 남성우위의 전통적 체제라는 한계상황을 갖고 있지만 출발에서부터 여성의식이 중요한 발생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상황을 배려하면서 작품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데 이들의 작품에서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여성문학의 본질에 근접한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오늘날 여성소설을 운위할 때 이들 작가들을 반드시 언급하게 되는 소이이며, 오늘날 페미니즘 비평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체계적이고 정교한 여성비평 이론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우리 문학사에서 잊혀지고 소외된 여성문

학을 정당하게 자리매김하고 남녀가 평등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넓어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1930년대의 여성문학은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비로소 여성문학의 위치를 확립한 중요한 시기이다. 본 논문은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활동한 여성 작가의 소설을 여성문학 비평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는데 여성문학 비평은 문학에 있어서 성차별에 의한 여성의 예속성을 분석하며 남성중심의 문학연구가 갖는 편견을 가려내고 도외시되고 억압된 영역을 복원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존재로 무시되어 온 여성작가와 작품을 재조명하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자는 흐름인 것이다.

1930년대는 말할 수 없는 경제적·정신적 꺾박에 고통받아야 했던 식민지라는 상황이었다. 이미 여성의 근대적 자아 각성은 흔들리기 시작한 유교체제와 실학, 동학 운동 및 천주교를 비롯한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태동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교육 기회의 확대, 여성단체의 활동, 여성잡지의 발간 및 서구의 여성해방 이론의 유입 등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민족적 위기 상황 하에서 여성의식의 형성은 더 시급한 식민지의 당면문제에 기울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여성 자신의 지위향상을 위한 투쟁보다 구국운동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여성해방 운동을 주도한 사회주의 여성해방 의식은 '계급해방 없이 부녀해방도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당대 여성의 삶은 뿌리 깊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의한 차별과 극심한 궁핍에다 노동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를 두고 살았던 여성작가들은 현실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20년대에 이어 1930년대에는 여성문학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여 여성 현실문제를 보다 다양하게 묘사하게 된다. 당시 문단에서의 여성문학에 대한 언급은 미약하였으나

비평의 관점은 문학엔 성별이 없다고 보는 프로문학의 입장과 여성은 여성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써야한다는 주장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은 이러한 단편적인 언급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체험과 현실이 지시하는대로 작품을 써 나갔다.

본 논문은 식민지라는 민족 수난기에 여성작가의 입장에서 여성의 현실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작품에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세 작가의 작품에서 찾아지는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은 공통적으로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궁핍에 의해 파생되는 여성의 문제를 보다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들 작품은 궁핍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중구조를 이루는 작품들을 유형별로 나누면 생존위기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촌여성의 생활상, 노동여성의 문제, 조혼과 성의 상품화가 된다.

빈궁여성의 생활상에서는 굶주림과 각종 질병 노동에 고통 받는 여성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지하촌」, 「호도」, 「적빈」, 「한귀」, 「춘소」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열악한 의식주 생활 중에서도 여성은 더욱 비참한 수준이었으며, 나쁜 조건의 출산과 산후조리의 부실함으로 질병으로 평생을 시달려야 했다. 또한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 외에도 농사일까지 해야하는 과중한 노동의 책임에다 지배자로 군림하여 억압하거나 무능한 남성으로 인한 수난 등으로 여성의 삶은 극도로 피폐화되어 있었다. 세 작가는 각기 다른 창작 방법으로 형상화 해내고 있으나 식민지 하층여성의 삶이 부조리한 현실의 한 단면임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근대산업사회의 사회 문제인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간문제」와 「추석전야」는 여성 노동자가 안고 있는 이중억압의 체계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식민지 지배체제와 다를 바

없이 무섭고 가혹한 노동현장에서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착취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의식이 변모되어 가는 과정 등을 묘사함으로 노동 여성의 자각을 유도하고 있다.

가난이란 이유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조혼이나 성의 상품화 문제를 「동정」, 「마약」, 「중국어날」, 「온천장의 봄」, 「복선이」, 「소독부」와 같은 작품에서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식민지하에 성행하였던 매음행위 실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가난이 부른 여성의 상품화 문제는 단순히 자식과 아내를 파는 인간성 상실과 윤리의식의 부재를 비판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중요한 여성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작가들이 인신매매되고 조혼당하는 여성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처리함으로 문제제기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 남성우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문제를 「광인수기」, 「어느 전원의 풍경」, 「어머니와 딸」, 「비탈」에서 살펴 보았다. 이들 작품엔 교육의 부재와 봉건적 남성우위 사회에서 드러나는 여성피해의 일면이 그려지고 있다. 근대적 교육의 혜택을 입은 남편과 전통적 교육이나 그나마도 못받은 아내와의 결혼생활에서 오는 여성의 부당한 대우와 법적인 지위문제 그리고 봉건적 가족제도 하에 아내와 희생만을 강요 받는 여성의 삶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계없는 여성교육의 문제를 그린 작품들을 통해 식민지시대 여성의 지위를 규명해 보았다.

셋째,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자아발견 의지를 표명해 내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여성문제를 시대적 과제와 동일시 내지 그 안에 흡수함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관을 제시하고 있는 박화성의 「비탈」, 「헐어진 청년회관」, 「신혼여행」의 경우와 자각의 경지를 넘어 여성으로서 '나'로서의 삶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어머니와 딸」, 「나의 어머니」, 「낙오」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

기서는 식민지 현실과 관련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박화성의 여성관과 강경애와 백신애의 작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해방의 전망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작가가 불신의 눈길을 보냄으로 허위가식의 세계에 속한 여성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여자」, 「일여인」, 「비탈」에서 작가들은 식민지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허영심만 높아져 가는 여성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세 작가의 작품세계 중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측면을 규명해 보았다. 이 세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식민지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여성운동이 민족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듯이 이들 작가 역시 시대적 당면문제에 보다 깊은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세 작가 모두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도 이들의 현실관은 쉽게 이해되는 것이다.

박화성이나 강경애는 경제적 문제와 계급의 문제에 깊은 사상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작품이 여성문제보다 식민지의 사회모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지의 현실을 소설화하면서도 한편 여성의 현실문제에 근본적인 관심을 표명해 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박화성의 경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세 작가 중 여성문제에 대한 부각이 가장 미약함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박화성은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여성문제를 민족현실과 동일시 하거나 그 안에 흡수하는 양상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강경애의 경우는 박화성 보다는 여성문제에 한 발 근접해 있다. 봉건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이중체제 내에서의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를 다양하게 소설화하고 있다. 강경애 역시 여성문제가 미약한 작품도 있으나 억압되어 있는 여성의 실체를 세상에 알

리고자 노력한 필사의 흔적이 찾아지고 있다. 백신애의 경우는 사상적 경향이나 저항요소가 비교적 뚜렷했던 두 작가와는 달리 이념적 요소가 작품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백신애는 가부장적 남성원리에 억압되어 있는 여성의 문제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작가 모두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여성해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오늘에 와서까지 관건이 되는 여성문제의 본질에 근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 세 작가는 여성해방 문학의 시각에서 볼 때 일찌기 여성문제를 인식한 매우 의식있는 작가들로서 페미니즘 소설에서 볼 때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기본자료

김윤식 編, 백신애소설집 : 꺼레이, 조선일보사, 1987.

박화성, 故郷없는 사람들, 중앙문화보급사, 1948.

洪水前後, 백양당, 1948.

故郷없는 사람들, 일신서적, 1994.

서정자 編, 여성소설선 1, 갑인출판사, 1991.

신희천 編, 불꽃의 여자 백신애, 보성출판사 1987.

임현영·오현주 編, 인간문제, 강경애 전집 1, 열사람, 1988.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2), 태학사

<新家庭> <靑年文學> <新東亞> <彗星> <三千里>

<靑年朝鮮> <四海公論> <女性> <동아일보> <朝鮮日報>

等 雜誌, 新聞

參考論著

단행본

강만길, 일제시대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1987.

강재언, 일제40년사, 풀빛, 1984.

권영민, 한국근대문인사전, 아세아, 1990.

김열규 外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연작사전, 일지사, 1979.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일지사, 1981.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정자, 한국여성소설연구, 민지사, 1991.
 김치수, 한국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86.
 박영호 外, 사회과학개론, 백산서당, 1990.
 송명희, 여성해방과 문학, 지평신서, 198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이정숙, 실험소설연구, 한샘, 1989.
 이효재 엮음,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 비평사, 1979.
 임범송·권철 외, 조선문학연구,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89.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8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9.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1.
 최동호 編, 새로운 비평논리를 찾아서, 나남, 1990.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한국여성사, 풀빛, 1992.
 BEBEL·AUGUST, 여성론, 이순예역, 까치, 1987.
 마르크스·엔겔스·레닌·스탈린, 여성해방론, 조금안 옮김, 동녘, 1988.
 크리스위턴,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구조주의의 이론, 조주현역, 이
 대 출판부, 1993.

연구논문

김경수 「오정희론—여성성의 탐구와 그 소설화」, 외국문학, 1990. 봄.
 김양미 「박화성연구」, 건국대석사, 1989.
 김연희 「강경애소설연구」, 연세대석사, 1992.
 김열규 「여성과 집에 관한 시론」,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1992.

- 김정화, 「강경애소설연구」, 동국대박사, 1991.
- 김현영 「강경애소설연구」, 경상대석사, 1992.
- 도애경 「강경애연구」, 건국대석사, 1987.
- 박광자 「여성문학의 개념과 특성」, 충남대어문과연구소, 1991.
- 박미현 「백신애소설연구」, 전남대석사, 1992.
- 박용수 「강경애장편소설연구」, 전남대석사, 1992.
- 박화성 「아내와 어머니와 문학」, 현대문학, 1965. 6.
- 배옥남 「백신애소설연구」, 인하대석사, 1990.
- 서상미 「강경애소설에 나타난 여성문제 의식연구」, 홍익대석사, 1993.
- 서정미 「성과 노동」,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비, 1991.
- 서정자 「일제강점기 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박사, 1987.
- 서정자 「김명순연구」, 월간문학, 1988. 2.
- 서정자 「페미니즘과 한국문학」, 문학예술, 1990. 6.
- 서정자 「페미니스트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한국여성학」, 한국 여성학회, 1991.
- 성낙희 「한국현대여류문학연구—그 사적개관과 문학의 특성」, 숙명여대석사, 1970.
- 손덕수 「한국의 현대여성운동의 실태와전망」, 여성문제연구,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92.
- 송명희 「관념과 행동의 분리」, 문학예술, 1990. 6.
- 송지현 「1930년대에 있어서의 여성자아정립양상연구」, 전남대박사, 1991.
- 오상인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연구—박화성·강경애·백신애 작품에 나타난 빈궁의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석사, 1989.
- 원명수 「페미니즘문학에 대한 대비적 고찰」,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1994.

- 원종인 「1930년대 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석사, 1988.
- 이상경 「강경애연구—작가의 현실인식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석사, 1984.
- 이승희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사회과학개론, 백산서당, 1987.
- 이은영 「여성운동과 법」 여성해방이론과 현실, 창비, 1979.
- 이정옥 「한국여류소설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석사, 1987.
- 이종월 「박화성의 <백화>연구」 충남대석사, 1987.
- 이지은 「오늘의 농촌여성」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비, 1979.
- 임경선 「1930년대 여류소설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 1976.
- 임금복 「심화된 자아구현의 갈등」 문학예술, 1990. 6.
- 임선애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연구—박화성·백신애·강경애 작품을 중심으로」 효성여대박사, 1992.
- 임옥희 「미국여성비평의 전개과정」 세계의 문학, 1988. 봄.
- 전택영 「여성비평의 어제와 오늘」 현대시사상, 1991, 봄.
- 정영자 「한국여성문학연구—1920. 3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박사, 1987.
- 정혜경 「강경애소설연구」 고려대석사, 1891.
- 채 훈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에 있어서 빈궁의 문제」 아세아여성연구 23집, 1984.
- 최민지 「한국여성운동 소사」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비, 1979.
- 최숙경 「한국여성해방사상의 성립」 한국사학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최숙경 외 3인 「한국여성사정립을 위한 여성인물유형」 여성학논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3.
- 현룡순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린네퍼스, 「성의 정치학」 김준우 옮김, 현대시사상, 1991. 봄.

사라밀즈 외, 「페미니즘용어사전」, 이승훈 옮김, 현대시사상, 1991. 봄.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Women's Problem Shown at the Novels in 1930s

1930s has the very important meaning since feminine literature established its own position in the history of male-dominating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rtistic works of Park Hwa Seong, Kang Kyung Ae, and Paik Shin Ae through the viewpoint of feminine literature. Feminine criticism evoked the new wave in the traditional male-dominating analysis and estimation on artistic works through involving the stream of feminism movement into the field of literature, and so it has a meaning for analyzing, revising and conquering the dependency of female based on sex difference.

Female recognition in Korea was evoked by spreading of Catholicism and Donghak Movement. Then the private school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argument on the necessity of woman education. Female recognition was developed by the activities of female organizations, the appearance of female magazines and the spreading of feminine theories in the western countries. However, female movement was cultivated as a kind of independent movement, and thus it was not for herself as female rights movement or sex emancipation in the Western countries.

The female novels with the theme of feminism first shown in 1920s have variously drawn the female problems by lots of female authors in 1930s. The three authors analyzed in the study have drawn the female problems related with the realities of national suffering era.

Chapter 2 suggests some facts related with the works. This chapter reviews the realities of female at that time, traces the lives of the authors and the criticisms of literacy circle to them, and summarize the background elements of female recognition.

Chapter 3 may be divided into 4 steps. The first step is review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women suffering by poverty, the problems of female labor force, and the problems of early marriage and sex market. This chapter finds that the authors were involved in the real problems of the poor women with the recognition of poor living conditions in the colonial country. It is very important fact that they describe the female problems based on the poverty in the colony.

The second step is to review the suffering and position of women in the male-dominating society, Even though the authors could not subjugate the reality, they suggest the problems of dependency in male-dominating society and the women's damage based on less education.

The third step is to see the prospects of feminism as a kind of self-awareness. This step finds the will of women escaping the social bias and customs, and directing the new ego. The three authors are appeared differently ; one is to suggest the female

perspective as a woman important at that era, and the other is to announce the position of female above the stage of self-recognition.

The forth step is to show the authors' critics and arguments on the negative side of woman as a king of criticism on the female in falsehood, and to understand that they urge the self-consciousness of female.

Through the above procedures,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authors' thoughts on female problems. This study gathers the common phenomena into some issues but it also find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authors. Park Hwa Seong and Kang Kyung Ae indirectly suggest the perspectives on feminism since they focus more on the national liberation. Park Hwa Seong focused more on the national liberation but Kang Kyung Ae does more on the female problems. Park Shin Ae shows more critical recognition on the female problems but less on the national problems.

In the situation of combining both the colonial reality and female problems, the perspective of feminism is more and more weak at the novels emphasizing the discrepancy in the colony but more strong at the novels more emphasizing the realities of female problems.

These three authors have more or less a deep recognition of the realities of female problems, and they are connected with the core of female problems which is nowadays also important.